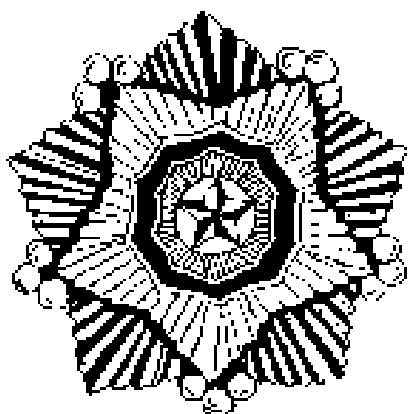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6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100(2011)년 제6호

(루계 제 764 호)

◆◆◆◆◆◆◆◆◆◆

차 례

◆◆◆◆◆◆◆◆◆◆

영광드리노라 위대한 우리 당에	3
우리는 백두산답사행군대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언제나 그 순간에	4
주체문학의 대강	5
철갑상어는 바다로	5
고요	6
곤장덕에서	18
영원한 모습	19
강원땅에 부치노라	19
석철이 되어 금단이 되어	20
생활의 진실과 시인의 량심	21
포전담시	25
보천보의 불길은 잠들지 않는다	26
지적재산	32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	33
고향자랑	35
철학적인 세부, 재치있는 형상수법들	36
자그마한 세탁소앞에서	40
승리의 날	41
여름밤의 추억	52
전사시초	53

경구, 격언 겸손성	54
강성대국보루를 쌓아가는 사람들	55
꽃다발	55
고향의 내가에서	56
숲	57
미루벌의 물노래	67
꿈이 아니랍니다	68
강산아 울려라	68
내가 사는 은하계	69
《그랬으면 좋겠다》	70
인상깊은 형상의 비결은...	71
로병의 경고장	73
상봉	73
제탓이지	74
수리봉에서	75
해방후 남궁만의 극문학에 형상된 애국농민의 성격적특질	76
술	77
김금원과 금강산시에 대하여	78

영광드리노라 위대한 우리 당에

김 덕 선

맑고푸른 6월의 하늘아래
마치와 낫과 붓을 창공높이 추켜들고
승엄히 솟아 빛을 뿌리는
오, 당창건기념탑이여!

탑을 웅위한 저 성벽엔
새겨져있구나
우리 장군님 우리 당을 이끄시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일심단결의 참모습

백두의 용암대지를 초석으로 삼은듯
창공높이 치솟은 마치와 낫과 붓은
우리 당을 강철의 당으로 억세게 키우시여
사회주의반석우에 굳건히 세우신
우리 장군님의 억센 기상인가

마치와 낫과 붓을 높이 받든
층층의 대돌과 층계들은
장군님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쳐오신 낫과 밤 걸으신 천만리가
그대로 대돌과 층계를 이룬듯

다가서면 들려오는듯
잊지 못할 두만강기슭 무포의 낚시터

가 사

조용히 흐르는 물위에 깊은 사색을 엮으시고
무르익히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장군님음성

우리 당이 걸어온
성스러운 그 나날에
저 탑우에 펼쳐진 경축의 밤의 축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성대국 밝은 러명을 펼쳐놓은것 아닌가

저 탑엔 새겨져있구나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임을
흘러온 력사와 흘러갈 력사에 새긴
영원불멸할 조선의 진리

오 영광 드리노라
수십성상 우리 당을
불패의 당으로 이끌어오신
우리 당의 총비서 **김정일**동지께!
감사를 드리노라
영원무궁토록 우리 당을 이끌어가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동지께!

우리는 백두산답사행군대

조 영 사

대오앞에 붉은기 펄펄 날리며
백두산행군대오 우리는 간다
수령님 성스러운 그 자욱 따라서
백두산답사대오 앞으로 앞으로
아 혁명의 세대를 이어가는 이 길은
천만년세월에도 변함없으리

장군님의 어린시절 첫 자욱 찍으신
백두산을 향하여 우리는 간다
천만이 걸어가도 한모습으로
신념의 자욱자욱 앞으로 앞으로

아 혁명의 세대를 이어가는 이 길은
천만년세월에도 변함없으리

투사들이 걸어간 혁명의 길따라
조선을 떨치며 우리는 간다
이 길우에 승리와 영광이 있어
백두산을 향하여 앞으로 앞으로
아 혁명의 세대를 이어가는 이 길은
천만년세월에도 변함없으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이었다고 할수 있다.》

《나는 거리초입에 있는 황철나무아래에 지휘처를 정하였다.》

《정각 10시, 나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방아쇠를 당기었다.》

10여년세월 조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그 한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 총소리는 우리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어머니조국앞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 일제를 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번호였다.》

언제나 그 순간에

최 윤 철

너무도 감격스러웠던
꿈같은 그 순간
아버이장군님을 방사기앞에 모셨던
잊지 못할 순간이여

정말로 내 기대에 모시었던가
자신에게 몇번이고 물어볼수록
그 순간에 다시금 서있는듯
울렁이는 이 가슴 짚을줄 모르나니

어린 딸이 일하는 모습
장하게 지켜보는 아버지처럼
방사기앞에 선 내 모습
그처럼 기쁘게 바라보시던
아버이장군님

그 순간은
로라에 감기며 흘러가던 그 섬유조차
긴장한 내 마음처럼 팽팽하였지
건조기를 통과하며 줄줄이 쏟아질 땀
삼가 드리는 나의 인사처럼
폭포처럼 쌓이던 하얀 비날론

순간은

아버이장군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
나에게 주시던 감사로 안겨지던 순간
인민의 웃음 먼저 안아오시며
온갖 피로 다 잊으신듯 그 미소앞에서
비날론과 한생을 살 나의 맹세
불타던 순간

그날부터 방사기와 마주하느라
흐르는 모든 시간이 그 순간을 안고 흐르는듯
아침에도 저녁에도
속도계의 눈금처럼 기대를 살핀다
전동기의 동음마저 숨결처럼 듣는다

아 쓸어보면 하얀 깃털처럼 부드럽고
안아보면 불물처럼 뜨거이 스며드는
비날론
내 피워가는 행복의 꽃이여

만부하의 동음만이 노래처럼 울리도록
온 나라에 비날론이 폭포처럼 흐르도록
언제나 그 순간에 내 살리라
장군님 모셨던 행복한 그 순간
그 순간이 내 한생으로 되게 살리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아야 한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서 보는것은 과학적으로도 옳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지위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합리적이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 포함시켜 본다고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가치와 의의가 왜소화되는것이 아니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질적내용에서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

혁명일화

철갑상어는 바다로

주체98(2009)년 6월 어느날 어느 한 양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심중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조국의 태일을 설계하시며 품들여 꾸려주신 양어장이였다.

그날의 만단사연을 전하는듯 드넓은 양어못에 햇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푸른 물결, 그속에 육중한 몸을 잠그고 유유히 헤엄치는 철갑상어들...

눈앞에 펼쳐진 회한한 풍경에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혁명의 철리를 다시금 체감하시는듯 한동안 깊은 정회에 잠겨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이 양어장에서 그전에는 철갑상어를 많이 길렀는데 최근에는 철갑상어도 기르고있다고, 우리 나라에서 철갑상어양어에 성공한것자체가 대단하다고, 그전에는 철갑상어를 양어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만시름을 잊으신듯 환하신 웃음, 모두의 가슴을 흥그럽게 하여주는 기쁨에 넘치신 우렁우렁한 음성.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을 만나시여서도 양어장의 흐뭇한 풍경이 눈에 선하신듯 또다시 철갑상어를 화제에 올리시며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환회의 감정에 휩싸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철갑상고기맛과 알젓맛을 보이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사정이 긴장하여 풀뿌리를 캐먹

으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일터와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낸 우리 인민들에게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루빨리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 인민이 겪어온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엄혹했던 나날들이 밀물처럼 가슴에 고패쳐왔다.

풀뿌리, 대용식품...

전선시찰의 나날 길가에 돌아난 햇풀을 보시고도 달리는 차를 멈춰세우시고 그것으로 끼니를 에우는 인민들생각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던 장군님.

그 나날의 고뇌가 아직도 가슴에 맺혀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격하신 어조로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이 얼마나 자랑스런 현실인가고, 만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분수령에 오르게 된 오늘 자신께서는 시련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혁명은 바로 이런 재미에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자신의 활동의 근본원칙이고 생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러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머지않아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가슴뿌듯이 그려보게 되었다.



리 종 렬

1

해가 기울어져 골짜기는 이미 서늘한 산그늘속에 물렸으나 길가의 강냉이잎들은 한낮의 해볕에 데쳐진듯 후줄근해진채로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만곡의 깊고 아늑한 골짜기에 풀벌레들의 야릇한 울음소리만 가득찼다.

집을 나선 천상수는 일생동안 굳어진 버릇대로 실눈을 짓고 아득한 하늘가에 잇닿은 험악한 산악들의 파도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휴- 내쉬고는 철도제모를 머리에 올려놓았다.

《여보, 잠깐...》

뒤에서 안해의 은근한 목소리가 들렸다.

천상수는 얼굴을 돌렸다.

머리가 파뿌리처럼 센 작달막한 안해가 곁으로 총총히 다가왔다.

젊은 마음으로 돌아치다가는 로친의 조글조글한 얼굴을 보고 제 나이가 가늠되어 자중해지기도 했던 그다.

안해는 두손을 모아붙여 그의 가슴앞으로 내밀었다.

주름살투성이의 두손바닥은 군공메달, 공로메달 하나씩을 떠받들고있다.

하나는 조국해방전쟁때에 받았고 다른 하나는 1차 5개년계획이 끝나던 해에 받았는데 안해가 가보로서 의농밀에 깊이 간수해두었던것이다.

메달들의 술에는 진흙빛녹이 내배였다.

《이걸 달고 나가요.》

《뭐?...》

《받은 다음 언제한번 달아본 일이 있어요? 마감날인데 오늘 안 달론...》

《넌장...》

그는 안해의 손을 부드럽게 떠밀었다.

안해의 눈에 눈물이 부영게 고인다.

천상수는 가슴이 허물어져내리는듯 하여 안해를 외면하고 돌아섰다.

오늘 근무를 마치면 그가 30여년동안 역장으로 근무해온 만곡역은 폐쇄되고 그는 년로보장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는 다리땀이 탁 풀렸으나 전쟁때에 다쳐 약간씩 저는 원다리에 힘을 주어 의젓하게 걸으려고 애쓰며 달구지길에 나섰다.

근엄하면서도 고집스러운데가 있어보이는 그의 얼굴에 보일듯말듯 경련이 일고 땀방울이 맺혔다.

발을 옮길 때마다 길바닥에서 후끈한 먼지가 폴삭폴삭 일었다.

그는 약간씩 저는 다리때문에 내내 걸음새에 마음을 쓰며 이 길로 해서 역으로 나갔고 역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30여년간 그는 이 길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의 추억, 그의 희망, 그의 공상, 그의 기쁨과 고뇌는 모두 만곡역과 이어져있었다.

만곡역은 운산령을 굽이굽이 감돌아 치달아오른 철도선의 심심산중 간이역이다.

우의 역은 벽계역이고 아래역은 하산역인데 그 역들에는 역장과 운전지휘원, 전철수와 화물원에 꽃같은 출표원처녀까지 있는데다가 철길소대까지 붙어있어 격을 갖춘 번창한 도시역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역인 만곡역의 근무성원은 지난

30여년간 내내 늙은 내외간이 살고있는 천상수의 식솔처럼 단출하였다.

직원이 도합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그나마 세 교대에 풍기고나면 늘 역에는 한사람이 지켜앉아 있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천상수는 역장이며 출표원이고 전철수에 화물원이기도 했다.

다른 역에 가볼 때마다 그가 제일 부러워한것은 출표원이나 안내원치녀였다.

역의 다른 일은 몰라도 안내에서는 늙은이냄새가 나는 자기보다는 그런 처녀가 손님들앞에 나서야 제격이고 또 얼마나 살뜰하게 봉사할수 있으랴 싶어서였다.

만약 그런 처녀가 만곡역에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세상에서 으뜸가는 총각을 골라주고 시집갈 때에는 비단이불도 해주고 친부모들 못지 않게 눈물 흘리리라 공상도 했었다.

만곡역에는 하루 두번 아침녘과 저녁녘에 완행 열차가 서서 서너명의 손님을 내려놓고는 그만한 손님을 싣고 떠나갈뿐이고 다른 모든 열차들은 기적소리로 심심산중의 적막을 깨뜨리며 바람처럼 스쳐지나갔다.

역장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신호기나 신호등을 들고 반겨 달려나갔다가 기차가 지나간 뒤의 회오리바람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때마다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듯 한 섭섭함과 노여움같이 들었는데 일생동안 그 감정에 습관될수 없었다.

역의 존재는 나날이 미미해져갔고 역장의 생활은 한적하고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철도출판사에서 찍어내는 열차운행표에 《만곡》이 빠지는 경우도 드문드문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나위 없는 나무라도 그루를 잘라보면 제나름의 년륜을 뚜렷이 간직하고있듯이 이 자그마한 간이역도 자기 력사와 귀중한 사연을 가지고있었다.

만곡역은 골짜기를 따라 15리쯤 올라가있는 립산마을 만곡리와 깊은 인연을 맺고있었다.

이 역은 해방직후 만곡에 큰 채벌장이 생겨 수백년 자란 아름드리거목들을 찍어낼 때 그 운반을 위하여 생겨났었다.

그때 만곡의 원목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려나가 민주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여 이름을 떨치였다.

나무때문에 번창해진 만곡역의 구내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들이타치는 차량들에 원목들을 싣는 일

이 떠들썩하게 벌어졌고 찾아드는 사람도 많았다.

큰 기업소의 자재일군과 도와 중앙의 신문기자들도 찾아왔으며 예술단소편대와 함께 유명한 배우들도 찾아왔었다.

만곡의 벌목부들과 함께 만곡역의 철도일군들도 도일보와 중앙신문들에 사진이 버젓하게 실려 그 소문이 세상에 자자하게 퍼진 일도 있었다.

그 시절에는 립근의 하산역이며 벽계역은 만곡역의 기세에 눌려 빛이 없었다.

그때 하산역의 조역으로 있는 천상수는 늘 선망의 눈길로 만곡역을 쳐다보곤 했다.

그의 생활에서는 그런 기세는 고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그것은 48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북으로 달리던 특별열차가 하산역에 멎더니 김정숙녀사께서 어리신 지도자동지께 물주전자를 들려가지고 홈에 내려서시였다.

그때 천상수는 한창나이여서 축기가 여간 빠르지 않았던지라 녀사를 인차 알아보고 반겨 달려가서 인사를 올렸다.

그날은 해빛이 유난히 눈부신 날이었다.

녀사께서는 장군님께서 이 산간지대는 물맛으로 유명한 고장이라는데 어디 한모금 물맛이나 보고 지나가자고 하시여 내리셨다고 말씀하시며 근처에 샘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천상수가 역 바로 뒤 바위쪼에서 샘물이 사시장철 솟아나는데 물맛이 좋은데다가 이가 시릴 정도로 차다고 말씀드리자 녀사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를 따라 샘터로 가시였다.

샘터에 이르자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이 물을 퍼담겠다고 하시였다.

천상수가 드린 쪽박을 쥐신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티가 없나 물속을 깎깐히 살펴보신 다음 물을 떠서 주전자에 정성스레 부어넣으시였다.

떠나실 때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기차결에서 천상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였다.

그는 너무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그리고 모처럼 역에 들리신 그이께 물만 들려보내는것이 안되어 역옆의 산자드락으로 달려가 수풀속을 산양처럼 훌쩍훌쩍 뛰어다니며 색색의 메꽃들을 꺾었다.

열차는 벌써 역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열차를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며 승강대에 서계시는 어리신 지도자동지의 가슴에 가득 메꽃들을 안겨드렸다.

그리고는 그만 발이 무엇에 걸쳐어 앞으로 힘껏 엎어졌다.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는 너무 놀라 다급한 소리로 조역아저씨를 부르시었다.

그 소리에 벌떡 솟구쳐일어난 천상수는 다친데가 없다는것을 보여드리려고 모뎀발로 꺾충꺾충 뛰어들며 쾌활하게 웃어보였다.

그러자 어리신 지도자동지께서도 밝게 웃으며 손을 저어주시었다.

어둑침침한 숲속에 언뜻 비쳐든 한가닥 해빛같은 그 추억이 되살아오를 때면 천상수는 남모르는 미소를 머금곤 했었는데 한해후 북행철차의 기관사가 김정숙녀사께서 서거하셨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천상수는 샘터에 나가앉아 홀로 눈물을 뿌렸다.

그후 천상수는 귀중한 추억이 깃든 샘물을 알뜰히 거두었다.

그리하여 새파란 이끼가 돋은 바위쥬에서 모래알들을 굴리며 뚱뚱 솟아나오는 샘물은 언제나 박우물안에 가득차서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돌면서 끝없는 이야기를 속삭여주는듯 하였다.

천상수는 전쟁직전에 만곡역 역장으로 조동되어 올라왔다.

그것은 채벌장이 먼곳으로 옮겨가고 만곡골안이 그지없이 호젓해진 때였다.

만곡리에는 두개의 조림작업반이 들어와있었다.

역의 손님이란 성미가 누긋한 조림공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산간벽지로 찾아오는 얼마 안되는 길손들뿐이었다.

그리하여 한때 들썩하던 만곡역은 한적한 간이역으로 되었다.

그러나 천상수는 역을 알뜰히 거두고 역사뒤에 샘물도 새로 파놓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왔다.

만곡역의 폐쇄문제는 전기와 연료를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예비를 적극 동원하면서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여질 때마다 제기되곤 하였다.

만곡역은 경제적효과성이 없다는것으로 하여 늘론의의 대상으로 되어왔는데 지난달에는 도소재지의 철도관리국에서 부국장이 직접 내려와 현지로 해를 하였다.

부국장은 증책을 지닌 일군답게 몸이 실하고 의젓하게 틀져보이는 사람이었다.

철도제복상의우에 바람과 해빛에 색이 바랜 작업복을 보기 좋게 걸친 그는 노상 밤을 패는 일

군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것처럼 눈구석에 피가 젖고 말투에서 지나친 흥분이 느껴졌다.

그런데 머리칼은 무슨 기름을 발랐는지 반들반들 윤이 흐르고 제모를 벗었다 쓸 때마다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천상수를 더욱 불안케 한것은 그가 하산역장 오일범을 데리고 온것이였다.

하산역에 만곡역의 업무며 설비와 기재들을 넘겨주자는것이 분명하였다.

부국장은 이미 결심이 된듯이 천상수와는 별로 담화도 하지 않고 오일범을 데리고 역의 안팎을 돌아보며 설비와 비품들을 돌아보았다.

천상수는 역이 막혀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그들의 뒤만 따르다가 부국장이 앞뜰에 나서서 뒤집을 지고 구내를 돌아볼 때에야 큰마음을 먹고 결으로 다가섰다.

그는 만곡에 두개의 조림작업반이 있고 소학교 분교도 있으며 지질탐사대도 자주 드나드는데 역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삼사십리나 걸어나가야 기차를 타게 되겠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막심하겠는가 말하였다.

이때 공교롭게도 메세 한마리가 그들의 머리우에서 날아돌았는데 누구의 모자채양에서인가 비방을 떨어지는것 같은 소리가 났다.

천상수는 미심쩍은 생각에 얼른 제모를 벗어보았다.

모자채양에서 허연 새똥이 흘렀다.

부국장은 그것을 흘깃 돌아보고는 외면을 했고 오일범은 쓴입을 찡찡 다시였다.

그 새똥은 늙은 역장의 감정이며 의견을 홀연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통털어 그의 존재전체를 고목과 비슷한 인상으로 흐려놓았다.

부국장은 이윽고 그에게로 돌아서며 이 산골에서 잔치집이나 찾아다니며 술대접이나 받은 그런 세속적인 인정에 눈이 흐려져 국가사정도 몰라봐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 소리에 역이 막혀 천상수는 턱을 끌어들이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그가 만곡의 여러 잔치집에 가서 앉아있것은 사실이다.

만곡사람들은 한평생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해온 간이역장을 가까운 친척처럼 여겨서 기쁜일이 있거나 경사가 있으면 잊지 않고 끌어갔으며 소학교 분교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도 의례히 그를 초대하여 주석단에 앉혔다.

그리고 구시대에 살아본 늙은이들은 만곡에 제

복을 입은 사람은 혼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남달리 어렵게 대하며 각별히 존대하였다.

그런 축들은 잔치같은 자리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을 옷자리에 앉혀야 좌석이 점잖아진다고 생각하였었다.

이래서 끌려가고 저래서 끌려가다니니 여러 잔치집에 가앉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술을 과하게 드는 일이 없었으며 철도대표의 격을 낮추지 않으려고 늘 마음을 써왔었다.

천상수는 노여움이 북받쳐 얼굴이 벌겋게 되었으나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마지막대접이 이런것인가싶으면서 굳이 변명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역장실로 돌아와 비품목록을 한눈에 훑어본 부국장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다가 코를 벌름거리며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었다.

천상수는 모기가 많아 밤마다 모기쑥을 태우는 데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부국장은 올해 춘추가 얼마이나고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섰다.

부국장이 돌아간 다음 그는 불안한 가슴을 안고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는데 관리국에 올라오라는 지시가 왔다.

천상수는 관리국에 올라가서 울고불면서라도 책임적인 일꾼들의 마음을 움직여 역을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역을 유지해야 될 여러가지 론거들을 쇠꼬챙이처럼 날을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역경에서도 술술 엮어내릴수 있도록 속으로 거듭거듭 외워보고는 늙은 안해의 바래움을 받으며 먼길을 떠났다.

수많은 간선과 지선들, 백여개의 역을 거느린 관리국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수송을 보장하느라고 숨가쁜데다가 새로 개발된 광산과 탄광지구들에 다섯개의 큰 역을 내오는 방대한 사업때문에 와짜 뚫어번지고있었다.

웅장한 5층건물의 수십개의 방들은 전화거는 소리, 토론하는 소리들로 떠들썩했으며 복도와 층계들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그런 분위기에 어리어리해진 산골간이역장은 어느 방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몰라 복도에서 서성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쳐 꾸중을 들은 일도 있었다.

불잡고 하소연해보고싶었으나 어느 누구도 그에게 주의를 돌려주지 않았다.

젊은시절의 친지 몇을 만났으나 그들 역시 무척 반가와하는 하면서도 잠깐 기다려달라 한마디 던지

고는 경황없이 지나가버렸다.

만곡역장은 서글퍼졌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을 떠날 때 쇠꼬챙이처럼 날을 세워가지고온 론거들이 물거품처럼 사그라지고 만곡역의 경우란 이 거창한 세계에서 모래알보다도 못한, 입에 올리기조차 축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만곡에 내려왔던 서상만부국장이 그를 자기 방에 불러들여 역이 폐쇄되게 되었으니 내려가서 일체 설비와 비품들을 하산역에 인계하고 년로보장수속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인차 수궁하고말았다.

그러나 만곡에 내려오자 그 모래알은 다시 수백명 만곡사람들의 불편과 관련되는 문제로 커져서 그를 괴롭혔다.

천상수는 밤마다 신음소리를 삼키며 우에 올라가서 한마디 의견도 내비치지 못한 자기를 못난이, 졸장부에 속매이라고 꾸짖으며 가슴을 쥐어 뜯었다.

만곡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머저리역장때문에 한뼉 고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났다. ...

한생의 추억을 더듬으며 걸음을 옮겨가던 천상수는 앞에서 웬 청년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자기 걸음걸이를 눈여겨 살펴보자 우뚝 멈춰섰다. 지질탐사대복차림의 약삭바르게 생긴 청년이다.

천상수는 본능적인 모욕감에 희끗희끗한 눈섭을 사납게 찌프리고 뻗뻗스러운 녀석을 쏘아보았다.

한달전 만곡역에 내린 삼십여명의 지질탐사대원들속에서 본듯 한 얼굴이다.

《역장아바이시지요?》

《...》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 찾아왔는데... 우리 탐사대에서 며칠 옥신각신하다가 직접 물어보자고 찾아왔습니다. 역장아바이가 다리를 저에게 확실하지요?》

《내 허물이 님자네 탐사대에 무슨 상관인가, 영?》

《아 아, 그런게 아니라 동맥을 찾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소대장이 립산마을에서 들었다는데...》

역장아바이가 저 운산에 무슨 일로 올라갔다가 번개에 치워 다리를 상했다면서요? 그게 어디쯤 입니까? 번개가 자주 내려치는데 동맥이 묻혀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의 다리는 전쟁때 시한탄을 치우다가 상한것

이었다.

천상수는 죄송스러움에 얼굴이 벌개진 청년옆을 스쳐 지나갔다.

마감날에 이런 수모까지 당하니 노여움이 더욱 끓어올랐다.

2

전쟁때 폭격에 파괴되어 다시 지은 만곡역은 역장과 기다림칸 두칸으로 된 자그마한 기와집이었다.

역의 기와지붕이며 하얀 회벽, 알른거리는 유리창문, 문손잡이... 모든 구석구석에 천상수의 일생의 지성이 고스란히 깃들어있었다.

이제 역은 허물리우게 되고 그 자재들은 하산역장 오일범의 손아귀에 넘어가 무슨 창고같은것을 짓는데 쓰이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천상수가 기다림칸으로 들어가니 서너명의 려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겨 인사를 하였다.

천상수는 뒤집을 지며 모두 어디로 가던 길손들인가고 물었다.

지질탐사대의 청년은 휴양소로 가는 길이고 림산마을의 새색시는 친정으로 간다고 하였다.

오십고개는 넘어보이는 아낙네는 읍에 사는 아들네가 생남을 했는데 손자를 안아보러 간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천상수는 역장실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표를 팔아주고는 안내원이 되어 다시 기다림칸으로 나왔다.

그는 서너명의 손님들을 가지런히 앉혀놓고 언제나와 같이 차에 오를 때 주의할 점들이며 차칸에서 손집을 어떻게 간수할것인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그러는데 이게 마감이구나 하는 생각에 문득 목이 메여 주먹으로 입을 막으며 헛기침을 몇번 하고는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만곡역은 오늘로 일을 마감짓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집니다. 손님들은 그리 알고 다음려행때부터는 하산역을 리용해주기 바랍니다. 먼길에 부디 시름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님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래져 그를 쳐다보았다.

역장은 얼른 그들을 외면하여 나드는 곳으로 나갔다.

그는 술렁거리며 나오는 손님들의 차표를 하나

하나 찍어준 다음 그들의 손집까지 흠으로 들어다 주었다.

완행렬차가 들어오고 승강대문이 열렸을 때 림산마을의 아낙네는 역장아바이의 손을 꼭 잡고 만곡사람들 나들이에 불편이 없게 하려고 한뼉 수고하였는데 우리 마을에 와서 살자고 말했으며 새색시는 머리를 깊이 숙여 절하며 눈물이 글썽해졌다.

천상수에게는 아낙네의 말이며 새색시의 눈물이 어떤 표창보다도 크게 여겨져 은근한 위안으로 되었다.

렬차가 떠나자 그는 천천히 역장실로 들어와 제모를 벗어 벽에 걸어놓고는 책상에 접어놓은 신문을 펼쳐들었다.

신문 1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부산간농촌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한 보도기사가 사진과 함께 한면 가득 실렸다.

천상수는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러니 요전 새벽에 지나간 특별렬차에 수령님께서 타고계셨겠구만. ...)

그는 얼른 돋보기를 끼고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을 친히 찾으시여 농사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가르치시며 이 지대에서는 옛날부터 소출이 좋은 감자를 심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일찌기 창성련석회의에서 밝힌대로 산간지대의 농민들은 산을 잘 리용하여야 벌방지대의 농민들 못지 않게 살수 있다고 하시며 산에 과일나무, 잣나무, 뽕나무며 약초도 많이 심어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늘어줘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천상수는 흐려지는 안경알을 닦고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사진속의 수령님께서 전이 넓은 농립모를 벗어 부채질을 하시며 동행한 일꾼들과 함께 길도 없는 숲속을 헤쳐나가고계시였다.

그는 가슴이 찌르르 저려들어 한숨을 내쉬었다. (년세가 많으신 수령님께서 이런 험한 길을 걸으시다니... 원참, 창성련석회의가 있는지 언젠데 거기 사람들이 아직도 일을 쓰게 못하는 모양이군. 이 사진을 보고 량심에 가책이 되지 않는 사람은 후레자식이지...)

문득 지난 30여년간 수령님께서 타신 특별렬차가 이 만곡역을 몇번이나 지나갔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지그시 내려잡았다.

그는 지난 30여년의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며 그

수를 헤아려보았다.

특별렬차는 깊은 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지나갔으며 눈보라치는 날에도 번개가 번쩍이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은날에도 지나갔었다.

그 수를 도무지 가늠할수 없다.

천상수는 수령님의 로고를 생각하니 절로 눈곱이 저려나 손등으로 눈을 비비적거렸다.

그러는데 문득 48년도의 그날이 못 견디게 그리워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 비자루를 들고 앞뜰을 스적스적 쓸어나갔다.

별안간 역장실쪽에서 다급한 전화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인제준비를 독촉하자는게군. 역을 없애는게 저리도 급할가. ...)

그는 화김에 흠으로 달려나가 역명판부터 뽑아버리려고 그 밀기둥을 안아 마구 흔들어들었다.

어찌나 깊이 박아넣었는지 끄떡하지 않는다.

전화종소리는 계속 다급하게 울리며 그를 불렀다.

천상수는 하는수없이 땀을 흘리며 느릿느릿 걸어 들어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없어진 역은 왜 자꾸 찾는가싶어 목소리가 여느때없이 거칠어졌다.

《여보시오, 만곡이웨다.》

수화기에서는 서상만부국장의 쉼쉼한 목소리가 울렸다.

《만곡이요? 만곡역이요? 역장동무요?》

《예—》

《만곡— 내 말이 들리오?》

《어서 말씀하시우다.》

《만곡— 당장 역구내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놓소! 내 말을 알아듣겠소?》

천상수는 정신이 번쩍 들며 가슴이 활랑거렸다.

(특별렬차가 통과하게 되는 모양이구나!)

그가 알았다고 대답하고 밖으로 허둥지둥 달려나와 비자루를 드는데 또다시 전화종이 울렸다.

《만곡이요? 나 하산역장이요.》

수화기에서 오일범의 걸걸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자 부국장이 거기다두 전화를 했나?》

《그렇네.》

《벽계역에다두 했네. 그러니 틀림없어, 틀림없네. 만곡— 여보게, 잘하라구!》

그 말에 가슴이 후터워졌다.

천상수는 역구내와 주변을 깨끗이 쓸고는 기차바람에 먼지가 일지 않도록 물을 뿌렸다.

그다음은 화단을 얼른 정리하고 창문유리들을 닦고 역장실과 대합실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이런 거둬질을 끝내니 어느덧 날이 어슬어슬 저물었다.

천상수는 역장실에 앉아 미흡한 점이 없는가 두루 궁리해보다가 철길로 나갔다.

그는 침목들을 밟으며 천천히 오르내리면서 자기가 한생을 바쳐온 간이역, 이제 밤이 지나면 영영 없어지게 될 그 초소를 눈여겨 살펴보고 또 바라보았다.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수령님께서 만약에 역을 보아주신다면 그 인상이 어떨것이며 무엇이 선창눈에 뜨일것인가 하고 가늠해보는것이였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힐사 하고 실눈을 짓고 바라보는가 하면 머리를 획 돌리며 한눈에 스쳐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역명판에 씌여진 《만곡》이라는 글자가 두드러지지 않는것을 발견하고는 그 글자 둘레를 비누물로 극성스럽게 닦았다.

바람처럼 달려지나가는 차창에 만곡역이 비쳐드는 순간은 한 찰나겠지만 그 순간에나마 수령님께서 역을 보아주신다면 자기 한생이 더 보람찬것으로 되고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그날 밤 만곡역의 창문들과 좁다란 구내에는 여느때없이 전등빛이 환했는데 그 불빛은 멀리에서도 바라보였다.

역장 천상수는 신호기와 신호등을 책상우에 가지런히 놓고 제모를 반듯하게 쓴채 전화기앞에 앉아있었다.

밤벌레들이 창유리에 날아와 부딪치는 소리가 이따금 들릴뿐 역사와 구내에는 경건한 정적이 깃들고있었다.

자정이 훨씬 지나 전화종소리가 귀따갑게 울렸다.

천상수는 후닥닥 뛰어일어나 송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에서 울려오는 오일범의 엄숙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만곡! 만곡!》

《만곡 듣는다!》

《특별렬차 하산역 통—과—》

《알았다...》

천상수는 목이 메여 가까스로 대답하였다.

그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송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신호등을 들고 뛰노는 마음을 다잡으며 침착하게 걸어서 밖으로 나갔다.

렬차가 들어올 시간이 다가오자 천상수는 철길 옆에 꼳꼳이 서서 공연히 모자채양을 쥐었다놓는 가 하면 옷깃을 더듬더듬 쓸어만져보면서 하산쪽만 바라보았다.

어느덧 저쪽산굽이의 어둠속에서 백열로 이끌거리는 불명어리같은 빛이 달려나왔다.

달려오는 기관차의 전조등빛이었다.

철길을 따라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세차게 울려왔다.

가슴이 뛰노는 소리인지 땅이 울리는 소리인지 가늠 못할 소리에 귀가 멍멍해진 그는 불시에 시간이 홀 날아지나는것 같은 아찔한 느낌과 함께 눈부신 백광속에 들어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어둠속에서 철길옆의 전주들이 언뜻언뜻 드러나는가싶더니 들이닥치던 렬차가 꿈인지 생시인지 속도를 늦추며 서서히 미끄러져왔다.

천상수는 너무 놀라 강렬한 환성을 내지르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목이 짹 메여 그러지도 못하고 신호등을 쳐드는것도 까마득히 잊은채 주춤주춤 뒤걸음질만 쳤다.

(이건 꿈이다, 꿈이야! 내가 꿈을 꾸는게다.)

그러나 특별렬차는 분명히 역구내에 들어섰다.

차바퀴밑에서 휩쓸어나오는 바람에 옷자락을 나뭇기며 허둥거리던 역장은 눈을 슴벅거리면서 즐비하게 늘어선 차량들의 불빛 환한 차창들을 둘러보았다.

의심할바없이 특별렬차는 만곡역에 멎어선것이었다.

이슬이 흐르는 차량들에서는 북부산간지대의 선기가 서늘하게 풍겨오는듯싶었다.

승강대의 문이 열리며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줄레줄레 내리고 뒤따라 회색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분이 땅에 내려서서 한손을 허리에 올리고 다심한 눈길로 역사며 우중충한 산발들을 둘러보시었다.

천상수는 그분을 알아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서 역장의 직분을 다하여야 되겠다는 조바심에 그는 거수경례를 서둘러 붙이고 정보로 척척 걸어나가 그이앞에 섰다.

그는 남의 목소리같은 우렁찬 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곡역은 근무중...》

그이의 옆에 선 수원이 입술에 손가락을 세워붙이며 속삭였다.

《아바이, 췌, 조용히...》

천상수는 거수경례를 붙인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해 서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에게로 다가오시여 스스로없이 손을 잡아내려주시었다.

《역장동무입니까?》

《옛, 만곡역장 천상수입니다.》

그는 벽찬 감격에 가슴이 터져나가는듯 하였다.

《의논할 문제가 있는데 어디 좀 들어갑시다.》

의논할 문제라는 그 말쑥에 늙은 역장은 더욱 놀랍고 황송하여 눈을 빛내이며 그이만을 쳐다보았다.

《...》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 그러합니다.》

천상수는 그이를 모시기에는 역이 너무 초라하고 루추하여 두손을 앞에 모아쥐며 어쩔바를 모르고 망설이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역장실에 들어온 그이께서는 철이 벗겨진 흰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었다.

천상수는 벽에 붙여놓은 긴 절상 한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옷깃을 여미었다.

그는 처음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혹시 이 늙은 역장을 알아보시지 않을까 하여 여간 마음을 쓰지 않았으나 그이께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는것 같았다.

지나간 30년은 그의 용모를 알아보기 어렵게 변화시키고 남을만 한 긴 세월이었다.

더우기 그이께야 얼핏 만나본 한 조역이 무슨 기억에 남을만 한 존재겠는가.

천상수에게는 그것이 다행이었다.

이 자그마한 간이역에서 맴돌며 크게 해놓은 일도 없이 한생을 다 보내고 물러가게 된 자신을 드러내보이기 부끄러워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무슨 한가지 생각에만 골똘하시며 근심어린 얼굴로 물으시었다.

《이제 통과하는 차들이 많습니까?》

《예...》

《차들이 기적소리를 자주 울립니까?》

《예, 저 아래하구 옷쪽의 산굽이를 돌 때 모든 렬차들이 기적소리를 길게 내게 돼있습니다.》

《그 소리가 여기까지 크게 들려옵니까?》

《들려오다마다요. 여기 골짜기들은 나팔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산굽이에서 기적이 울리면 그 소리가 모든 골짜기들에 메아리치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그 울림에 산에서 바위가 굴러내린 일도 있습니다.》

그이의 눈가에 보일듯말듯 그늘이 비졌다.

《그렇습니까. … 역장동무, 열차들이 기적소리를 내지 않고 지나가도록 해줄수 없겠습니까?》

《기적소리 말입니까?》 하고 천상수는 의아한 눈으로 그이를 쳐다보았다.

《예… 기적소리가 크게 울려오면 안되겠습니다.

저 열차안에서 지금 수령님께서 주무시고계십니다. 이번 현지도에서 몹시… 몹시 피로하셨습니다.》

순간 천상수에게는 낮에 신문에서 본 수령님의 영상이 떠올랐다.

전이 넓은 농토모로 부채질을 하시며 산비탈밭으로도 수없이 오르내리시고 험한 산길도 끝없이 걸으셨겠으니 년세가 많으신 수령님께서 얼마나 지치시었을가. …

그는 가슴이 저려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시고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돌아오시는 길에도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때문에 내내 걱정하시며 열차안에서 일을 보셨는데 방금 잠이 드셨습니다. 도중역들은 다 복잡한 역들이고 여기가 제일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평양에 나가면 또 방대한 사업이 수령님앞에 쌓여집니다. 여기서 잠시라도 폭 쉬시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고요해야 됩니다.》

그이의 절절한 음성은 늙은 역장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고요해야 된다구요. 아무렴, 그렇지요.

지도자동지, 걱정마십시오.》

천상수는 얼른 일어나 전화로 벽계역과 하산역을 찾아 이제부터 통과하는 모든 열차들이 기적을 울리지 말도록 일러달라고 당부하였다.

벽계역은 그의 말뜻을 인차 깨닫고 알았다고만 짚막하게 대답하였으나 호기심이 많은데다가 성미가 검질긴 류다른 피짜, 하산역장 오일범은 끈덕지게 캐물었다.

《여보게 만곡, 이게 웬일이야? 밀려난다더니 하산에 지시까지 하니 자네 관리국장이라도 된셈인가. 툭 터놓게, 무슨 일인가, 영? 이웃사촌이랴는데 만곡과 하산이야 그럴 처진가.》

그는 오일범의 이런 너스레가 아무리 모르고 하는 소행일지라도 무엄한짓으로 여겨져 울컥해졌다.

《오일범동무, 이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란 말이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짹소리 없었다.

몇순간뒤에 불같은 말이 날아왔다.

《천상수동무, 잘하오. 동무는 오늘밤 우리 철

도로동계급을 대표하고있다는걸 명심해야 되오!》

천상수는 송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얼굴이 벌거져 한동안 서있었다.

이윽고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돌아보며 어쭙게 말씀드렸다.

《하산역장은 젊어서부터 제 막역한 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역장은 역구내에 환한 외등불빛이 차안에 흘러들면 수령님께서 주무시는데 방해되지 않을가싶어 벽에 붙어있는 외등스위치에 손을 가져가며 외등을 끄는게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처음에는 끄라고 하셨다가 다시 생각해보시고는 켜두는게 더 좋겠다고 하시었다.

《차창에 차광막을 치면 불빛은 흘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령님께서 잠을 깨셨다가 역구내가 캄캄한것을 보시면 순간이나마 걱정을 하실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 티끌만 한 걱정도 없어드리지 않으시려는 그이의 심정에 천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디선가 모기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역장은 그이께서 어서 특별열차로 올라가시려면 하고 바랐으나 그냥 앉아계시면서 방안을 두루 살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공기속에서 무슨 냄새를 맡아보신듯 문득 이렇게 물으시었다.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천상수는 언제인가 부국장에게 무안을 당한 그 냄새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쳐 얼굴이 화끈거렸다.

《여기는 앉아계실데가 못됩니다.》

그는 죄송스러워 허리를 굽석 꺾으며 말씀드렸다.

《저… 제가 모기를 쫓느라구 장참 모기쭙을 태웠더니 그 냄새가 벽에 배서…》

《모기불냄새요?》 하고 되물으시는 그이의 얼굴에 놀랍게도 그 무슨 감회와 기쁨의 빛이 어리었다.

《예…》

《참,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전에 여름밤이면 모기를 쫓느라구 정원에 모기불을 자주 피우곤 했습니다. 만경대고향집에 찾아가도 늘 이런 냄새가 풍겼습니다. 여름밤이면 증조할아버님이 마당가에 모기불을 피워놓고 퇴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시며 나한테 많은 옛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만경대집에서 그 냄새마저 다 가셔졌습

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

천상수는 웬일인지 가슴이 찌르르 저려들며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랐다.

그는 그것을 삼키느라고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며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그의 목에 도드라진 울대뼈가 오르내리며 무엇인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어느덧 벽계역쪽에서 화물열차가 내려올 시간이 되었다.

늙은 역장은 전화를 걸어놓았건만 안심치 않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드리고는 얼른 신호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외등불빛이 환한 역구내에 길게 늘어선 특별열차는 아늑한 고요에 묻혀있었다.

그는 흰 휘장이 묵직히 드리운 차창들을 얼핏얼핏 훑쳐보며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걸음을 다그치다가 역구내를 벗어나자 마음놓고 달려올라갔다.

숨이 턱에 닿아 기적신호표가 붙어있는데까지 온 그는 저도 모를 젊은 힘이 뻗쳐올라 산굽이 앞코숭이로 밤새처럼 홀 날아올라갔다.

이윽고 달려내려오는 전기기관차의 전조등빛이 산굽이를 휩쓸었다.

그는 눈이 시어 한손을 얼굴앞에 들어올리고 신호등을 번쩍 쳐들어 흔들었다.

기관사는 산굽이 앞코숭이에 서있는것이 고목이 아니라 사람이며 만곡역장이라는것을 인차 가려본 듯 하였다. 열차는 기적소리를 울리지 않았을뿐 아니라 이뿌리까지 저려드는 마찰음을 내면서 서서히 벗어났다. 전기기관차의 높다란 차창에서 모자끈을 턱밑에 건 기관사가 얼굴을 쑥 내밀었다.

《만곡아바이, 벽계에서 들었습니다!》

《여보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역에 내려계시네.》

역장은 더운 입김을 내뿜으며 다급하게 말하였다.

《정말입니까?》

《그러이, 수령님께서 편히 쉬시도록 하시려고 이밤을 밝히고계시네.》

《아바이, 벽계역에서 그러는데 저 령산광산과 아흐레고개 도로공사장에서도 발파시간을 뒤로 미뤘답니다. 만곡 백리주변이 고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난 이거 야단났습니다.》

《뭘 실었게?》

《강판입니다.》

《강판? 하-왈가당거리겠지? 미속에 가까운 저속으로 살살 몰아 지나라구.》

《예, 좌우간 해보겠습니다.》

전기줄에서 시퍼런 섬광이 번뜩이며 전기기관차가 서서히 미끄러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땅바닥이 물결치듯 움썹거렸다.

차바퀴소리, 삐걱소리, 무엇인가 덜커덩거리는데 한 소음... 그 모든 소리들에 가슴이 발기발기 찢기는듯 하여 역장은 저도 모르게 펄쩍 움크리고앉아 차바퀴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차바퀴들에서 세찬 바람과 함께 울려나오는 소음을 눌러가라앉히려는듯 앞으로 내뻗친 손을 조용조용 아래로 저었다.

그 손놀림은 보채는 아기의 가슴을 도닥여주는 엄마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와보였다.

속이 타서 바싹 말라든 입술에서는 단김과 함께 안타까운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가만... 가만히... 이 미웁한것들아, 지도자동지께서 밤을 밝히신다. 소리를 죽여... 죽여...》

그의 절절한 심정이 무정하고 둔한 차바퀴들에도 전해지듯 열차는 차차 소음을 죽이며 어둠속으로 소리없이 미끄러져나가 역구내를 조용히 지나갔다.

그제야 천상수는 잔등에 칙칙한 식은땀을 느끼며 허리를 폈다.

그는 열차가 올 때마다 매번 벽계쪽과 하산쪽의 산굽이로 달려나가 이렇게 보살피며 속을 태우곤 하였다.

그리고나서 돌아오다가 역구내를 바라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특별열차옆을 천천히 거닐고계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심각한 생각에 잠기신듯 머리를 수긋하고 수령님께서 주무시는 객차의 차창밑에 서 계시다가는 다시 걸음을 옮기곤 하시였다.

한편 이밤 역장실의 전화종은 간단없이 울렸다.

만곡이라는 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으며 한번 찾은적도 없는 책임적인 일꾼들이 통보를 받고 황급히 철도교환을 불러 만곡역을 찾았다.

만곡역에는 전화사태가 쏟아졌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가당을 때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편히 쉬실수 있도록 잘 보장해드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갖가지 당부를 해오는것이였다.

천상수가 전화받은 내용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말씀드리면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통하여 절대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모두 자기 위치들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여전히 교대없는 위병처럼 피곤도 잊고 특별열차옆을 거니시는것이였다.

천상수가 세번째 열차를 통과시키고 돌아오니 특별열차안에 들어갔다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환히 밝은 얼굴로 승강대를 내려오시었다.

그이의 눈이 기쁨에 넘쳐 유난히 빛났다.

고요속에서 대기도 이름할수 없는 기쁨과 행복에 취하여 조용히 설레이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 서있는 천상수에게로 다가오시었다.

《역장동무, 기관사동무들이 정말 열차를 기막히게 몰아줍니다. 어찌나 조용히 지나갔는지 차창결으로 미풍이 스쳐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열차가 세번이나 지나갔는데도 수령님께서서는 여전히 편안히 주무시고계십니다.》

그가 네번째 열차를 통과시키고 돌아오니 내내 특별열차안에 계시던 그이께서 보이지 않았다.

아마 열차에 올라가 쉬시는 모양이라고 생각한 역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역장실로 들어갔다.

목안이 칼칼해져 물을 마시려고 보니 책상우에 물주전자만 있고 밀랍의 촛이 벗겨진 범랑고뿌가 보이지 않았다.

천상수는 미심쩍은 생각에 밖으로 나가 역뒤로 어슬렁어슬렁 돌아가다가 흠칫 놀라 멈춰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샘터의 너럭바위에 앉아계시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턱에 손을 고이시고 샘을 들여다보시며 끝없는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샘터뒤 둔덕에 풍성하게 자라오른 가둑나무가 미풍에 소리없이 설레이고 그 나무가지들사이로 흘러내리는 달빛에 샘물이 은백색으로 반짝거렸다.

사위는 그지없이 고요한데 대지의 아득한 지심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박우물에 넘쳐 흘러내리는 소리만 돌돌 들려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엉거주춤 서있다가 뒤로 슬금 슬금 물러섰다.

그이께서 얼굴을 들고 이쪽을 바라보시었다.

그 눈길은 역장을 가까이로 부르는것 같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히 물으시었다.

《이 샘물이 여기에 있는지 오래니까?》

《전쟁직전에 제가 역장으로 배치되어와서 파놓은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 부근의 어느 역에 들린적이 있었는데 그 역에 아주 시원한 샘물이 있었습다.》

천상수는 목이 꺾 메여올랐다.

《그건 저아래 하산역입니다. 그 샘물은 예나 다름없이 물맛이 좋고 시원합니다. 이 운산령밑에서는 어디를 파든 그런 시원한 샘물이 나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근처를 둘러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역으로 돌아와서도 역구내를 천천히 오르내리시었다.

천상수는 아득한 청춘시절의 잊지 못할 그날의 감회가 밀물처럼 가슴에 밀려들어 그이의 뒤를 따르다가 곁에 다가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스스럼없이 끼시고 역구내를 한번 또다시 한번 오르내리시었다.

구내를 환히 밝히고있는 외등들의 돌레에서는 하루살이떼가 뽀얗게 날아돌고있었다.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께서 주무시는 객차의 차창을 지켜보시었다.

그이의 눈에 보일듯말듯 물기가 어리었다.

이윽고 다시 걸음을 떼신 그이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었다.

《우리 어머님처럼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는 없었습니다. 항일투사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

이번에 여러 고장을 돌아보니까 도시나 읍이나 산간농촌에도 다 만수무강함을 높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탑들에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글발들이 멀리에서도 바라보이게 정성담아 새겨져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탑을 세운것으로 충실성을 다 보였다고 여기는지 실제 일은 쓰게 하지 않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일은 하지 않고도 태평스럽게 지내고있습니다.

이번에 산간농촌지대에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수령님께서 농사에서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일군들의 귀에 못이 박기도록 가르치셨는데도 자기네 땅에서 잘되는 감자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몇해째 수확을 높이지 못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창성련석회의에서 산간지대에서는 산을 잘 리용해야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치셨는데 산도 잘 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령님께서 일군들을 데리고 수없이 산에도 오르고 밭에도 나가시여 산간지대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 밤

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었습니다. 우리가 반세기나 혁명을 했는데 인민들의 생활이 아직도 나아지지 못하다고 가슴아파하시며 잠드시지 못하시었습니다. 그러다나니 피로에 피로가 겹쳤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여기에 차를 세웠겠습니까.》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천상수는 가슴이 저머지듯 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지라 수령님을 모실수 있도록 역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고요해서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올리시며 역사와 그 주변의 우중충한 산들을 둘러보시다가 문득 쾌활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들렀던 그 역의 조역은 새파란 청년이었는데 아주 쾌활한 동무였습니다. … 기차가 떠날 때 달리는 차를 따라오며 내 가슴에 꽃을 안겨주고는 그만 넘어졌드랬는데 상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려고 꺾충꺾충 뛰어올랐습니다. 참 쾌활한 청년이었습니다.》

천상수는 눈앞이 탁 흐려와 머리를 숙였다.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늙은 역장의 얼굴을 눈여겨 살펴보시며 가슴아프신 음성으로 뇌이시었다.

《아, 세월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역장아바이, 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까?》

천상수는 그이께 어떻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왔는지 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와 다정하게 마주 앉으시여 살아온 이야기랑 들으시다가 저는쪽다리를 쓸어만져보시었다.

《언제 다쳤습니까?》

《전쟁때 시한탄을 치우다가 다쳤습니다. 전 후에 상처가 도져 수술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 됐습니다.》

《도시의 평탄한 길이라도 모르겠는데 이런 산골길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평생 걸음걸이에 마음을 써왔겠습니까.》

그이께서는 한평생의 피로움을 쓸어만져주시는듯 다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천상수는 코물을 훑 들이켰다.

《젊어서는 좀 그랬는데… 늙어서야 아무렇게나 걸으면 뭐랍니까.》

《그래 30여년간 어디도 가지 않고 내내 이역에 계셨단 말입니까?》

《예…》

《이 심심산중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천상수는 가슴속 설음이 못 견디게 터져올라 그만 한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흐흑 흐느꼈다.

흐느낌소리가 터질 때 정수리를 덮은 성긴 백발이 보일듯말듯 흔들렸다.

그는 인차 자신을 다잡으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저는 저 만곡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만곡사람들은 저를 혈육처럼 여겨줬습니다. 그게 큰 기쁨이고 락이여서 이날 이때까지 외로운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예…》 하고 그이께서는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시었다.

《내 앞으로는 여기를 지나갈 때면 꼭 들리곤 하겠습니까.》

천상수는 한동안 머리를 수긋하고있다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렸다.

《고맙습니다… 한데 이 역은 없어집니다, 이 밤이 지나면 없어지고합니다.》

《예?... 없어지다니요?》

《우리 관리국산하에 새 역들을 내오게 된 사정 때문에 이 역은 폐쇄하게 됐습니다. 새로 개발된 탄광과 광산지구들에 큰 역을 다섯개나 새로 내온답니다.》

《그러면 이 역을 리용하던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삼사십리나 더 걸어나가야 기차를 타게 되니 불편이야 하겠지만 참아야 합니다. 탄광이랑 광산이랑 많이 개발돼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참아야지요. 만곡사람들은 본건 적어두 리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만곡리에 들어가 해설사업을 할가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색이 어두워지시며 다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역의 마감손님이겠습니까.》

천상수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4

하산쪽에서 올라오는 마감렬차가 지나갈 때 뒤쫓리의 차장차에서 검은 그림자가 뛰어내렸다.

그 그림자는 산굽이 앞코숭이에 서있는 천상수에게로 황황히 다가왔다.

철도관리국 부국장 서상만이였다.

그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다우쳐물었다.

《특별렬차가 지금도 만곡에… 역에… 서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모셔드렸소? 수령님께서 편히 쉬십니까?》

《예...》

《왜 제때제때에 보고를 안하는가 말어요. 온 관리국이 속이 까매서 앉아있는데... 참다못해 내가 뛰어왔단 말어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모두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하게 그런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역에 계시오?》

《예.》

《그래 어디에... 어느 방에 모셨소?》

《역장실에...》

《역장실예? 경감냄새나는 그런 방에 모신단 말어요? 만곡때문에 우리 관리국이 망신을 당하게 됐소.》

부국장은 이전에 와서 받았던 인상을 되살려 역을 잘 거두지 못했다고 늙은 역장을 마구 몰아대었다.

그리고는 결쾌스럽게 돌아서서 자갈소리를 외작 외작 내며 역쪽으로 걸음을 다그쳐갔다.

천상수는 노여움이 북받쳐 가슴이 방망이질하였으나 지그시 누르며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불빛이 환한 역구내에 들어서자 부국장은 특별 열차결에 서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가와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국장에게 몇마디 말씀을 건네시는것 같더니 그를 데리고 역장실로 들어가시었다.

천상수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지 못하였다.

특별열차의 차창들에 불빛이 환히 켜지고 수원들이 기쁨에 설레이며 오르내릴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역장실에서 나오시었다.

역장실문이 열렸다가 닫기는 그 틈에 부국장이 머리를 싸쥐고 걸상에 앉아있는것이 언뜻 들여다보였다.

역구내에 비가 쏟아졌다.

서남쪽하늘가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둔중한 우뢰소리가 먼 포성의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열차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친 얼굴로 천상수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수령님께서 푹 쉬시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곡역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바이,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떠나십니까?》

천상수는 가슴이 텅 비는것 같은 허전한감에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늙은 역장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젖었다.

비물이 흘러내려 번쩍거리는 열차가 역구내를 서서히 미끄러져나갈 때 천상수는 언뜻언뜻 지나가는 차창들을 향하여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였다.

그가 허리를 펴는데 누구인가 바람처럼 옆을 스쳐지나갔다. 부국장이었다.

그는 엇비스듬히 훑날리는 비발속으로 열차를 따라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땅을 진감하는 차바퀴소리, 날리는 옷자락, 무엇이라고 부르짖는듯 한 목메인 소리... 열차의 뒤꼬리가 비발속에 멀어지자 그는 맥없이 벗어섰다.

쏟아지는 비줄기가 땅을 두드리며 물보라를 뿜양게 일으켰다.

그는 폭풍속에 든 사람처럼 머리를 움켜잡고 허우적거렸다.

영문을 몰라 황황히 다가간 천상수에게 그는 갈린 소리로 부탁했다.

《혼자 있게 해주시요.》

시간이 퍼그나 지나 천상수가 역장실로 들어가니 부국장은 빈민이 가득 실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숨이 질 때까지 명심할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목소리였다.

그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펼쳐진 사업수첩을 역장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빠짐없이 적느라고 했는데...》 그리고는 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비방울들이 휘뿌려진듯 글자들이 여러군데나 번지여 얼룩을 그린 수첩장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각한 음성이 울려나오는것 같았다.

《만곡역장은 만곡에 사는 사람들과 이 산간벽지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민의 총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에서 새역들을 내오는 사정과 관련하여 이 역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고장 인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1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 열차를 보내주시고 한두명의 아이들을 위해 자그마한 정거장까지 마련하여주시는데 이미 있던 역이야 무엇때문에 없애겠습니까. 어떻게나 예비를 짜내어 새역들도 내오고 이 역도 없애지 않도록 타산해보시오. 나는 지나가던 손님으로서 의견을 말합니다. 큰 사업때문에 인민들의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해버려도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인민들의 심정이나 이해관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한생을 바쳐오십니다. 이번 현지도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그르쳐진 일들을 바로잡느라고 그토록 피로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올해 년세가 얼마이십니까. 자기 인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민들에게 헌신복무할 대신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걱정만 없어드리는 일군을 수령님께 충실하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허황한 소리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특별렬차가 이 간이역에 묵게 된 사연을 두고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누구나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진

수동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만곡역장은 근엄하면서도 고집스러운 얼굴표정으로 옷차림을 살펴보고는 의젓하게 걸어서 마중나왔다.

[illegible]

영원한 모습

리 동 수

침략의 총칼아래
하루해도 저물었건만
신음속에 잠 못들던
8도구의 밤하늘가에
총성이 울렸다
반일련합전선의 불길이 치솟았다
짓밟힌 가슴들을 흔들며

골목에서 거리으로
높아가는 돌격의 함성 만세소리!
충천하는 화광속에 우뚝 나서신
열혈투사 김철주동지
조종인민을 반일 항전으로 부르시여라

걸음걸음 총구가 노리는 길
몇번이나 오가시였던가
반일련합전선을 위해
김일성장군님의 그 뜻을 받들어
단신으로 걸은 길은 얼마였던가

수난에 찬 조종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제를 쳐부시기 위해
이룩하여야 할 련합
그 련합으로 빼앗긴 강토
짓밟힌 인민을 하루빨리 구원하자고

우울침침한 큰사슴페골안에
해빛을 안고 봄빛을 안고 가시여
복수전의 불씨를 지펴주신 그날
반일항전의 총대숲이 일어섰다
침략의 무리를 맞받아

크나큰 기쁨속에
반일인민유격대도 유격구의 인민들도
련합의 승리를 경축하는 이 시각
그이는 **김일성**장군님 우러러
마음속으로 아뢰이시여라

김일성장군님
전사 김철주
더 높이 올려가리라
반일련합전선의 총성으로
조종인민의 가슴가슴에
승리의 신심 더 굳게 안겨주리라

오, 8도구의 그밤
잊지 못할 그이의 모습은
청춘을 바쳐 생명을 바쳐
조종단결의 길우에 남기신
혁명투사의 영원한 모습이여라

강원땅에 부치노라

박 응 전

못 잊을 강원땅에
군사복무의 자욱 새긴 사람들
추억담 나누면 끝이 없더라
1211고지와 철령 오성산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이야기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울려오더라
이 몸 실은 평강행 열차의 기적소리
철령이며 순갑령을 넘고넘어
끝없던 포차행군의 발동소리

그 시절 우리 금강산유람과

송도원 해수욕은 즐기지 못했어도
수호자의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던
끝모를 고산벌의 사과꽃바다
명사십리 해당화향기
간 곳마다 이채로운 감열매풍경

그렇더라 정든 고장의 그 모든것
금강의 팔선녀들인듯
강원도 처녀들은 얼마나 고왔고
금강의 세 동서들인듯
강원도 아주머니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극진했는가

조국의 고지를 목숨바쳐 사수한
영웅들이 많이 난 곳
병사들의 피와 땀
그리도 많이 스며있고
군민의 정 그리도 뜨거워
승리와 위훈의 노래와 전설
그리도 많은 성스러운 땅이어

고향이 나서자란 정든 고장이라면
그대는 병사시절 위훈이 빛나는 땅
내 오늘 특별히 감회깊이
강원땅에 이 노래 부침은
그대 놀라운 전변의 소식
연해연송 전해오기때문

얼마나 간고하게 제힘으로
얼마나 훌륭한 발전소를 건설했으면
우리 장군님 그리도 만족하시여
강원도사람들의 정신력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었으랴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내려주며

머나먼 전선길을 지켜
한없는 그리움으로 일떠세운
항구문화도시의 불천지야경
또다시 솟아오르는 군민발전소

오, 강원땅 그대는
영웅조선의 기상 1211고지
선군조선의 상징 철령과 오성산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쳐오른
안변청년발전소가 솟아있는 땅

정불인 고장의 전변은
그리도 감회깊어
그 땅을 빛내이는 사람들
그리도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대의 땅에서 청춘을 빛내인
그대 옛 병사의 노래는 다함없나니

오, 번영하라 강원땅이어
만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속에
가장 어려운 나날에도
조국을 결사수호하고 빛내인
위훈높은 선군봉우리들을 안고
끝없이 강성하라 부흥하라!

석철이 되어 금단이 되어

우 광 복

지난해보다 모내기를 사흘은 앞당기자고
그 동무와 방도를 찾았을뿐인데
동무들은 나를 보고 금단이래요
제대군인 그 동무는 석철이래요

모내기를 앞당기는거야 응당한 일
그런데도 그렇게 불러준답
일은 우리보다 더 많이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니 생각도 깊어

지금이야 곱절로 일해도 성차지 않은 때
달리고달려도 날아가고싶은 때
그런 때 누구인들 석철이가 아니되고
땀흘려 일하는 금단이가 아니되랴

장군님 아시는 미곡벌의 아들딸로
생각하며 일하자 했을뿐인데
큰일을 해놓은듯이 분조장도 칭찬이니
그 진정에 넓은 들은 푸르러만저요

봄날을 앞당기면 쌀산이 높아진다고
산울림의 메아리를 안고사는 내 고향
불러주는 그 이름 자랑으로만 여기며
이 벌에서 살며 이 벌을 가꾸랴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러주는 그 이름
고향벌이 안겨주는 표창이런가
그 믿음 안고 농장벌 가꾸가는
금단이가 될래요 석철이가 될래요

생활의 진실과 시인의 량심

—시집 《붉은기 날리는 지붕아래서》를 두고—

최 언 경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오늘 우리 시문학에서 여전히 중요한것은 생활의 진실이다.

시대가 위대하고 생활이 위대할수록 시문학은 그 한편한편으로 시대를 진감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진실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이 멀리 천리마시대를 넘어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힘찬 메아리로 되고있는 중요한 사상미학적요인도 바로 생활의 진실에 있다.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진실성만이 사람들의 심장을 들어잡을수 있으며 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보람찬 투쟁으로 힘있게 불어일으킬수 있다. 하물며 생활에서 환기된 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하는 서정성을 기본특성으로, 생명으로 하고있는 시문학에서 생활의 진실성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수 있다.

하다면 생활의 진실은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가 못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창작실무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작가의 량심과 직접 관련되는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말을 할수 있고 진실한 작가만이 진실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

량심의 인간, 량심의 작가만이 진실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는 량심을 가지고 사회앞에 나서야 하며 우리 시대의 혁명적량심을 대변하여 대중을 감화시켜야 한다.

작가라면 웅당 진실한 인간의 본보기,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순결한 혁명적량심의 대변자로서 현실을 보고 그려야 한다.

시집 《붉은기 날리는 지붕아래서》(박근원 작)에는 깨끗한 인간의 량심이 거울처럼 비껴있고 생의 끝까지 위대한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고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려는 한 인간의 모습이 진

실하게 비껴있다.

시인은 자기 시가 가식없는 생활그대로의 진실임을 머리시를 대신하여 쓴 《나의 시첩을 번지며》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

품을 들어 키워준 정에 목메이고
사랑다해 내세워준 고마움에 젖던 나날에
쌓이고 덧쌓인 시편들의 묶음은
그대로 나의 피 나의 숨결 내 성장의 모습!

하여 내 서툰 시편들이언만
한편두편... 하나로 모아
감히 내놓노라
어머니당앞에 독자들앞에

시인자신이 말하고있듯이 그의 시 한편한편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며 성장해온 한 인간의 한생의 자욱 그대로이다.

시집 《붉은기 날리는 지붕아래서》가 생활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하는것은 우선 그 시편들 모두가 뜨거운 생활체험에 기초한 시인의 량심의 고백이기때문이다.

시집에는 한생을 량심으로 살고 량심으로 빛내이려는 인간의 고결한 인생관이 력력히 비껴있다.

시집에 있는 시 《인간모습》, 《인생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생의 길이》, 《량심앞에 성실하리》, 《나의 자서전》 등 모든 시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시 《뿌리는 보이지 않아도》는 시인의 깨끗한 량심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하는 시이다.

누구나
무성한 줄기를 보며
푸르른 잎새를 보며
아름다운 꽃을 보며
찬란을 아끼지 않더라

하건만
그 줄기와 잎새를 자래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주는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
많지 못하더라

그랬어도 뿌리는
조금의 불만도 없는듯
언제나 흠속에 묻혀 묵묵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더라

그것은 마치 명예와 표창...
좋은 일엔 인민을 내세우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일군의 진정이런듯

내 일군의 본분을 안고
그렇게 살리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뿌리처럼
그 한모습으로 한생을...

여기에는 우리 일군들이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한생토록 따
르려는 인간의 깨끗한 의리와 량심이 그대로 비
껴있다.

흠속에 묻혀 묵묵히 누가 알아주건말건 줄기와
잎새를 자래우고 꽃을 곱게 피워 알찬 열매를 맺
게 해주는 뿌리, 그 뿌리처럼 한모습으로 인민을
위해 한생을 살려는 인간의 량심, 이 얼마나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아름답고 고결한 우리 시대
인간의 참모습인가!

바로 이러한 량심의 인간을 지향하기에 시인은
《속임과 거짓은 가장 너절한것/배신과 변절은 가
장 비렬한것/수령에 대한 배은망덕은/인간이기
를 그만둔것이라고》준절히 단죄하고있다.

시인은 한생이 다할 때까지, 한생이 끝난다 해
도 순결한 량심앞에 성실히 살며 자기의 가장 귀
중한것, 깨끗한 량심을 후세에 남기리라고 다짐하
고있는것이다. (시 《량심앞에 성실히》)

그의 시편들은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고 진실한 작가만이 진실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의 진리성
을 생동하게 증언해준다.

불의와 타협을 모르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으며
황금에 유혹되지 않고 남의것을 탐내지 않는 인간
적량심은 힘겨워도 어려워도 오직 우리 식으로 살

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존의 정신, 전인민적
감정으로 승화되고있다.

그러한것은 시 《우리 가는 길 나는 좋아》에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내 어려운 행군길에서
얼음산우에 천막을 친대도
남의 집 빼치까방엔 들어서지 않으리
내 강행군길에서 강낭밥을 먹어도
남이 주는 빵은 먹지 않으리

내 걷는 강행군길
남의 덕에 편안히 간다면
나의것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추억하며
무엇을 후세에 물려주랴

강낭밥을 먹어도
내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얼음산령을 넘고 헤쳐도
이 하늘아래 이 땅에서
내 발로 걷는것이 나는 좋아

나의 땀방울
스며있지 않는
그 무엇도 내것 아니거니
남이 주는 복을 누린다면
그 무슨 행복이라

복이 아무리 크대도
내것이 없는것
그것은 내 삶의 정지이며 죽음
나의 후대도 없는것

하기에 그 누가 나를
꽃수레에 태워
한생 꽃길을 가게 해준대도
나는 싫어
그렇게 가는 그 길이

우리 가는 길 평탄치 않아도
이 길에
우리 장군님 지켜주시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있고
인민의 존엄이 있고

내 삶의 오늘과 래일이 있거니
아, 나는 좋아
우리 가는 이 길이

시가 말해주듯 민족의 자존과 존엄, 그것은 대
바르고 깨끗한 인간의 량심과 마음속에, 제 나라,
제땅이 제일이라는 인민의 신념속에 있는것이다.

이렇듯 백두의 흰눈처럼 깨끗한 인간의 량심은
백옥과도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충정으로 이어지
기마련이다.

시집 《붉은기 날리는 지붕아래서》가 생활그대
로의 진실이라고 하는것은 또한 그의 시편들마다
에 의무이기 전에 깨끗한 량심으로 간직된 순
결한 충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기때문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량심으로부터 우리
나올 때 진정으로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으로 될
수 있다.

인간의 량심을 떠난 충정이란 가식에 지나지 않
는다.

시집에 일관하게 흐르고있는 수령에 대한 충정
은 그 첫머리에 부친 《장군을 모시여 있다 세상
도 세월도》에서부터 뚜렷이 엿볼수 있다.

여기서 시인은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을
인류력사 수억년이 또 흐른대도, 우주에 인간세상
또 있다 해도 맞이할수 없는 불세출의 위인으
로 노래하고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시집전편을 통
하여 시인이 노래하고자 한 사상정서의 총폭발이
기도 하다.

시집에 일관하게 흐르고있는 수령에 대한 충정
은 총 7편으로 구성된 시집에서 그 제1편을
《백두산일가분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하여 마
지막 제7편을 《따르는 마음》으로 결속짓고있는
데서도 잘 알수 있다.

시집은 시작도 끝도 혁명적수령관,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정으로 일관되어있다.

이 시들에서 시인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심장을 다
해 노래하고있으며 한생토록 변치 않을 자기의 충
정을 가식없이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평민이심을 노
래한 《수령님과 시민중》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
야기도 있고 인덕을 재산으로 여긴 만경대혁명일가
에 대한 못 잊을 이야기도 있다.

시들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도 있고 우리 장군님 굽이굽이 아아한 오
성산정점에서 사랑하는 병사들과 만나시는 이야기

도 있다.

그 중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이 우리의 큰집이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은 그 큰집문을 열고 닫아주시는 우
리모두의 친어버이이심을 진정을 담아 소박하게
노래한 시 《그 새벽문 그 저녁문이 있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인민사랑과 헌신을
진실하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매우 감동적이다.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사람들 사는 가정마다에
는 그 보금자리인 집이 있고 집이면 집마다 열고
닫는 문이 있으며 그 집집마다에는 아버지, 어머
니가 있어 아침이면 문을 열어 해빛을 받아들
이고 저녁이면 문을 닫아 어둠과 추위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어릴적엔 이 작은 집이 유일한 행
복의 집인줄 알았다고 노래하고있다.

철들어 뒤늦게야 우리 수령님 세워주시고 우리
장군님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이 우리의 큰집이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 큰집 문을 열고 닫아주시는 우리 모두의
친어버이이심을 알았을 때 서정적주인공은 커다란
자책감과 함께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을 적
신다.

하여 그는 그 고마움에 목메여 노래한다.

...

참으로

우리 장군님 언제 여시고
언제 닫으시는지 모르는
그 새벽문 그 저녁문이 있어
검은구름때 그 아무리 몰아쳐와도
시편의 찬바람 그 아무리 불어쳐와도
우리의 집은 언제나
밝고 포근하여라!

아, 진정

그 새벽문 그 저녁문이 있어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부강번영하여라!

어린시절 곁을마 떼고 뛰놀던 고향의 작은 집
꽃향기는 한 집안뜨락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백두산3대장군께서 안아오신 큰집의 꽃향기는 사
계절 온 나라 집집으로 퍼져간다. 하여 서정적주

인공은 자기에게 그토록 크나큰 삶의 보람과 인생의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변치 않을 깨끗한 충정으로 받아들여갈 뜨거운 맹세를 다지는것이다.

시집 《붉은기 날리는 지붕아래서》가 생활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하는것은 또한 그 진실성이 심오한 철학성과 하나로 조화되어 형상의 빛을 뿌리고 있기때문이다.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지만 그것이 심오한 철학성과 결합될 때에만 웅당한 가치를 가질수 있다.

문학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럴수록 철학성이 더욱 깊어지며 철학성이 심오히 구현될수록 진실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는것이다.

시의 철학성은 시인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의 진리가 얼마나 심오한가에 의해 규정된다. 다시말하여 작품에 철학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작가의 새로운 진리의 발견이 깃들어있다는것이며 작가가 발견한 그 생활의 진리가 매우 심오하다는것이다.

시에서 제기하는 인간의 운명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 심원하며 그를 구현한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깊이를 가졌을 때 그 시를 철학성이 있다고 하는것이다.

시집에 있는 시 《인간모습》, 《직위와 인간》, 《나는 새도 보금자리는 땅우에 있다》 등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우쳐주는 철학성이 심오한 시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참된 삶의 봉우리를 향해 줄달음치며 그 길에 땀과 피도 뿌리고 지어 생명도 바치지만 인간을 가꿔주는 해빛이 있어야 인생의 그 높은 봉우리에 오를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해빛을 주시는 은인, 우리 삶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한 뜻깊은 시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직위는 일시적인것이고 혁명의 한길에 한생을 바친 인간의 생만이 영원한것이니 직위를 탐내지 말고 인간을 지키라는 귀중한 생의 진리도 있다.

시의 이러한 철학성은 시 《나는 새도 보금자리는 땅우에 있다》에 훌륭히 구현되어있다.

하늘높이 날며
대지를 발밑에 굽어보는 새도
보금자리는 땅우에 있더라

그대 설사
커다란 명예를 얻고
명망높아 세상을 떨치며
사람들에게 받들리워도
딘고선 곳은 제 나라의 땅이거니

잊지 말자
안아키워주고
죽어서도 안길
그 품은
그대의 조국임을

조국의 귀중함을 뜨겁게 노래한 뜻이 깊은 시이다.

시집 《붉은기 날리는 지붕아래서》가 생활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하는것은 또한 정치성일면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성을 뚜렷이 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성과 조화롭게 결합시켜 참된 혁명가들에게만 있는 아름답고 고결한 인정의 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기때문이다.

문학에서 정치성은 인간성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체의 인간전형창조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세상에 혁명가들처럼 풍부한 정서와 열정, 고상한 윤리도덕을 가진 참된 인간은 없다. 높은 정치성이 풍만한 인간성과 결합될 때에만 인간의 참된 품모가 진실하게 안겨올수 있다. 마치 파도쳐설레이는 격랑은 없어도 사시장철 변함없이 흐르고 흘러 바다로 안겨드는 강물과도 같이 시들에는 한생토록 의리와 량심을 지켜 변심을 모르고 한생을 참담게 살려는 산인간의 모습이 진실하게 비껴있다.

여기에는 한생의 참된 길동무 안해에 대한 진정한 애정도 있고 조국과 동지를 위한 길에 고귀한 청춘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웅심깊은 사랑도 있다. 영웅도 박사도, 이름난 녀성도 아닌, 지어 작은 속보판에조차 이름 한번 나본적 없는 안해를 두고 애당초 시 한편 써보려고 하지 않은 시인이다. 허나 최전연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아들의 봉분앞에서 슬픔은 가슴깊이 묻어두고 병사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는 안해를 보았을 때 그는 알았다. 안해의 심장속 깊은 곳에 뜨거운 불덩이가 있었음을.

그리고 안해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을 땐 더 잘 알게 되었다. 내 사업에서 성과를 거뒀을 땐 말없이 축하해주고 일을 잘못해 피로와할 땐 남몰래

포 전 담 시

전 광 원

김매기 설참
푸른 하늘 푸른 들을 배경으로
군민은 흥겨운 오락회 펼쳤는데
권령감은 슬그머니 집으로 달려가네

어찌나 빨리도 달리는지
강아지도 발뒤꿈치 겨우 따라 뛰는데
권령감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농장원들 수군수군

—아바이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는가?
—오늘 아침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더니 극성이군
—농장일엔 뭐 극성이 아니라우?
—이일저일 다 만공수지

분조장의 《내 나라》명창도 끝나
분조의 꼬팔새 분이와
땅크소대 분대장이 2중창을 넘기는데
땀 흘리며 숨차게 뛰어오는 권령감

무거운 다래끼 내려놓고서
이마의 구슬땀 씻으며 하는 말
—자, 노래는 이따 마저하구
어서들 와서 도마도나 들라구요

술뚜껑같은 손우에
잘 익은 도마도를 받쳐들고
성수나서 나눠주는 권령감에게
군인들 하나같이 하는 말

—애지중지 가꾼 터밭 도마도를
이렇게 먹어도 일없겠습니까?
—나도 옛 땅크병일세
내 집일을 해주러 온 손님들인데
암! 일없구말구

그 말에 어린 병사 벌떡 일어섰네
—우리가 손님이라니요
여기도 우리가 지키는 땅인데
—허허 그러니 우리 집 터밭도
자네들이 지키는 땅이렷다

—하하하!
—허허허!

벌에는 웃음이 가득
군민의 가슴마다엔
뜨거운 정이 가득차넘쳤네

배개잇 적시며 잠 못든 사람이 안해였다는것을.
하여 시인은 달리는 부를수 없는 한생의 참된 동
지이며 그 뒤도 대신할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2의 나인 안해를 사랑하고 자랑하라고
호소하고있다.

이렇듯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간애의 세계, 인정
의 세계는 조국앞에 한생을 떼뻗이 산 아들에 대
한 웅심깊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더 높이 승화되어
가슴뜨겁게 울리고있다.

아들이 최전원에서 군사임무수행중 동지를 구원
하고 희생되었을 때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를 조
국의 아들로,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었다. 하여 시
인은 어제날 내 아들이라고만 부르던 아들을 조
국의 아들로 불러주시어 어버이장군님의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목메어 걱정을 터뜨리고있는것
이다.

참으로 시집 《붉은기 날리는 지붕아래서》는

생활의 진실과 시인의 량심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
케 한다.

더없이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한편한편의 시들은
사람들에게 량심에 대하여 되새겨보게 하고 인생
길을 헛갈림이 없이 오직 당을 따라 한길만을 곧
추 가도록 깨우쳐주는 친근한 길동무로,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시인은 또한 량심의 인간, 량심의 작가만이 진
실한 작품을 쓸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우리 시
인, 작가들에게 뜨겁게 새겨준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란 손끝재간이 아니고 심
장의 분출이며 깨끗한 량심의 산아이고 그 순결한
결정체이다.

우리 시인들은 앞으로도 생활의 진실을 반
영한 시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선군시
대 당의 작가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서사시

보천보의 불길은 잠들지 않는다

서 봉 제

1

눈부신 해살에
청신한 아침대기
봄빛어린 5월의 신록을
더 질게 물들이는것인가

대공에 붉은기 높이 솟은
여기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붉은 대리석의 빛은
패궁정기슭의 진달래를
더욱 불붙이누나

방금 압록강을 건너시여
행전에도 군복자락에도
그날의 이슬이 젖어 흐르는듯
20대의 청년장군
수령님의 기록하신 영상 우러르며
우리 장군님 승엄히 서계시여라

발아래 철썩이는 압록강의 물결소리에서
그이는 들으시였는가
일제에게 빼앗긴 이 강토
마지막나루까지 뒤덮인 두터운 얼음장을
나라독립의 횃불로 녹일 맹세를 안으시고
수령님 헤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

그때문에
못 잊을 력사의 패궁정언덕에
창공에 치솟아 대공을 휘젓는
붉은기마루의 그 거세찬 필력임소리를
그이께서는 한가슴에 다 새기시는것인가

항일의 령장 우리 수령님
청춘시절을 바치시여 초석을 쌓아주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이어가시려
55년전 6월의 그 새벽길을
결연히 나서신분
아, 그이는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이속해야 하련만
려명이 비긴 해방산기슭에
사색깊이 찍혀지는 발자욱발자욱

백두산시절의 그 습관
이제는 몸에 배이시여
하루일과의 첫걸음
사색의 새벽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령님의 산책의 길

일찌기도 나서시였구나
그윽히 풍기는 꽃향기
하얀 꽃잎들 점점이
주단을 펼친듯 한 정원길을
걸고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

방금 열렸던
우리 당 제3차대회장에 올려퍼지던
만세의 환호성 드높은 결의를
다시금 새겨들으시는가

전쟁으로 파괴된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못 일어선다던
원썩들을 불태워버리듯
짹짹 쇠물을 뽑는
김철과 황철 강선과 성진의
쇠물의 폭포도 그려보시는가

놈들이 파괴한 그 하나우에
우리는 열백을 건설하리라
공장을 세워도 더 웅장하게
집을 지어도 더 화려하게
들을 가꾸어도
만년 오곡백과 설레게

그러나 그 모든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위에 건설해야 하려니
우리에게 부족한것이 많다

허나 우리에게 있다
맨손으로 작탄을 만들어
일제를 물리친 백두의 혁명정신!
그 정신은 우리 혁명의 근본초석
우리는 그 정신으로 이 땅위에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리라

그날의 공장과 거리를
마음속으로 뚫아보시는 수령님
어느새 들으셨는가
조용한 말걸음소리
수령님은 늘 가까이 있는
부관의 발자욱소리인줄 알고계셨는데

걸음 멈추고
수령님옆에 다가서며
삼가 옷깃을 여미시는분
삼가 아침인사를 올리시는분

아, 그이는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동지
수령님을 모시고
나란히 걸으신다
수령님의 사색 깨치실가봐
하실 말씀 저어하시는가

하건만
밤을 새워가며 결심하신것
더는 누를길 없으시여
조용하나 진중히 울리는 음성

—수령님
우리들이 대오를 무어
보천보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예로
답사행군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계승의 행군길에 첫 자욱 떼시려는
그이의 장한 모습 바라보시며
구름너머 멀리
백두산하늘가에 눈길 없으시는
어버이수령님

자신께서 일찌기
두컬레의 짚신을 지시고
눈내리는 만경대언덕길 내리시던
잊지 못할 그날을 회억하시며
근엄히 하시는 말씀

—속담에 첫 새벽문을 먼저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지
한가정의 새벽문 열기는 쉬워도
나라의 첫 새벽문 여는것은
초행길이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천천히 걸음떼시는
수령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말씀드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백두산엔 올라도 보지 못한자들이
혁명전통의 뿌리를 좀먹고있는데
우리들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그 길을 열어가자고 합니다

아, 그분이시였다
한해전 6월
모란봉에서 우등불모임을 펼치시며
단호히 하시던 말씀
청류벽의 벼들숲은 메아리로 간직했거니

—이번 우등불모임을 통하여
평양에서 먼저 대포를 쏘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전통계승의 장엄한 포성을
평양에서 온 나라에 울려야 합니다

잊지 마시라 사람들이여
조국의 나라길 시작점은
평양의 아름다운 대동강반
김일성광장에 그 표식비가 세워져있어도

우리 당의 혁명전통
혁명의 만년초석이 드림없이 다져지고
우리 민족의 피줄이 뜨겁게 이어진
백두산으로 곧추 향한 길
그 개척의 첫길은
1956년 6월의 그날로부터 시작되어
온 나라에 뻗어갔거니

오, 민족의 운명 지키시여

내 나라 번영의 큰문을 열어주신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
 조국의 심장을 지니고계시고
 군민과 가장 친근히 계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10대의 나이이시였다

2

밤은 깊어
 바닥없이 깊어
 곤장덕의 이갈숲에
 별이 내린다 별무리 내린다

가림천물결도
 그 별빛 싣고 흐르고
 동기와지붕의 집 한채
 불밝은 창가에 귀기울이는듯

먼길을 오신 피로 잊으신채
 가슴그득히 차오르는
 흥분을 누를길 없으셨던가
 키낮은 책상우에 펼쳐놓은
 한장의 답사로정도에 눈길 보내시는 그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열네살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찾을 굳은 맹세 남기시며
 얼음덮인 포평나루 건느신 그날로부터
 장백의 험한 산발 넘고넘어
 눈물의 강, 피의 바다를 헤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

혁명의 그 길 쉬임도 없이
 준엄한 전쟁도 이겨내시고
 복구건설의 원대한 구상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
 대륙만리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며
 겹쌓이신 피로인들 얼마나 크시랴

로정도를 보시던 눈길 드시고
 백두산쪽을 바라보시는 그이
 길이 없다니?
 길이 없어 더 가지 못하다니?!...

높뛰는 그이의 숨결
 더는 진정할길 없으셨던가
 아직도 선기내리는 야밤삼경
 가림천기슭 수령님동상 다시 찾으신
 백두의 장군

포석우를 걸으시여도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조용히 걸음 옮기시여도
 마음은 지구를 메신듯 무거우시였다

어둠속에서도
 우렁이 안겨오는 20대 청년장군
 한손에 군모를 벗어쥐시고
 주먹을 높이 추켜드신
 저 손길의 단 한번 총성에서 솟은 불
 해방의 서광을 불러온 보천보혜불

늘 즐겨외우시고
 늘 즐겨읽으시던
 《백두산》의 시구절들이
 걱정애 꿰던 그이의 심장을
 쿵 쿵 흔들었던가

...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쑤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

야공을 뒤울리던
 빨찌산 김대장의 음성
 뜨거운 가슴에 안으신채
 활활 타번지며 솟구치던
 그밤의 화불 그대로 안으신채
 다시 돌아와 책상을 마주했건만
 그이께서 차마 잠 못이루신 보천보의 밤이여

보천보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삼천리강산을 밝힌 조국해방의 화불이 타오
 른 곳
 길이 없다고 어찌

대오의 걸음을 여기서 멈출수 있으랴

그이께서 버쩍 머리를 드시었다
이 행성을 움직이시려는듯
붉은색연필을 굳게 잡으시고
혁명의 배신자들에게 철추를 내리시며
답사로정도우에 쭈욱
붉은 화살표를 힘주어 그으셨나니

가는 길에 진대가 가로놓이면
그 진대도 타고넘어야 하리
가는 길에 가시발이 막아서면
그 가시발도 헤쳐야 하리
설사 폭탄이 깔려있다 해도
우리 대오는 끝까지 가야만 하리

날이 밝아
붉은기를 높이 추켜든 대오
승엄히 그이를 우러르는데
곤장덕의 무성한 이갈숲 흔들며
려수덕의 산밭에 메아리치며
찌렁찌렁 울리시는 장군의 음성

—길이 없다고 되돌아설것이 아니라
우리 대오의 성스러운 답사길은
혁명의 횃불이 타오른
여기 보천보로부터
백두산마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아, 삼지연의 맑은 물에
곰팡긴 락엽을 뒤덮으려는자들
백두산 푸른 천지를
검은구름장으로 가리우려는자들
철의 의지로 쓸어버리시며
그이께서 큰걸음 내짚으신다

대오는 《적기가》 부르며
척척척 발구름 올린다
천고의 밀림을 헤치며 다달은
백두밀림의 크지 않은 개울가

유격대식으로 천막기둥들이 서고
우등불가에 군용밥통도 걸어놓으며
그이는 친히 군수관이 되신듯
팔소매도 걷어올리시고
흰김 문문 피어오르는

산나물국맛도 보아주신다

말씀은 없으시나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그이
만면에 밝은 웃음 피우시며
답사대원들을 둘러보시는 그이

—백두산취나물맛이 어떤것인지
알지도 못하는자들이
길이 없다고 이러쿵저러쿵해도
안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길을 내어도
한가닥 오솔길이 아니라
온 나라가 백두산에 오를수 있게
대통로 대통로를 내야 합니다!

어느새 대오는 치달아올랐는가
백두대지의 무연한 중흥등관
함성이 울랐다
천고의 원시림이 파도를 일쿠며
메아리를 안고가는 아, 백두산!

그이께서 걱정애 잠기셨어라
백두산의 그 위용 얼마나 장엄하고
그 기상 얼마나 승엄한가고
보천보 불멸의 횃불도
저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다고

백두산은 강도 일제를 쳐부신
승리의 상징으로 되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혁명의 성산
우리 수령님의 백두산이라고
그리도 뜨겁게 하시는 말씀

이 나라 조국의 성산에
고향을 둔 위대한 아들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하늘이 낸 그이 오직 그이께서만이
조국의 미래를 다 안을수 있기에

몸소 무장대오를 이끄시고
일행천리전술로 갑무경비도로를 걸어가신
민족의 태양 우리 수령님처럼
혁명의 붉은기 억세게 틀어쥐시고
허항령을 넘어 력사의 그 도로로

빨찌산의 아들은 진두에서 걸으신다

조선의 무궁한 앞날을 걸머지시고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신 그이 품에
백발의 흰머리 날리며
백두산은 두팔벌려 안기는것인가

천출장군 **김정일**동지
그이의 위대한 심장이 터친
억척불변의 신념에 화답하는가
백두성산의 장엄한 웨침이어

오호
민족의 행운이로다
백두의 혈통은
천만년 굳건하도다!
조선의 미래는 억만년 창창하도다!

3

해불인듯
불바다인듯
붉은기의 물결이
패궁정마루에 파도친다

빛나는 그 이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빨찌산 김대장모습 우러러
삼가 옷깃 여미는 답사대오
오늘은 여기서 출발의 첫걸음 떼거니

우리 장군님
쉰다섯해전 그날에 열어주신
백두산에로의 행군길따라
붉은기높이 풀색배낭을 지고
오르고오르는 대오의 물결

굽이쳐흐르는 압록강
그 격랑에 화답하는것인가
피끓는 맹세문들 창공을 울린다
수령결사옹위의 손과 손들이
성벽을 이루는 이 언덕

백두산총대로 지피신
보천보의 그 해불을
혁명의 제주봉으로 굳게 잡으신

우리 장군님
백두밀림이 찌렁찌렁하게 울리신
그날의 음성 가슴을 흔들어라

백두산에 올라야
혁명할 각오가 생기고
백두산정에 서보아야
혁명할 결심이 굳어진다 하시며
온 나라 군민을 태양의 성산에 세워주신
위대한 령장의 손길이어

잊을수 없으랴
여기 패궁정마루
영광의 기념탑에도
장군님의 자욱 어려있거니

북방천리의 현지도길에서도
쌓이신 피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별이 조으는 깊은 밤
이슬내리는 새벽에 찾아주신 길
그 몇몇번이시던가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 보천보예로 진군하시던
수령님 행전엔 아직도 그날의 물기가 흐르는듯
수령님은 오늘도 백두의 장설을
군화밑에 밟고계시는듯

저벅저벅 저벅저벅
빨찌산들의 발걸음소리
그이의 가슴을 쿵쿵 울리시였다
이 길을 따르면
자주적근위병으로 땀땀이 살리
이 길을 버리면
노예의 운명 면치 못하리라!

정녕 잊지 못해라
선군혁명령도로 바쁘신 우리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로에 서시여
초강도강행군을 하시는 속에서도
수천리 외국방문에서 돌아온 그 걸음
어찌하여 머나먼 백두산기슭
여기 패궁정마루를 찾으셨던가

말해다오 너 력사의 언덕이어
내 조국이 무척 그리웠다고

내 군민이 더욱 보고싶었다고
마음속 그 사랑을 안으신채
압록강을 건너오신 그 걸음으로
곧바로 찾아오신 장군님의 북방에로의 길

동북산야를 횡단하시며
수령님의 청춘시절을 그려보시던
가슴뜨거운 심중의 대화를
여기 기념비의 수령님동상앞에
정중히 아뢰이시며
근엄히 올리시던 장군님의 음성이어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천출위인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수령님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빛날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어

백두산행전을 오늘도 두르시고
우리 수령님 걸으시는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은
조국의 생명선 혁명의 명맥이라 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리상 꽃피우시려
강성대국건설의 온 나라 전선을 향해
저력있게 걸어가신 거룩한 그 자욱

영광의 기념탑 붉은기마루에서
온 강토에 백두의 뉘를 심어주시고
혁명적대고조의 열풍 지퍼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걸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여

아, 수령님의 혁명전통
100프로 계승!
수령님의 혁명위업
100프로 실현할
그 신념 철석의 의지로 새기셨기에

밀림속에 넘어진
진대나무 한그루
풀숲에 사그라졌던
우등불도 천막자리도

그날의 모습으로 펼쳐주셨던가

보천보 그 불길
장엄한 화불행진 대하에 흐르게 하고
왕재산마루 기념탑에도
평양의 대동강하늘가
주체사상탑에도
높이 들어 불태워주신 백두의 장군

보천보라 삼지연이라
청봉이라 대홍단이라
백두산에로의 답사길 열어놓으신
백두산전역에 불멸의 기념비들을 세우시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이 땅을 빛내주신 불후의 공적이어

보천보의 거세찬 화염으로
일제아성을 허물어버린 그 정신
백두산강군 총대의 불로
미제를 함정굴에 처박은 그 존엄
영광빛나는 백두산행군길에 올리는
선군조선의 총대의 퇴성
이 행성을 얼마나 뒤흔들었던가

위대한 장군님 령도따라
백전백승의 당의 기치따라
최후승리의 락판과 신심드높이
이 나라 하늘산 백두산마루에
수령결사옹위의 붉은 성새 더 높이 쌓으리라

총대로 시작한 이 혁명
총대로 승리떨쳤고
백승의 선군총대로
제국주의 온갖 원썩들과 맞선
백두산조국!

오, 자랑차다 영광스러워라
백승의 령장 모시여
한자욱도 드림이 없고
한걸음도 쉬임이 없이
목숨처럼 지켜가는 백두의 길
선군의 내 나라 우리에게만 있거니

우리 당 혁명전통의 창시자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과 더불어

수령님의 혁명전통의 고수자
조국천만년에 붉은기 만대를 이어주신
21세기의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의 불멸의 업적
내 나라 강성대국 누리에 떨치며
천추만대 길이 빛나리라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세기를 넘었어도

자주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 땅
혁명의 피줄이 뜨겁게 이어진
보천보 그밤은 잠들지 않는다

아, 선군태양 장군님 추켜드신
위대한 계승의 횃불이
세월과 세월을 이어가는
보천보 그 횃불 안고 우리 가리라!
영원한 계승의 행군길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가고가리라!

상 식

지 적 재 산

지적재산은 문학, 예술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창조적인 사유활동인 지적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재산이다.

지적재산은 무형물 즉 형태가 없는 재산이라는 데로부터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지적재산의 특성은 물적재산과의 대비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아야 잘 알수 있다.

지적재산의 특성은 첫째로, 그것이 일단 다른 사람이 점유하면 반환받을수 없다는것이다.

물적재산은 객관화된 물질적실체이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비법적으로 점유한 경우 그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점유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반환받을수 없다.

지적재산은 사람의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지식 그자체인것으로 하여 그것을 점유했다는것은 곧 해당 지식을 인식했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적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된 다음에는 그 어떤 물리적방법으로 그것을 되돌려받거나 거두어들일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지적재산은 리용과정에 물리적으로 마멸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반복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물적재산의 리용은 반드시 해당 대상의 소비 또는 마멸을 동반하며 이로부터 물적재산의 형태나 가치에서는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리용과정에 마멸이나 소비와 같은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반복리용할수 있다. 지적재산은 보다 발전적인 새로운 지적재산이 창조되어야만 도덕적으로 마멸되고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셋째로, 지적재산은 무형의 특성으로부터 일정한 실체에 체현되어 존재한다는것이다.

물적재산은 어느것이나 다 자기의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기교, 방법, 기술 등과 같은 지적재산은 그것이 체현될수 있는 물질실체가 없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할수 없다. 즉 지적재산은 반드시 어떠한 물질적인 실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표현될수 있다.

넷째로, 지적재산은 시공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는것이다.

물적재산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의 경과와 지역적공간에서의 물리적이동에 의해서만 전파되며 그 속도는 운수수단의 속도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그 특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전파된다. 더우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지적재산은 전파시간과 지역에서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수 있다.

다섯째로, 지적재산의 리용과정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는것이다.

물적재산은 이동, 리용 등의 과정에 물리적으로 마멸되는것으로 하여 그 가치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은 창조, 전파, 응용과정에 끊임없이 풍부화되며 그에 따라 그 범위와 가치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증가된다. 하나의 기술, 과학리론은 그것이 전파되어 생산과정에 리용되고 응용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는것과 동시에 기술과 리론 그자체도 계속 풍부화된다.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보다 새롭고 가치있는 지적재산이 창조된다.

기행런시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 가림천기슭에서

윤학복

어제도 흘렀네
오늘도 흐르네
항일의 날 수령님 올리신 보천보의 화불
오늘도 그 화불 신고 흐르는 가림천

가림천기슭에 무릎꿇고
맑은 물 한웅큼 떠드니
몸은 산천의 정기어려 시원하건만
심장은 화불마냥 황황 타네

수도의 밤 경축의 화불대오
그 화불 여기서 시작된듯
밤하늘을 밝히는 화불의 흐름

아, 세월의 가림천은 흘러가도
화불의 가림천은 흘러가지 않았구나
수령님 올리신 조국해방의 화불
장군님 밝혀주신 강성대국 려명되어

—가림천기슭에서—

꺼질줄 모르는 화불이 타오른 보천보

빨찌산령장이 계신 곳

김길성

정녕 여기 황철나무아래서
빨찌산령장 우리 수령님
일제에게 멸망을 선언한
력사의 충성을 올리신 곳이란 말인가

옮겨짚는 발자국소리조차
제 심장의 고동소리조차 조심해지는 곳
왜놈경찰관주재소까지는 100미터 안팎의 지척
이곳에 우리 수령님 계시었던 말인가

허나 수령님은 그런 곳에 계시었다
그것은 하루빨리 찾아야 할 조국이었고
그것은 하루빨리 해방해야 할 인민이었기에

아, 빨찌산령장 우리 수령님 한평생 계신 곳은
원췌에겐 언제나 멸망의 최전선
인민에겐 언제나 사랑의 최전선
수령님의 담력은 언제나 사랑과 헌신이었다

—보천보전투지휘처앞에서—

세계전쟁사엔 이런 기록이 없었다

구시물동 폐목다리

조정식

이역에서 태어난 투사들도 있었네
살길 찾아 조국 떠난 투사들도 있었네
꿈결에도 가고싶은 조국산천
피바다 천만리길에 닿은 구시물동

압록강 푸른 물도 반기여 설레는
조국으로 곧추 열린 구시물동 폐목다리
항일투사들 선뜻 건널수 없었네
조국을 찾아달라 받들어준 겨레들의 어깨갈아

이 땅에서 일제놈 모조리 쳐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해방하리라
그날에로 곧추 열린 해방의 지름길

아, 해방의 은인 김일성장군님따라
투사들 건너선 구시물동 폐목다리는
일제의 아성에 불을 안고온 승리의 다리였네
조국해방 태양을 모신 력사의 다리였네

—구시물동에서—

항일의 투사들 맹세품고 폐목다리 건넜네

모 닥 불 자 리

전 복 향

나도 한가치
장작을 넣어주고싶다
그러면 탁탁 불꽃 튀기며
확확 불길이 일어번질듯

그 불길에 나의 군용밥통도
설설 끓여보고싶다
그러면 구수한 산나물 끓이던 냄비
항일의 그날에로 나를 이끌어갈듯

밝은 웃음 피우던
항일투사들의 그 모습
자꾸만 자꾸만 눈앞에 어리거니

혁명에 청춘을 불태우던
투사들의 숨결 높뛰는 자리여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먼먼 길에
내 한생을 이 모닥불 안고가리

—전창숙영지에서—

아, 백두의 흰눈에 한줌 미시가루 끓이며

청 봉 의 밤

박 상 철

발목을 적시는 밤이슬...
심혼을 적시는 햇풀냄새...
어머님은 그림던 마음 쏘으시며
청봉의 밀림을 조용히 거니시네

피어린 싸움의 낮과 밤들에
《사향가》 부르시며 그리던 고향
기다려다오 기다려다오
굳은 언약 남기시고 떠나셨던 조국산천

애뜻한 아래목 없는 늑늑한 숲속
이깔나무 분비나무
울울창창한 밀림뿐인데

아, 어머님은 애뜻한 정 나누셨구나
사립문 열려있고 토방돌 낮익은 곳
김일성장군님 모시고 기어이 돌아갈
고향 회령집 프락처럼 걸으시었네

—청봉숙영지에서—

마을도 없는 천고의 밀림

한 응 큼 의 물

안 영 철

불바다 천만리 갈증마저 잊었는가
파아란 조국의 하늘이 고이 비낀
한응큼의 물 두손에 떠든채
고향을 그려보는 투사

떨기떨기 진달래 봄빛질은 삼지연
한응큼 물에 없어보는 생각
노예의 운명 피로 씻어야 하기에
피바다 건너 달려온 조국땅 삼지연

한응큼 이 물에 다 담아들었는가
꿈에도 그림던 조국의 물맛이
진군길에 천백배의 새힘 주었던가...

어머니조국의 단 젖인양 물을 마신 투사
조국 찾을 맹세안고 일어섰구나
그 한응큼의 물은 투사의 가슴에서
조국애의 용암으로 끓어넘치었구나

—삼지연못가에서—

아, 피눈물 뿌리며 떠난온 고향

고향 자랑

기 경 호

나는 어디 가든지 고향자랑을 잘 하지 않았다.
겸손이라는 미덕을 남들보다 풍부히 소유해서가 아니라 남달리 내놓고 할만 한 자랑거리가 없는 까닭이다.

으뜸가는 곡창이나 굴지의 야금기지, 유명한 석탄 매장지는 못된다쳐도 경치가 빼여지게 아름답다든가 소문난 특산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내 고향엔...

룡이 많이 나서
그 이름도 룡림
기차길 등지고
외진 곳 수십리

언젠가 내가 습작집에 적어두었던 이 시구절에서도 보는것처럼 내 고향 룡림은 철도연선에서도 수십리나 떨어진 자강도의 외진 산골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굳이 자랑을 꼽을것 같으면 공기가 기막히게 좋고 물이 맑다는것인데 내 나라는 어딜 가나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이라 그것도 별로 신통한 자랑거리런 못된다. 그런 까닭에 고향이야기가 나올 때면 나는 매번 웅색한 처지에 빠지곤 한다.

《 룡림?... 아, 문덕군 룡림리?... 》

참, 문덕군에 룡림리가 있다는것은 알면서도 자강도에 룡림이라는 군이 있다는건 모르다니...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탓할수도 없다.

더우기나 내가 제일 부러운것은 어디 가보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곳이라는 표식비를 자기 고장의 문패처럼 달고있는 그것이였다. 언제면 내 고향 룡림에도...

그러던 내 고향에 변이 났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결사전-희천발전소 언제건설전투가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었던것이다.

병사들이 달려왔다.

온 군이 펼쳐나섰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마음이 여기에 쏠렸다.

《세계앞에 조선의 본때를!》,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들과 더불어 선군시대 산울림의 선창

자, 선군시대 창조기풍의 선구자들의 불같은 애국열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산악같은 언제가 솟아올랐다. 달구지 두대도 어기기 바쁘게 비좁던 산골길이 대형자동차 서너대도 왕왕 오갈수 있게 번듯이 넓어지고 조금만 비내려도 사태지던 비탈엔 일매진 웅벽이 수십길 뻗어올랐다.

동기와지붕이 오בות하던 마을들엔 산기슭을 따라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추녀를 건듯 들고 즐비하게 일떠섰다.

눈감았다 뜨니 룡궁이라고 그것도 1년이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에...

드디어 것처럼 소원이고 꿈이던 영광이 찾아왔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내 고향 룡림을 찾아오신것이다.

아, 이제는 내 고향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고장, 장군님께서 아시는 뜻깊은 고장이 되었다.

세상에 자랑이면 이보다 더 큰 자랑이 또 어디 있으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거창하게 일떠서는 언제와 함께 옛 모습을 털고 날에날마다 새롭게 변모되는 내 고향 룡림!

나는 생각한다.

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태양민족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자!

이 하나의 의지로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킨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가 있어 지난날 돌자랑조차 변변히 할것이 없던 내 고향에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우뚝하니 생겨난것이 아닌가.

이제는 내 고향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가 말한다, 이 땅이 그전날의 룡림이 아니라고...

그렇다, 결코 낱아준 고장으로만 부를수 없는 내 고향 룡림!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날은 영웅의 땅, 희천속도의 고향인 여기가 바로 강성대국의 그날에 내가 살고 태어나고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이 만대를 이어가며 복락을 누릴 내 고향이라고 나는 온 세상에 소리쳐 자랑한다.

사람들이여, 내 고향 룡림에 꼭 한번 와보시라!

철학적인 세부, 재치있는 형상수법들

—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을 읽고 —

최준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철학적화폭으로 반영한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정영종 작)은 지금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을 주체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하루빨리 열기 위한 총진군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인간문제의 심오성과 세련된 성격형상으로 하여 이채를 띠는 이 소설을 읽으며 느낀 철학적인 세부와 재치있는 형상기교들에 대하여 평하려고 한다.

철학적인 세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전반을 놓고 말하든 어느 한 세부나 대사에 대하여 말하든 철학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새로운 발견이 깃들어있다는 의미와 작가가 발견한 생활의 진리가 매우 심오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문학의 다른 형태들에서도 그러하지만 세부와 세부의 련결로 이야기가 전개되어나가고 성격이 창조되는 소설작품에서는 특히 세부를 잘 그려야 한다. 그러자면 매 세부에 철학이 숨배여있게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에서 농구나무에 대한 세부는 거기에 작가의 발견이 있고 생활의 진리가 무르녹아있는것으로 하여 철학적인 세부로 의미심장하게 안겨지고있다.

《농구라는게 뭐 볼품도 없구 맛도 신통치 않지. 허나 이 연하땅에 뿌리내리고 살려는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이거던.》

이 대사는 소설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연하땅의 증견자 옥준보로인이 늘 외우는 말이다.

소설에서는 첫 부분에서 농구나무가 《연하땅에 뿌리내리고 살려는 이 고장 사람들의 마음》으로

되고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아버지가 고난의 행군시기에 파오를 범하여 철직되자 연하광산에 자진하여 내려온 김청주, 그는 아버지의 파오를 씻자고 처음에는 일을 창발적으로 직심스레 하려고 했다. 깊어진 갯때문에 광석채굴이 어려워지고 그 품위도 계속 하강선을긋자 채광갱 책임기사 김청주는 품들여 계산한 끝에 매우 대단한 발기를 한다. 즉 방수벽을 20여메터나 더 깎아먹자는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가 바라는데로 되지 않았다. 일꾼들은 그가 내놓은 안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간부들하고는 어렵도 없다.》고 하면서 점차 술을 마시며 타락한 생활을 한다.

《그게 어쨌습니까? 남들은 광산도 버리고 달아나는 판에... 뭘, 지배인동지의 딸도 광산에서 빼돌려 평양에 시집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더러는 채굴장에 처박혀 일생 버럭과 함께 텅굴라는거군요?》

류병근에게 가서 술을 얻어마시고 비칠거리며 오다가 련진옥지배인과 마주서게 되자 랭정하게, 거만하게 내쫓는 청주의 말이다. 다시말해서 청주는 몸은 연하땅에 있지만 마음은 광부들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청년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농구나무처럼 연하땅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겠는가.

옥준보로인이 손녀 옥수금에게 말한다.

《애 수금아, 래일 우리 집 농구나무를 한그루 떠서 그 젊은이네 집에 심어주자꾸나.》

청주의 타락한 생활이 가슴에 걸려 이튿날 수금이와 함께 그의 집 마당에 농구나무 한그루를 심어주는 옥준보로인, 이 나무처럼 연하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 농구나무는 주인공 련진옥이 몰아댄 불도절삽날에 밀려나 청주의 집마당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연하땅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농구나무, 옥준보가 것처럼 바라며 심어준 그 농구나무를 련진옥은 청주의 낡은 집과 함께 밀어버렸던것이다.

《여보게 지배인, 좋은 일을 하면서두 이게 똬

가. 사람의 가슴은 한치라두 심장은... 천길깊이에 서 뛰는 법이라네. 깊이 파보라구, 깊이!》

짓이겨진 농구나무가지를 들고 림진욱을 질책하는 옥준보로인, 림진욱의 눈에 농구나무의 짓이겨진 가지에서 방울방울 습습아나오는 맑은 진액이 섬찍하게 안겨진다. 정말 이 농구나무가 연하땅 사람들의 래일을 대표할수 있는가. 시큼텃텃하고 뚝은 열매를 주는 농구나무. 주인공 림진욱은 바로 이 농구나무를 보면서 연하땅산의 래일도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새로 일떠선 훌륭한 살림집마당들에 사과나무를 줄지어 심는다.

연하땅의 새 모습 《연두봉허리를 쭉 가로질러 간 장거리벨트콘베아며 대양으로 진수하는 거대한 선박인양 우뚝 솟은 선광장의 웅자》, 《수천마리의 학무리가 깃을 퍼덕이며 그 어떤 희망의 세계로 날아오르는듯싶은 눈부시게 하얀 살림집행렬》... 특별히 눈을 끄는 집집의 울타리마다 무더 무더 하얀 사과꽃구름이 활짝 피어 짙은 향기를 뿜어올리는 풍경을 보며 옥준보로인이 말한다.

《농구나무 이 연하땅의 백년대계를 상징했는지. 현대 너무 촌리나구 뚝은 열매만 주었거든. 저 사과나무꽃이야말로 우리 연하땅의 천년만년대계를 기약하는 단 열매일세.》

그렇다, 농구나무와 사과나무! 이것은 어제날의 연하땅과 강성대국의 래일 연하땅을 비교해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의 높이에 창조의 높이를 따라세운 주인공 림진욱을 비롯한 연하땅사람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어제날의 연하땅을 상징하던 농구나무는 자취를 감추고 선군시대, **김정일**강성대국의 천년만년대계를 약속하는 사과꽃이 만발한 연하땅산!

정말 소설의 이 세부는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적과제가 무르녹아있고 작가의 발견이 깃들어있는 것으로 하여 인상깊이 새겨지는 철학적인 세부가 아니겠는가. 마치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재치있는 반복의 수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문학에서는 형상수법을 다양하게 써야 한다.》

소설창작에서 형상수법은 작가가 재간껏 탐구하

여 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더 잘 보장하고 독자들을 소설의 형상세계에로 깊이 끌어들일수 있다.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에서 특색있게 리용하고있는 기교의 하나는 반복의 수법이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서 반복의 수법은 보여주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며 표현적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반복의 수법은 어느 한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는데서도 그리고 지어 어느 한 세부나 장면을 되풀이하는데서도 이루어진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림진욱에게 가슴아픈 추억을 남긴 현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피땀흘려 쌓은 첫 국경보루성벽에 올라 무명의 장수가 옳었다고 하는 시조와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 농구나무에 대한 일화들을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하며 형상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색있게 반복하여 펼치고있다.

우선 주인공 림진욱의 청춘시절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한 현순과 그가 광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는 날에 하였다고 하는 옛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보여주고있다.

사실 이 소설에서 림진욱의 현순에 대한 추억은 여러곳에서 반복되고있으며 특히 그의 남동생 김현길과 더불어 더더욱 인상깊게 대조되어 전개되고있다.

죽음을 얼마 앞둔 현순과 휴식시간에 그렇게도 말이 없던 전례를 깨뜨리고 도란도란 들려준 옛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는 콩다리정대를 버린 림진욱을 질책하여, 그에게 노래를 못 불러준 미안함을 대신하여 현순이가 마지막으로 한 지울수 없는 타이름이었다. 그러나 진욱은 《그 애긴 글로 써서 내게 직접 주어야 하는거야!》 하고 현순에게 역증을 내어 소리지르지 않았던가. 바로 그다음 처녀는 뜻밖에 무너지는 봉락속에서 한팔을 침목 밑에 깔리운 다급한 정황이었지만 아픔을 애써 참으며 피하라고 다급하게 소리쳐 광부들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것이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현순이 마지막으로 한 그 옛말이야기를 앞부분과 뒤부분에서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특색을 보이고있다. 특히 앞부분에서는 현순의 옛말을 전부 다 보여주지 않고 양과 염소가 승냥이대가리를 자루속에 넣고 떠났다는 내용과 중간부분을 도간도간 그린 다음 뒤부분에서 림진욱이 공정원 안태영에게 그 옛말을 전부 다 들려주는것으로 꾸밈으로써 사건의 흥미를 한층 돈구

어주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하는 안태영의 성격과 결부되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게 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그 옛날 무명의 장수가 연하땅에 세워졌던 보루에 칼짚고 높이 올라 압록강을 굽어보며 읊었다고 하는 시조에 대한 일화를 반복하여 전개하고있다.

보루에 칼짚고 섰네
압록수 흘러흘러도
네우에 비낀 이 모습
천년코 지워낼손가

이 시는 소설의 앞부분에서 광산청년동맹에서 조직한 상봉모임때 《느릿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자고로...》하면서 서두를 땀 옥준보로인이 읊은것이다.

연하땅은 그 옛날에 어떻게 개척되었으며 오늘에 이르렀던가.

옥가성을 가진 옥준보의 먼 옛 조상이 정배살이 하러 끌려와 자리를 잡았던 이곳이었다. 그 정배군들과 수자리 살려 나온 병졸들이 이 나라의 최북단에 피땀을 흘려가며 쌓은 첫 국경보루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때 모름지기 그 보루의 장수가 성우에 올라 압록강을 굽어보며 이 국경이 후손만대 지켜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며 읊었을 이 시조였다. 그러나 그 국경보루는 후손만대 지켜지지 못하였다. 총대가 약한탓에 왜적에게 보루를 빼앗겼고 압록강에 민족수난의 피눈물이 흘렀었다.

허나 언제부터였던가. 이 연하땅에 천년토록 부흥할 보배기둥이 깊이 박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였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멀고 험한 나라의 최북단에까지 친히 찾아오시여 연하광산을 개발하여주신 바로 그때부터였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앞부분에서 그 옛날 장수가 읊었다고 하는 시조를 주면서 연하땅의 지난날을 보여준 다음 마지막부분에 가서 변모된 연하땅의 전변과 여기에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다시 이 시조를 반복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있다. 굳건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회주의의 더 좋은 래일을 현실로 펼친 연하광산에 친히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옛날에는 나라의 최북단 전초보루였던 이 땅이 오늘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

선으로 부흥하고 굳건히 다져졌다고 그토록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연하광산로동계급을 축하하신다. 그 옛날 나라의 최북단 전초보루와 오늘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선!

작품에서는 이렇게 앞부분과 마지막부분에 그 옛날 연하땅과 강성대국의 래일을 앞당겨온 오늘의 연하땅을 대조시켜 보여주면서 이 시조를 반복 삽입함으로써 주제사상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설에 서정이 흐르게 하고있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을 시조로 끝맺은것은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연하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선으로 영원히 부흥하고 굳건히 다져지리라라는 굳은 확신을 담은것으로서 특색있는 반복이며 기교라 해야 할것이다.

소설의 마지막장을 덮어도 머리속에 생생히 떠오른다.

...

압록수 흘러흘러도
네우에 비낀 이 모습
천년코 지워낼손가

특색있는 대조의 수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형상수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보편화된 형상창조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조의 수법은 지난 시기 소설문학을 비롯한 작품창작에서 적극적으로 리용하여온 형상수법들 중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북방의 노을》에서는 대조의 수법을 특색있게 리용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대조의 수법을 인물들의 성격상 특질을 부각하며 주제사상을 강조하고 일련의 서정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있다.

작품의 앞부분과 뒤부분에 《보루에 칼짚고 섰네》라는 옛 시조를 반복하여 보여주면서 어제날의 연하땅과 오늘의 연하땅을 대조시켜 보여준것은 특색있는 형상수법이 아닐수 없다.

특히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상 특질을 부각하기 위하여 대조의 수법을 재치있게 리용하고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주인공 려진욱과 채취공업성 부국장 박치명과의 성격상 대조이다.

작품에서 려진욱과 박치명은 인간적으로 친혈육처럼 가까운 사이이다. 려진욱이 박치명을 안것은

새파란 총각시절 랑립산중의 화평이라는 광산에 있을 때였다. 그때 박치명이 김책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실습차로 이 광산에 내려와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형님, 동생하며 가까이 지냈었다.

그후 박치명이 실습을 마치고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술한 대학교재, 참고서들을 한꺼번에 부쳐보냈고 직접 뛰어다니며 럽진옥의 평양기계대학추천까지 힘써주었다. 그리고 럽진옥의 딸이 평양의학대학(당시)에 다닐 때 친조카이상으로 살뜰히 돌봐주었고 오늘에 와서는 김형직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 박치명의 아들과 주인공의 딸 정옥이 사이에 혼사말까지 난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소설에서 이 두 인물의 대조는 사상적인 대조이며 그것은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의 해명에 형상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강성대국의 래일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사이의 대조가 이 두 인물들의 성격의 핵을 이루고있으며 동시에 대조를 이루고있다.

주인공 럽진옥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강성대국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의 높이에 창조의 높이를 따라세우며 강성대국의 래일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박치명은 강성대국의 래일에 대한 신념이 확고치 못하며 그 래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총진군에 따라서지 못하는 부정인물이다. 이 두 인물사이의 성격상 대조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는것은 우선 강성대국의 래일에 대한 신념이다.

주인공 럽진옥은 강성대국의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광산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선으로 꾸려나간다. 그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밑바탕에는 꼭 한번 오시겠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으며 어떻게 하면 광산에 오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겠는가 하는 불타는 충정의 마음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이 충정의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장군님의 리상의 높이를 그려보게 하였고 그 리상을 무조건 끝까지 현실로 꽃피우려는 결사판철의 정신력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박치명은 래일에 대한 신념이 확고치 못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그는 무엇이든 새 일이 벌어지면 시끄럽고 머리쫄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질 결과까지 좋게 믿지 않고...다 못 믿고 다 하기 싫다 하는 식의 패배주의에 물젖어있다.

럼진옥과 박치명의 대조는 특히 자기 힘에 대한 관점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자기 힘을 믿는가 아니면 남의 손을 바라는가 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이것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 할수 있다.

럼진옥이 외국에 갈 때 박치명도 함께 간다.

유라시아대륙중심의 무연한 대지우에 자리잡은 그 유색금속광산은 여러 자본주의나라 회사들의 먹이감쟁탈로 설설 뚫고있었다. 이것을 본 럽진옥은 자기 힘을 믿고 제발로 걸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힌다. 그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나 컴퓨터화가 그리 대단한것이 아니라는것, 헐치는 앓을것이고 할일 또한 많을것이지만 이들에게 왜 지겠는가, 왜 압도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박치명은 자원손실은 좀 보더라도 합영을 해서 다른 기업소들에 든든한 밑천을 대주고 그 손실을 곱절 아니 열배쯤 보상하도록 하는것이 급선무라고 한다.

소설에서는 럽진옥이 자기자신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래일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 인물로 형상하면서 그와 대조되게 박치명은 자기한몸의 안일과 개인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는 보신주의자, 개인리기주의자로 그리고있다.

강성대국의 래일에 기초를 둔 대조되는 성격형상. 부정인물 박치명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성격과 대조시켜 형상함으로써 럽진옥의 개성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고 소설의 사상주제적과제해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었다.

×

정말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바가 크다.

철학적인 세부, 재치있는 형상기교들.

소설의 장면장면들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고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눈앞에 생동하게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기교를 보여준 작가의 모습도 함께 떠오른다. ...

자 그 마 한 세 탁 소 앞 에 서

백 성 근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만수대거리를 지나던 나는 8호동밀에 있는 자그마한 건물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집사람이 출장을 가서 빨래감들을 어찌할가 걱정했었는데 깨끗이 손질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이 기뻐하는걸 보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빨래감들이 생기면 또 들리십시오.》

깨끗이 세탁한 옷가지들을 큼직한 구렁에 넣어 가지고 씩씩씩 가는 중년남자의 뒤통수를 바라보던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손님을 바래주러 나왔던 세탁소녀인의 뒤를 따라 서문세탁소에 들어섰다.

《손님은 뭘 맡기시렵니까?》

녀인의 습관적인 물음에 나는 당황하여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난 사실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저... 여기가 원래부터 세탁소였습니까?》

《아니요. 만수대거리에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약국과 세탁소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은덕으로 여기에 새로 생겨난거랍니다.》

듣고보니 참으로 사연깊은 집이었다.

조상대대로 녀인들은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는것을 자기들의 웅당한 직분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우리 녀인들은 뒹어진 옷가지들을 빨면서 정다운 사람들의 체취를 느꼈고 제 손으로 깨끗이 빨아 손질한 옷을 입혀 집안사람들을 내세우는데서 소박한 긍지와 보람을 찾곤 하였다.

허나 나라없던 세월에 울리던 샅빨래질소리는 얼마나 처량했던가.

샅빨래로 가정을 유지하고 때로 자식들의 학비를 보태기 위해 추운 겨울날 한지에서 빨래방치를 두들겨야 했던 이 나라의 녀인들...

그러던 녀인들이 언제부터였던가. 수난의 세월이 가져다주던 눈물을 가셔버리고 행복을 노래하며 빨래를 하게 된것은...

아마도 그것은 우리 수령님 인민의 새세상을 세워주신 그때부터였으리라.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녀성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가슴아파하시며 농촌수도화의 구상을 펼치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우렁치 떠오른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서는 거리와 살림집을 돌아보실 때마다 인민이 리용할 상점과 편의봉사시설들까지 관심하고계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짐을 금할수 없다.

온갖 생활조건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만수대거리의 희한한 살림집이여서 그안에서 빨래를 하는것만도 녀인들의 기쁨이고 행복이런만 남들이 무심히 스쳐지나는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넘려하시며 이렇듯 살뜰하게 보살펴주시다니...

문득 대동강반에 나란히 일떠선 원형고층살림집아래에도 장군님의 은덕으로 세탁소가 새로 생겨났다고 좋아하던 못사람들의 속삭임이 다시금 나의 귀전에 커다란 진폭으로 확대되어 들려왔다.

나라마다 세탁소는 다 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 인민을 위해 것처럼 사소한데까지도 마음을 쓰는 령도자가 있단 말인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 현실이다. 정녕 위대한 아버지의 보살핌속에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이 더 많은 우리 인민이다.

뜨거운 걱정속에 작별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며 다시금 바라보니 너무나도 수수하고 자그마한 집이었다.

그러나 이 집은 우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있어 이 세상 가장 크고 높은 집처럼 느껴진다.

어찌 세탁소만이라. 정휴양소와 료양소, 도처에 꾸려진 유희장과 민속놀이장들, 창광원식목욕탕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급양봉사망들을 비롯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랑의 집들이 내 조국땅에는 그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랑의 집들은 지금도 계속 늘어만 간다.

만일 그 모든 사랑의 집들을 하나하나의 점과 획이라고 상상해볼 때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이 땅에 새겨놓은 거대한 글자를 나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지 않고도 대번에 읽을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다.

이런 집들이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위해 서있는 정든 수도에서 내가 산다. 이런 사랑의 집들이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라 평범한 근로자들을 부르는 위대한 나라에서 아, 인민이 살고있다.



승리의 불

김 대 성

중복철이라 수도의 거리는 단 가마속처럼 숨이 턱턱 막히게 화끈거렸다. 흰구름이 뭉개뭉개 피어 오르는 하늘에선 따가운 폭양이 쏟아지고 달아오른 아스팔트도로에선 열기가 확확 뿔어져나와 길가의 나무그늘밑에 들어서도 땀이 등골로 줄줄 흘러내렸다. 가로수들의 잎사귀들도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후줄근해졌다. 나무가지우에서 더위를 썰어내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귀따갑게 울리었다.

찌물쿠는 날씨지만 대동강반의 극장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며 여기서는 벌써 여러날째 전국의 전쟁로병들의 예술소조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7월 27일, 극장은 초만원을 이루어 문자그대로 립추의 여지가 없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절로 존경이 가는 머리 흰 전쟁로병들, 어제날의 병사시절을 오늘도 긍지롭게 여기고있는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 인민군대에 입대할 시각을 고대하고있는 젊은이들,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자랑을 안고있는 후방가족들... 누구나 조국보위라는 성스러운 사명과

제나름의 인연을 맺고있는 사람들이었다.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인 옛 해안포병의 아들이라는 긍지와 함께 자신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어뢰정을 타던 해병이었다는 자부심을 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나도 그 수많은 관람자들 중의 한사람이었다.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막을 올린 무대에는 전화의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 불굴의 기상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열정적으로 전시가요를 부르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나는 은연중 생각이 깊어졌다.

이 땅우에 전쟁의 포화가 가셔진 때로부터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갔는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누구나 어차피 늙고 생의 마무리를 하기 마련이어서 적지 않은 전쟁로병들이 우리결을 떠나갔다. 늘 부상자리가 도져서 애를 먹던 나의 아버지가 눈을 감은지도 어언 10년이 되어온다.

가렬치절한 전쟁을 이겨내고 폐허로 된 이 땅우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느라 피와 땀을 흘리며 위훈도 많이 세운 전쟁로병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나이도 많은 그들이 옛 화선병사시절 군복차림에

훈장과 메달을 가득 달고 수도의 화려한 무대우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있으니 관람자들모두가 어찌 격동되지 않을수 있으랴.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열기편 환호소리와 우렁찬 박수소리로 가득이나 불도가니처럼 달아오른 극장은 당장 터져나갈듯싶었다.

격정과 흥분의 세찬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 자신마저 잊고 탄성을 울리며 박수를 치던 나는 별안간 두눈을 크게 뜨며 굳어졌다.

시와 합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에 출연한 전쟁로병들가운데서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기때문이었다.

합창대렬의 한쪽끝에 서있는 그저 무뎌하고 평범하게 생긴 수수한 로병, 대다수의 출연자들이 어깨에 별을 단 군관복차림인데 그는 상등병견장을 단 병사복차림이었다. 가슴에 단 훈장메달도 적은편이고...

내가 저 아바이를 언제 어디서 만났었던가?

두눈을 지그시 감은채 생각을 더듬는 나의 눈앞에는 퍼그나 오래전 어느해인가 조선인민군미술전람회장에 전시되었던 인상깊은 조선화가 떠올랐다.

제목은 《폐전장군의 말로》인것 같다.

포연이 채 가셔지지 않은 숲속에서 랑불이 붉은 인민군병사가 기관단총을 가슴에 안은채 부상당한 한쪽팔에 붕대를 감으며 빙그레 웃고있다.

그옆에는 나이지숙하고 로회해보이는 미군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채 주저앉아있다. 그놈이 털이 부시시한 손으로 짚고있는 철갑모에는 동전만 한 왕별이 두알이나 박혀있다.

인민군병사가 포로한 편을 호송하다가 쉬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인기가 대단했다. 수많은 관람자들이 그 그림앞에 몰려들어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편은 제2차 세계대전때 《상승》을 뽑내는 자기의 사단을 이끌고 승전에 승전을 거듭함으로써 미군의 《강대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명성이 높아졌다. 그 덕에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자 군정장관을 지내기도 했었다. 이런놈이 조국해방전쟁때 자기의 《상승사단》을 줄지에 잃어버린채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를 치다가 인민군전사에게 포로된것이였다.

나는 병사시절에 평양전학을 왔다가 4. 25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중인 미술전람회에 출품된 그 그림을 보았었다.

그후 제대되어 고향인 강계시로 간 나는 문학통신원으로 생활하면서 그때 받은 인상을 되살리고 거기에 허구를 넣어 풍자적색채가 강한 단편소설

을 창작하였다.

대전해방전투가 끝날무렵,

흔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치다가 인민군대의 나어린 편락병에게 포로된 편은 수치와 절망감에 사색이 되어 비지땀을 철철 흘리며 가고있었다.

《완, 투, 쓰리...》

편은 입속으로 셈세기에 골몰했다.

편을 끌고가는 나어린 편락병은 다리에 부상을 당했는데 작대기를 짚고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면서 손에 들어온 권총으로 포로의 뒤덜미를 겨누고있었다. 그 권총인즉 방금전까지만도 편이것이였다. 그러나 통분하게도 주인이 바뀌어 지금은 이 편의 뒤통수를 겨누고있는것이다.

정녕 맹랑한 일이지만 권총에는 탄알이 한발쯤 남아있을는지도 모른다. 사람의 목숨을 결판내는데는 두발도 아니요, 한발의 총탄이면 충분하다는것을 자칭 백전로장인 편이 모를리 없었다. 바로 그 한발의 총탄이 채워져있을듯싶은 권총이 인민군전사의 손에 쥐여있기에 편은 지금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반항할 엄두도 못내고 공손히 걸어가는것이다. 복종하면 목숨을 부지할수 있는것이요, 불복하면 한방의 총소리와 함께 즉시 개죽음을 당하게 된 편의 신세는 가련도 했다.

함정에 빠진 순간 승냥이가 멍청해지듯이 뜻밖의 변을 당한 편은 사고범위는 협소하고 졸렬해졌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여도 편은 왕별이 두개나 박힌 자기의 어깨우에 미합중국의 운명이 걸머져있노라고 자부해왔었다. 아닌게아니라 《상승일로》로 줄달음치고있는 미24사단장의 발언 한마디는 대통령 트루만의 전쟁정책수립에도 가히 영향력을 미칠만큼 위엄스런것이였다. 하건만 사람의 신수란 정황에 따라 조석으로 휘뺄 뒤집혀지기도 하는것이여서 그런 코대높은 장성이 지금은 포로신세가 되었고 살구명수를 찾기 위해 셈세기에 골몰한것이였다.

하나부터 셋까지는 수월수월 세였는데 워낙 신수가 사나운 수자인 넷부터 일곱사이가 알쏭달쏭해서 편은 당장 골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젠장! 뒤죽박죽으로 헝클어진 대가리를 수판처럼 절레절레 흔들고난 편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셈을 세기로 마음먹었다.

《완.》

...어제 아침에 편은 야전용침대에서 일어나 눈곱도 떼기 전에 8군사령관에게서 온 긴급전화를 받았다. 《불퇴의 선》이라던 금강방어선이 돌

파당하고 론산과 강경이 편이어 나가떨어지는데 불안을 느낀 위커는 대전방어를 책임진 편에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이틀후이면 1기병사단이 도착할터이니 그때까지만 대전을 견지하라는 것이었다.

《위커각하, 안심하십시오.

대전은 이들이 아니라 3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겁니다. 우리 24사가 독립전쟁때부터 방어를 잘해서 이름을 날렸다는걸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은 이처럼 호언장담으로 통화를 끝냈으나 왜서인지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작전대앞에 나서기 전에 권총을 꺼내들고 새 탄창을 끼웠다.

작전회의를 방금 시작했는데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급보가 날아들었다. 인민군 한개 부대가 대전 남쪽계선에 불쑥 나타나 퇴로를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편은 벌써부터 인민군대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울상이 된 부하들의 표락서니가 눈에 거슬려 용기를 북돋아줄겸 천정에 대고 멋지게 방아쇠를 당겼다.

《팡!》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전전궁궁하던 부하들이 삼시에 눈이 켜켜서 쫓쫓해졌다.

《그래, 이것도 공산군의 총소리인가? 그들이 중무장을 한채 하루밤새에 백여리나 우회하여 우리의 퇴로를 차단했다는건 비겁쟁이들이 지어낸 허튼수작에 불과하다. 알겠는가?!》

이렇게 마수걸이로 첫방을 쏘았다. ...

《투.》

두번째 총탄은 더 멋지게 갈긴셈이다.

...편이 작전도앞에서 일장 연설을 끝냈을 때 한 장교가 비칠거리며 들어왔다. 금강방어선의 방어를 맡았던 편대장이었다. 그런데 금강계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하라는 편이 명령을 감히 거역하고 비겁하게도 도망쳐온 것이었다. 머리통과 팔에 피칠갑을 한 봉대를 칭칭 감고 군복에는 잔뜩 흠매박질을 한 것이 꼭 논판의 허수아비꼴이었다. 인민군대의 불같은 공격에 되우 혼이 난 모양이었다.

그 꼴꼴을 보며 편은 미간을 찡그렸다.

《마크, 당신 목숨이 붙어있었구만. 그래, 당신의 편대는 어디 있소? 당신이 장담하던 금강방어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말이요?!》

마크는 더갈라진 입술을 감뻘며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다.

《각하, 저의 편대는 비록 인민군의 공격에 전멸되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포위를 뚫고나왔습니다

다. 투항하거나 포로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가소롭게도 마크는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쳐온 주제에 자기를 용감한 장교로 분칠하고있었다.

편의 눈에서 불이 확 일었다.

《마크, 금강방어선을 불퇴의 선이라고 장담한게 누군가? 인민군의 공격을 즉시 저지시키고 공격으로 넘어가겠다고 했었지. 미군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편대를 다 잃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쳐와?!》

《각하, 진격해오는 인민군은 놀랍게도 기계화된 강적이었습니다. 우리 편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런 강력한 공격을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파죽지세로 달려드는 인민군의 땅크들앞에서 우리 반땅크포들은 아무런 맥도 추지 못했습니다.》

편은 울이 치밀어올라 권총을 뽑아들었다.

《가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서도 무슨 할말이 있는가!

명령이다! 당장 금강으로 되돌아갈것! 몸으로 막아서라도 인민군땅크를 멈춰세우라! 그것이 미군장교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다.》

마크는 울상이 되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각하, 거기 가면 전 다시는 살아돌아오지 못합니다.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나에겐 처자가 있습니다.》

이런, 비겁쟁이같은 자식!... 편은 부하들앞에서 자기의 위세를 시위할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결사적인 대전방어를 앞두고 모두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싶은 충동이 온몸에 꿈틀거렸다.

《마크, 미국은 지금 자기 힘의 최고한계를 시험해보는 마지막주패장을 뽑고있다. 이 조선전쟁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의 통치자로 되느냐 아니면 주저앉고마느냐를 결정하는 사활적인것이다. 때문에 미군의 명예를 훼손시킨 장교는 죽어 마땅하다.

마크, 여기서 죽겠는가, 금강으로 가겠는가?》

《각하, 한번만...》

마크는 금시 흠뻑이 되어 뒤로 뉘름 물러앉으며 엉덩이걸음을 했다.

편은 천정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먼지가 부실부실 떨어져내렸다. 마크는 혼비백산하여 눈을 까뒤집고 쫓쫓해졌다.

열기가 와짝 오른 편은 권총을 추켜든채 짜장엄숙하게 선포했다.

《다들 들어라! 나는 편이다. 내 명령은 곧 법

이다! 살아서는 절대로 거역할수 없음을 명심하라!

대전을 사수해야 한다. 여기는 우리 미국의 운명선이다!》...

생각에 음하여 저도 모르게 걸음발을 늦추었더니 뒤덜미에 총구가 닿았다. 편은 흠칫 놀라 채찍을 맞은 노새처럼 부랴부랴 걸음을 다그쳤다.

총구는 곧 목덜미에서 떨어졌으나 지옥의 마귀손이 닿아있는듯 그 자리가 썩늘었다. 금시 총성이 울리며 감장콩알이 목을 꿰뚫고 피가 분수처럼 쭉 솟구치는것만 같았다.

오, 그러면 종말이다, 나는 그것으로써 영원히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것이다, 무섭다, 죽다니?!

제발 저 권총에 탄알이 없다면 좋으련만... 운수가 좋으면 십분 그럴수도 있는것이다.

편은 다시금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쉼새기를 계속했다.

《쓰리.》

세번째 총탄은 액막이로 싹갈졌다.

...어슬무렵, 편이 찼차를 타고 방어진지를 시찰하는데 어디선가 계집애의 울음소리가 간간이 울려왔다. 아빠와 엄마를 부르는, 마치 곡성과도 같은 처량한 그 울음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듣기에 섬찟했다.

편은 불시에 엄습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얼른 차에서 내렸다. 팡크차단물결에서 예닐곱 살나보이는 쪼꼬만 계집애가 발을 동동 구르며 청송맞게 울고있었다. 그게 무슨 구경거리나 되는듯이 빙 둘러서서 너털웃음을 치던 양키사병들이 뒤늦게야 곁에 다가온 편을 알아보고 급기야 차렷자세를 취했다.

편은 사병들이 비켜서자 계집애앞에 쓰러져있는 두 시체를 알아보았다. 총창에 란도질을 당한 중년사나이와 녀인인즉 그 가련한 계집애의 부모인 모양이었다.

《아빠야! 엄마야!》

계집애는 가슴을 박박 긁는 소리로 그칠듯말듯 계속 울어댔다.

《이건 뭐가?》

《사단장각하, 이 년놈들이 우리의 전호파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법대로...》

편은 장교의 설명을 채 듣지 않고 서둘러 차로 돌아섰다. 현대 청송맞은 울음소리는 계속 뒤따라왔다. 신경이 와작 곤두섰다. 편은 발작적으로 권총을 뽑아들며 핵 돌아섰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방아쇠를 당겼다.

《팡!》

총소리가 울리자 계집애는 와뜰 놀라며 울음을 툭 그쳤다.

그제야 마음이 좀 편해진 편은 호기있게 차에 올랐다. ...

이처럼 세번째 총탄까지는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패락을 맞보며 쏘았는지 기억에 생생했다. 현대 네번째부터는 까리까리해서 좀처럼 종잡기 어려웠다.

...오늘 새벽 5시.

공포에 질린 대전시가를 통채로 뒤흔드는 장엄한 포성이 울렸다. 선두에 선 팡크들이 양키사병들이 차지했던 방어진지들을 콩가루뽕듯 짓뭉갠고 모터씨클을 탄 전사들이 거리를 종횡무진으로 누벼대며 기관총을 휘둘렀다.

이건 홍수가 아니라 해일이랄까. 하여간 보기만 해도 혼쫓이 쏙 빠지는 무서운 광경이었다. 이 전대미문의 드센 공격앞에서 허장성세하던 미제침략군 제24사의 방어선은 물먹은 흙담처럼 건잡을수 없이 무너졌다. 편은 명령은 미친개짓은 소리만으로도 효과가 없었다. 장졸들은 물론이요, 부관마저도 제살구멍을 찾아 쫓기가 뺄뻗하여 내뛰었다.

줄지에 홀로 남은 편은 일찌기 체험한적이 없는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사단의 피멸이 확정적인 이 순간 그는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그 한가지 욕망에 사로잡혔다. 급기야 뒤마당에 뛰쳐나가니 마침 운전사놈이 찼차의 발동을 거는게 눈에 띄었다. 편은 날쌔게 찼차에 올라탔다. 바퀴에 불이 일도록 내달리던 찼차는 곧두박힐듯 멈춰섰다.

금산쪽으로 빠지는 퇴로가 차단된것이다.

앞에서 아우성소리가 요란도 했다. 먼발치에 날아와 터지는 수류탄, 귀전을 스치는 총탄... 위급할수록 검질기게 갈마드는 생에 대한 애착에 떠밀리운 편은 체면불구하고 사병들이 도망치는 산중턱에 허겁지겁 다가붙었다.

사병놈들이 깜짝 놀라 힐끔힐끔 편을 쳐다본다.

왕별이 박힌 장성복이 너무도 표가 나서 이럴땐 차라리 사병복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은 권총으로 위협하며 한 졸병놈의 옷을 강다짐으로 벗겨입었다. 때가 짜들짜들한 졸병옷을 입자니 껄끔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인지 몸이 뚱뚱해서인지 단추조차 제대로 채울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장성복을 벗어주고 대신 사병복을 걸치고나니 변신술이라도 쓴것만 같이 여겨져서 창황중에도 스스로 흡족했다.

산언덕을 정신없이 뛰어넘고나서 힐끔 뒤돌아보니 총소리, 포소리도 한결 줌줌해졌고 인민군대의

열기편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살았구나! 휴!—

긴숨을 내뿜던 편은 흠칫 굳어졌다.

30미터가량 떨어진 소나무아래서 누군가 부상당한 다리에 개인봉대를 감고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든것이었다.

인민군전사였다.

전사는 체통이 우람지고 포악스레 생긴 편과 언뜻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해하지도 않고 마치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나 있는듯이 재빨리 기관단총을 틀어쥐며 쉼없는 목소리로 웨쳤다.

《손들었!》

눈감박할 사이에 생사가 결판날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편은 날째게 그 자리에 엎드리며 미처 겨냥도 바로하지 못하고 권총을 쏘갈졌다.

땅! 따다당!—

권총소리를 짓누르며 기관단총소리가 뒤편으로 울렸다. 총탄 한발이 편이 쓴 철갑모를 스치며 휘파람소리를 냈다. 편은 기절초풍하여 사격을 중지하고 그 자리에 꼼짝없이 굳어져버렸다.

《권총을 던졌! 어서!》

편은 얼른 권총을 던지고 두손을 들었다. 인민군전사는 부상당한 한쪽다리를 끌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숨을 죽인채 상대방을 지켜보던 편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아니, 이런 애송이에게 붙잡히다니?!

기껏해야 열일곱살이나 먹었겠다. 소녀처럼 곱게 쌍꺼풀이 진 눈, 오뚝한 코, 홍조어린 두볼, 입술우엔 숨털이 보시시켰다. 그래서인지 인민군전사는 무르익기 시작한 햇복숭아를 편상시켰다.

이거야말로 승냥이가 토끼에게 물린 격이여서 편은 야속하고 통분하기 그지없었다.

이때였다.

편의 몇발자국뒤에 매를 본 까투리마냥 고개를 틀어박고있던 운전사가 후다닥 뛰쳐일어나 무작정 들고뛰었다.

인민군전사는 두눈을 부릅뜨며 웨쳤다.

《셋!》

운전사는 감히 편을 방패막이로 세워놓은채 저만 살겠다고 계속 내뒹였다.

《셋! 쏜다!》

전사가 틀어쥔 기관단총에서 한방의 총성이 울리기 바쁘게 절격! 하고 격침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채수없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총탄에 명중된 운전사는 비명을 지르며 즉사했다.

편은 오싹 몸서리쳤다.

량불이 붉은 전사는 편의 면전에서 자기의 명령에 불복하는자의 처참한 운명을 보여준것이었다.

기관단총을 한쪽어깨에 둘러멘 인민군전사는 그제야 생각난듯 편이 던진 권총을 집어들었다. 흥미있는 눈길로 전리품을 자세히 여겨보던 전사는 격발기를 약간 당겨보더니 총탄이 약통실에 들어가있어 조심하는듯 살며시 놓는것이었다.

편은 바짝 긴장해졌다.

저 권총에 탄알이 남아있을가? 만약 없다면...

생각을 굴리던 편은 서서히 자기의 골통을 겨누는 그 무시무시한 총구를 보자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다.

대관절 어쩌자는건가? 호송하기 시끄러우니 여기서 쏘죽이자자는건가? 아, 하느님맙시사!

편에게 권총을 들이댄 전사는 자기보다 어방없이 덩치가 큰 미군포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전사는 입술을 감쳐물더니 권총으로 단호하게 오솔길을 가리켰다. 무언의 이 명령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완력을 지닌것이었다.

그 순간 편은 다른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저 죽지 말자는 본능에 이끌려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다.

마크가 자기의 이 비굴한 꼬락서니를 지켜보는 것만 같아 편은 낮이 간지러웠다.

하지만 달리 어찌는 수가 없다. 권총이 뒤통수를 겨누고있지 않는가. 힘들다고 멈춰서기 바쁘게 총성이 울리고 두개골이 호두알처럼 깨질 이런 순간에조차 체면을 밀천삼아 용맹해질 그런 용사가 미군에 몇명이나 있겠는가?...

가만, 만약 저 권총에 탄알이 없다면?... 그렇다면 애송이병사를 당장 뺏아쫓아내고 내뿜수 있지 않는가. 최악의 처지로 굴러떨어진 이 수치스러운 사태를 순간에 역전시킬 결정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려면 우선 저 권총에 탄알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기어코 알아내야 했다.

그래서 편은 쉼세기에 골몰한것이였다. 그런데 사고능력이 마비됐는지 자꾸만 헛갈려서 도무지 쉼을 셀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쉼세기를 건너치우고 점을 쳐보기로 했다.

그래, 그게 간단한 방법이지, 침을 뱉어보자, 침방울이 오른쪽신발에 떨어지면 야속하게도 탄알이 한발 남아있는것이요, 왼쪽신발에 떨어지면 고맙게도 그와 반대다.

이렇게 작정한 편은 공정치 못하게도 고개를 왼쪽으로 틀면서 침을 뱉었다. 현대 겨불내가 나는

목에서 침이 쉽사리 나올리 만무했다.

눈깔이 빨개지도록 신고를 거듭해서 겨우 뿔아 뻗은 침이 엉뚱하게도 오른쪽무릎우에 떨어졌다.

종잡을수가 없기에 또 한번 뻗었다. 엿물같은 마른침이 주둥이에서 질질 내리드리워 그네를 뛰더니 콩교롭게도 땀에 화락히 젖은 가슴팍에 달라 붙었다. 점도 신통치 않았다.

편은 미신에 매달렸던 자신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이왕지사 한급수 더 높다고 보아지는 하느님에게 구원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오! 하느님이시여, 굶어살피소서. 당신의 충실한 노복인 윌리암 편이 조선전장에 나왔다가 운수가 사나워서 포로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나이다. 나를 호송해가는 인민군전사의 권총에 탄알이 있는지 없는지 어서 확인해주옵소서.

그 권총은 내것이였소이다. 나는 방금전까지만 해도 그 권총을 추켜들고 사단을 지휘했나이다.

당신도 아실테지만 우리 24사는 18세기 미국의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남북전쟁을 거쳐 두차례의 세계대전에도 참가하여 전승을 거듭한 상송사단이웨다. 현대 여기 조선전선에서 하루아침에 종말을 고했나이다.

원통하오이다. 리승만대통령의 면담요청도 거절해온 이 명성높은 사단장이 팔자가 사나워서 애송이인민군전사에게 권총을 뺏기고 어쩔수없이 비굴한 이 신세가 되였소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권총을 뺏기기 전에 내가 총탄 일곱발을 다 쏘갈진듯 하외다. 현대 다시 돌이켜보면 한발쯤 남아있을것 같기도 하웨다. 좌우지간 지금 내 머리는 너무 복잡해서 하나부터 일곱까지의 초보적인 썸세기조차 할수 없으니 정녕 미칠 지경이웨다.

전지전능하신 당신께서야 그쯤한걸 모를리 있겠소이까. 만약 한발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새알처럼 품게 해주소서, 아멘...)

대강대충 기도삼아 속으로 지껄이고난 편은 십자를 그으려고 손을 내리우며 주춤거렸다.

그 찰나에 총구가 뒤통수를 쿵 찔렀고 노기등등한 전사의 호령이 채찍처럼 귀고막을 후려쳤다.

《이놈아! 빨리 걸었! 당장 쏘죽이기 전에...》

차거운 전풍이 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줄달음치고 땀에 젖은 머리칼이 쭈뼛 일어섰다.

편은 다시금 두손을 번쩍 들며 허둥지둥 반달을 쳤다. 그런데 또 무서운 호령이 재차 귀청을 때렸다. 편은 와뜰 놀라며 멈춰서서 질겁한 눈길로 전사를 돌아보았다. 전사가 손짓을 하는걸 보니 너

무 빠르다, 좀 천천히 걸으라는 분부였다.

잔뜩 긴장해졌던 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못 황송해하는 미소까지 지으면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다. 이렇게 발라맞춰야지 애송이전사가 호송하기 시끄럽다고 방아쇠를 당길 우려가 있었다.

뒤늦게나마 편은 장성복을 벗어던진걸 후회했다. 내 몸값을 알면 이 애송이전사도 태도를 달리 할수 있으련만... 아! 이젠 정말 너무 가혹한 형벌이웨다, 난 윌리암 편이요, 졸병이 아니라 장성인 사단장이란 말이요, 날 고스란히 호송해가면 당신은 모름지기 큰 표창을 받게 될거요, 그러니 제발 방아쇠만 당기지 마시오, 내겐 안해와 자식들이 있단 말이요. ...

불시에 코허리가 시큰둥했다. 굴욕을 초월한 설움이 일시에 북받쳤다. 눈굽에 꺾죽한것이 고이더니 매부리코옆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만약 편이 그 비굴하고 초췌한 물골을 제 눈으로 보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까무라칠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막부득이한 처지에서 편은 그런 수치를 느낄수도 없었거니와 느끼고싶지도 않았다.

사실 전사는 개인봉대를 감긴 했지만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매우 기진한 상태였다. 점차 의식조차 가물거렸다. 그럴수록 그는 이를 악물고 오른손에 쥔 권총으로 양키놈을 겨누고 왼손에 쥔 작대기에 의지하여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힘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부상자리에서 현숙 뻗쳐오르는 무서운 아픔이 전신을 휩쓸었다. 하지만 짹 다문 전사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전사의 침묵은 편에게 공포심을 더해주었다.

답답하구나, 숨이 차다, 더는 못 견뎌다. ...

기운이 빠질대로 빠진 편은 그에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도깨비불같은것이 자꾸만 눈앞에서 깜박거렸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장송곡같은 군악소리로 뒤바뀌우는듯싶었다.

...조선전쟁을 앞두고 도교의 궁성앞 광장에서는 미제침략군의 무력시위가 진행되였다.

례복차림을 한 편은 피묻은 성조기를 나뭇기며 《상송사단》의 앞장에서 춤을 추듯 으쓱으쓱 행진해나갔다. 주석단에 자못 거만스레 서서 움푹 패인 매눈으로 행진대오를 지켜보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도 편에게만은 각별히 그 값비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편은 자기에게 선견지명이 있노라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 화려한 행진이 불과 한달어간에 이런 수치스러운 포로의 걸음으로 바뀔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도무지 헤어날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빠진 그는 그 자리에 어푸러져 죽어버리고싶었다. 걷기는 고사하고 눈을 뜰 기운조차도 없었다. 허를 가로물고 두눈을 지그시 감고 그저 타성으로 비칠비칠 걸어가던 편은 지척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오기에 무춤거리며 눈을 떴다.

으흠?! 이게 뭐야?...

편은 경악을 하며 째깍없이 굳어졌다.

십여명에 달하는 인민군전사들이 수풀속에서 뛰쳐나와 자기의 앞을 막아선것이였다.

《편락병동무! 이게 어찌된 일이요?》

애송이전사는 목적지에도 포로를 호송해온 안도감에 그만 긴장이 풀렸던지 아무런 응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저런! 편락병동무가 부상당한 몸으로 양키놈을 생포해서 끌고왔구만.》

병사들은 뒤늦게야 영문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다가와 편락병을 안아일으켰다.

애송이전사는 가까스로 자세를 바로잡더니 군관에게 뚱뚱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중대장동지! 편락병 김영남은 편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중...》

《수고했소.》

중대장은 편락병의 손을 잡아내리며 계속했다.

《동문 영웅이요, 부상당한 몸으로 뚱뚱보양키놈을 생포해왔으니.》

영남은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고 어른들의 칭찬을 받은 소년처럼 씩 웃었다.

《헛! 이까짓 겁쟁이를 잡아온것두 영웅인가요, 불뽕는 적의 화점을 까부셨다면 몰라도...》

나어린 편락병의 담력이 대견해서 중대원들은 즐겁게 웃었다.

영남은 편을 피득 바라보고나서 손에 쥔 권총의 총구를 우로 올리며 보란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편은 지레 진저리를 치며 얼른 두눈을 감았다. 그런데 총소리대신에 빈 격철이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아! 속았구나!)

편은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전해방전투가 끝난 얼마후.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는 미제침략군 한놈이 제가 바로 미24사단장이라고 자처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심문해보니 편이 분명했다. 편이 어떤

경로를 거쳐 포로수용소에 들어오게 됐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편은 자신의 직급에 맞게 포로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뿐 자기가 포로된 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편을 생포한 무명의 영웅전사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무렵, 영남은 락동강도하전투를 앞두고 참대가 우거진 강기슭에서 때목을 못고있었다.

도끼를 힘차게 휘두를 때마다 앞가슴에 매달린 메달이 햇빛을 받아 유난히도 반짝거렸다. 중대의 사랑을 받는 꼬마편락병은 대전해방전투때 세운 공로로 군공메달을 수여받았던것이다.

이렇게 초고를 써놓고 읽어보니 내판에는 특색이 있게 된것 같았다. 풍자적색채가 강한것이 마음에 들었다. 성공의 예감에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문학통신원생활을 시작한지도 2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작품 한편 발표하지 못하고 앉아뭉개던 나는 제판에 몹시 흥분해서 도작가동맹에 찾아갔다.

전쟁로병이며 전쟁주제단편소설들을 많이 창작한 관록있는 로작가에게 작품을 보였다.

로작가는 《병사와 편》이라고 쓴 작품의 제목을 보더니 대뜸 흥미가 동하는지 성급히 원고의 두께를 번졌다. 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몇페이지 읽어보던 그는 웬일인지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동문 이 소설을 어떻게 썼소?》

내심 불만스러워하는 그 물음에 나는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감빳았다.

《동문 편을 생포한 전사를 만나보거나 했소?》

나무람이 어린 그 물음에 나는 역시 대답을 못했다.

《만나보지 못한게로군. 만나본 다음에 이 소설을 쓸걸 그랬소.》

나는 몹시 난감해졌다.

로작가의 조언은 물론 옳다. 그러나 그 전사를 어떻게 만날수 있단 말인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속마음을 들여다본듯 로작가는 빙그레 웃었다.

《어서 그 전사를 만나보오. 우리 옆집에서 살고있소.》

《예?!》

나는 놀라도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로작가는 미소를 지은채 고개를 끄덕이었다.

《옛사람들의 말을 빌면 〈알고보니 현자는 곁에 있더라〉는 식이지.

우리 옆집에서 사는 박동무는 나와 동갑인데 누가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는 한 하루종일이라도 입을 열지 않는 과묵한 사람ियो. 그러니 한인민반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가 전쟁로병이라는걸 알지 못했고 전쟁시기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는 더우기나 알수 없었지. 그런데 지난해말에 평양에서 그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댔소. 그들이 왔다간 후에 박아바이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군 24사단장인 편을 잡은 병사라는 소문이 났지. 우리 인민반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소.

나 역시 그랬지.

나는 박동무에게 그게 사실이라고 맞대놓고 물어보았소. 박동무는 다소 면구스런 기색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더군.》

나는 조금해서 물었다.

《편을 어떻게 잡았답니까?》

《어서 가서 본인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오. 지금은 출근해서 집에 없을테니 그가 일하는 도출판물관리국에 가보오.》

마침 도출판물관리국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저 상상력과 허구로 편을 사로잡는 풍자소설을 쓰다가 진짜 그 공훈을 세운 로병을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다행스러웠고 기쁘기 그지없었다.

관리국에 찾아가니 첫눈에도 무뎠하고 고지식해보이는 아바이가 여러명의 녀인들과 함께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시, 군별로 갈라 운반용주머니에 넣고있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아바이는 일손을 놓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반가운김에 직통배기로 물었다.

《전쟁때 편을 잡은 박영빈아바이지요?》

아바이는 입을 꼭 다문채 좀 면구스러워하는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바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소설을 쓰려고 그러니다.》

그제서야 아바이는 철문처럼 무겁게 닫겨있던 입을 열었다.

《작가선생이요?》

《아, 아닙니다. 그저 글을 좀 써보는... 아바이네 옆집에서 사는 작가선생님의 방조를 받아 문학수업을 하는 문학통신원입니다.》

내가 몹시 당황해하자 아바이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미래의 작가선생이구만. 우리 관리국에 수많은 소설책들과 시집들이 들어왔다나가곤 하는데 소설을 쓰는 젊은이가 찾아오긴 처음이요.》

나는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아바이와 나란히 앉았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편을 어떻게 잡았느냐고 자주 물어보곤 하는데 사실 뭐 신기한 이야기거리가 못되오. 그것두 나 혼자서 잡은게 아니라 우리 분대가 잡았지.》

못 잊을 그날을 돌이켜보는 아바이의 주름잡힌 눈가에 추억의 빛이 어렸다.

《나는 전쟁전에 38도선을 지키는 경비려단에서 복무했소. 전쟁이 터지자 경비려단은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것은 인민군대가 해방한 도시와 마을, 군사요충지들을 경비하는것이였소.

아군부대들은 놈들을 통쾌하게 죽치며 기세좋게 남진하는데 우린 뒤시중이나 하고있으니 속에서 불이 일더군. 이러다간 총 한방 변변히 쏘보지도 못한채 전쟁이 끝나버릴것만 같아서 모두들 조바심이 났더랬지.

대전해방전투가 끝난 뒤 우리 분대는 이튿날부터 옥천쪽으로 나가는 도로상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다리를 지키게 됐소.

첫날에는 도주하는 적패잔병들을 열놈이나 잡았는데 다음날부리는 별다른 정황이 없더군. 날이 몹시 무더웠지. 매미들이 어찌도 성가시게 울어대던지 귀가 다 멍멍해지더군.

사흘째 되는 날 점심참인데 배잡뱅이를 입은 한 늙수그레한 농민이 다리목을 지켜서있는 내앞으로 허둥지둥 달려왔소. 그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등성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다급히 하는 말인즉 자기네 감자밭에 도적이 들었다는거요. 그 감자도적인즉 미국놈이라나. 그래서 우리 분대는 보초를 한명 남기고 즉시 전투준비를 갖추고 그 농민을 따라 재빨리 등성이에 올라갔소.

아닐세라 웬놈이 감자밭 한가운데 들어가 쭈그리고앉아서 단도로 땅을 두지며 감자를 캐먹고있더군. 흙이 묻은 생감자를 손으로 뚱뚱 닦아서 정신없이 씹어먹는데 그 표락서니가 신통히도 메돼지같더군. 놈은 몹시도 굶주렸던 모양이요. 그저 감자를 뜯어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빙 둘러서서 자기를 네발가진 짐승처럼 구경하고있다는걸 인차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니까. 뒤늦게야 우리를 알아본 놈은 애초에 반항할 엄두도 못내고 눈

을 휘딱 까뒤집더니 두손을 번쩍 들더군.

그런데 말이요.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놈이 었소.

병졸복장을 했지만 그게 놈의 절구통같은 몸에 맞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았지. 그래서 몸수색을 하니 이것 보라구, 장교놈들이나 차고다니는 권총이 나오지 않겠나. 게다가 번쩍거리는 손목시계까지 차고있더군.

〈너 이놈! 편이 아니야?〉

하고 우리 분대장이 다짜고짜로 물었지.

놈은 우리 말을 알아들었는지 흠칫 놀라며 몹시 당황해하는 기색이었소. 그러나 이내 아닌보살하며 우리가 알아들을수 없는 꼬부랑말로 무슨 설명을 하며 고개를 가로젓더군.

그때 우리 분대장이 놈이 혹시 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된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네.

대전해방전투가 끝난 후 몇시간이 지나자 남쪽 상공에서 놈들의 직승기가 날아와 대전상공을 감돌며 공개방송을 불어댔지.

〈월리암 편소장,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빨리 대전에서 탈출하라! 그럴수 없는 상황이면 투항하여 목숨을 보존하라. 우리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취할것이다.〉

글쎄 놈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방송으로 이따위 수작을 하더라니 말이요.

미국놈들이란 다 그런거지.

포로한 놈들의 몸에서는 약속이나 한듯이 품속에 잘 간수한 종이장이 나오곤 하지. 그건 영어와 조선어로 타자한 투항문이요. 폐하면 〈나는 미군 중위 토마스다. 고향은 미국 텍사스주다. 나에게는 안해와 두살나는 귀염둥이 딸애가 있다. 나는 당신들의 인간성과 자비심에 호소한다. 나를 살려달라.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 …

대개 이따위 글이거던.

이런 투항문을 미군부가 수많이 찍어서 전투를 앞두고 고용병들에게 나누어주거던. 이를테면 호신부격이지. 그런 호신부를 받아쥐지 않고서는 싸우러 나가겠다는 놈이 한놈도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노릇이지.

그런즉 패전하고 어디엔가 숨어있을 편에게 놈들이 공개방송으로 그런 호신부를 쥐여주는셈이었소.

조국이나 군인의 존엄, 명예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더럽고 치사한 놈들이었소. 하긴 돈에 팔려온 고용병놈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을리 만무였지.

개나발을 불어대던 놈들의 비행기는 우리 고사

포들이 불을 토하자 쫓무니를 뿜소.

우린 그 방송을 듣고서 미24사 사단장이라는 놈이 도망치지 못했다는걸 알게 되였네. 그래서 해당 기관이 즉시 미군포로들을 점검해보았는데 그속엔 편이 없었네. 편이 부관놈은 있었지.

편의 부관놈을 끌고다니며 놈들의 시체까지 다 확인해보았지만 역시 편은 없었소. 그러니 그놈은 패잔병놈들과 함께 대전 시내나 주변의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게 분명했소. 때문에 우리는 패잔병놈들을 붙잡을 때마다 우선 그속에 편이 있는가부터 확인해보곤 했지.

우리는 의심이 가는 그놈을 끌고 대대부에 갔소. 대대장동지가 직접 그놈을 심문했지. 놈은 조선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지 병어리시눔을 하더군.

〈이놈은 고급장교가 아니면 장령일거요. 편일수도 있소. 만약 편이 분명하다면 동무들은 큰 공훈을 세운거지. 동무들이 직접 이놈을 포로수용소로 호송하시오.〉

대대장은 이렇게 명령하면서 대전해방전투때 로획한 미군짚차를 내주었소.

낮에는 놈들의 폭격이 심해서 밤에 떠났지. 그런데 말이요, 그 메돼지처럼 생긴 감자도적놈이 자꾸만 안절부절하더라니 말이요. 나중엔 오만상을 찡그리고 당장 숨통이 터지는 소리를 지르거던.

하는수없이 짚차를 세우고 왜 지랄을 부리느냐 물어보니 빨리 허리띠를 풀어달라는 시늉을 하더군. 그래서 허리띠를 풀어주고 불기 짝이 허영게 나오도록 바지까지 쪽 벗겨주었지. 놈은 얼른 차에서 뛰어내려 길가의 덩불속에 주저앉는데 뒤미처 구역질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나오더구만.〉

《하하하!》

편의 가련하고 추악한 물골이 방불하게 눈앞에 떠올라서 나는 큰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다.

이거야말로 내가 쓴 풍자소설을 릉가하는 만화였고 만필이었던것이다.

아바이도 소리없이 웃었다.

《그놈이 며칠째 산속을 헤매며 빈속에 생감자를 캐먹다니니 설사를 만났던거요. 그통에 우리도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소. 짚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반시간도 못되어서 그놈이 또 고통스러운 기색으로 엉치를 들었다놓았다 한단 말이요. 그러면 또 할수없이 차를 세우고 놈의 허리띠를 풀어주지. 놈에게서 구린내가 어찌나 지독스레 나던지…

이튿날 이른새벽에야 포로수용소에 도착했소.

놈은 곁에 흐르는 시내물을 가리키며 포승을 쥔 풀어달라는 시늉을 하더군. 그렇게 해주었지.

놈은 시내물에 들어서서 설사로 어지러워진 부위를 씻더라는 말이요. 말하자면 미군장성답게 포로 수용소 입소준비를 착실히 하는거지.

우리는 놈을 포로수용소에 넘겨주고 곧 돌아섰소. 그리고는 그놈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렸지.

시시각각으로 여기저기서 적들을 본때나게 죽이고 거리와 마을을 해방시킨 격동적인 소식들이 들려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판인데 그까짓 설사를 만난 미군포로 한놈이 무슨 큰 존재라고 더 생각할게 있었겠소.

그후 아군부대들은 적들에게 련속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며 락동강계선까지 밀고나갔고 우리는 뒤따르며 주요대상물을 경비하다가 락동강의 지류인 남강기슭에 이르게 되었소.

어느날 문화부중대장이 포탄창고를 지키는 우리 분대에 내려왔소. 그는 우리에게 큰 공로가 있으니 당장 수훈내신서를 써야 한다고 하더군.

우린 모두 놀랐지.

전쟁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막상 이렇다 할 전투는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노상 전투부대의 뒤꼬리나 따라다니며 경비나 서고있는 우리가 언제 무슨 군공을 세웠단 말인가. 그런데 알고보니 보름전엔가 우리가 잡은 그 설사만난 미군놈이 악명높은 미24사 사단장 편이라는거요.

어리석을 정도로 매우 음흉스러운 그놈은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후에도 계속 정체를 숨기고 병졸 흉내를 냈다더구만. 우리 군관들은 심문할 때 벌써 이놈의 정체를 간파하고서도 모르는척 하고 지켜보기만 했지. 편은 포로된 병졸들과 함께 덩굴다나니 이모저모로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요. 놈은 기껏 사흘도 못 참고 자기가 미24사 사단장이니 직급에 맞는 포로대우를 해주면 두고두고 잊지 않겠노라 애걸복걸하더라는거요.

결국 편을 잡은 공로로 우린 표창을 추천받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튿날에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명령이 내렸소. 표창내신문건이 든 전투가방을 메고 후퇴하던 문화부중대장이 놈들의 폭격에 그만... 그다음엔 재진격, 진지방어전... 언제 그런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나는 몹시 아쉬웠다.

《아바이, 그럼 후에라도 편을 잡은 공로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표창을 받았어야지요.》

아바이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후퇴가 끝나자 전면적인 재진격이 개시되어

그땐 그럴 여유가 없기도 했고 또 그러고싶지도 않더군. 불뿔는 적의 화구를 막았거나 적진에 용약 뛰어들어가 허를 잡아왔다면 또 모르겠소. 우리야 그저 다리경비를 서다가 농민의 신고를 받고 감자도적질을 하는 미군놈을 잡은데 불과한데 그게 무슨 큰 공로라고 생색을 내겠나.》

《어쨌든 그놈이야 편이 아닙니까. 왕별을 두알이나 박은 미군사단장이란 말입니다.》

아바이는 별레라도 씹은듯 오만상을 찡그리더니 흥! 하고 소리나게 코방귀를 끼었다.

《사단장?! 후에 알고보니 그렇기야 했었지.

하지만 그때 나에게는 편이란 놈이 설사만난 찌적지한 병졸놈으로밖에 달리는 보이지 않더구만.

설사 편이라는걸 알았다면 어쨌단 말인가. 그놈은 편이기 전에 우리 민족의 원쑤인 미제놈이었거던.》

《그래서 아바인 전쟁이 끝난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가 편을 잡은 공로를 공개하지 않고있었습니까?》

아바이의 낯색이 왜서인지 어두워졌다.

《편을 어디 나 혼자서 잡았나, 우리 분대가 잡았지.

전쟁이 끝나고보니 우리 분대에서 대전해방 전투때 있었던 사람들중에서 살아있는건 나 혼자뿐이더군. 전쟁승리를 위해 모두 한목숨바쳐 싸웠던거요.

나는 전후에 전우들의 뒤통까지 일하려고 애써왔소. 그러나 도무지 만족할수 없더군. 그저 때없이 떠오르는것은 전화의 나날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전우들의 모습이였소. 내 이제 그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수 있겠는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전갈지 않은데다 전쟁때 입은 부상자리가 자꾸 도져서 애를 먹이군 하니... 정말 안타깝소.

그런데도 당에서는 전시에 세운 나의 공로를 평가해주고 글썽 나를 평양에서 열리는 전국로병대회 대표로 불러주었소.》

삼시에 주름이 쭉 퍼진 로병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고 자랑에 겨운 목소리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있었다.

《그래서 난 매일 평양으로 가게 되오. 그 영광의 자리에 어찌 나 혼자만 간다고 할수 있겠소. 전화의 나날에 전사한 전우들도 모두 함께 가는거지.》

홍분한 로병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내가 쓴 작품과는 달리 편을 잡은 병사는 어떠한 표창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 편을 사로잡는 공을 세우고도 그것을 큰것으로 생각지 않고 전화의 나날의 그 정신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로병의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이들이 세운 위훈을 모두 찾아내어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새 세대들이 로병들의 모범을 본받아 성스러운 조국수호전에서 모두다 영웅으로 되게 하기 위해 전승 40돐을 맞는 이해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국로병대회를 성대히 열도록 해주신 것이었다. ...

그때 인상깊게 만났던 박영빈아바이를 십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오늘 전쟁로병들의 예술공연무대에서 다시 보게 되니 나의 반가운 심정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우렁찬 합창소리가 극장을 뒤흔들었다.

준엄한 6.25 전쟁의 그날
판가리결전에 우리 나섰다
조선의 본때로 원수를 치고
전승의 7.27 축포 올렸다

전승기념일을 맞으며 새로 나온 노래 《승리자의 선언》이었다. 관람자들은 격정에 못이겨 모두 자리를 차고 일어나 로병들과 노래를 함께 불렀다.

침략자무리들아 함부로 날뛰지 말라
6.25뒤편 7.27 승리의 7.27 있다

공연이 끝나자 나는 그를 만났다. 아바이도 몹시 반가와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옥류교를 건넜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그때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고 돌아간 박아바이를 비롯한 전쟁로병들은 벽장안에 고이 간수해두었던 물낱은 군복을 다시 꺼내입고서 들쭉는 건설장과 일터들을 찾아다니며 전시가요를 목청껏 불러 근로자들을 위훈으로 고무추동했다고 한다.

강계정신이 창조되던 나날에 로병예술기동대가 찾은 발전소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다투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다.

승리거리에 들어서자 우리의 화제는 조선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불우하게도 포로되었고 후날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부지한채 본국으로 송환된 월리암

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갔다.

아바이는 랑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여간 그놈은 운수가 좋았다고 봐지요.》
《예?!》

《포로까지 되었지만 우리 공화국의 관대한 포로정책에 의하여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돌아갔으니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다시 전쟁이 터지면 편처럼 살아서 돌아갈 놈이 과연 있을수 있겠소? 한놈도 없게 될거요.》

언젠가 발표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성명에 지적됐듯이 놈들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오로지 섬멸적인 타격이고 그 타격에 놈들은 누구나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거란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놈들이 지금도 찍하면 큰소리를 치긴 하는데 정작 어찌지는 못하고있지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너무도 큰 참패를 당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기를 펴지 못하고있으니깐요. 그래서 미국은 해마다 7월 27일이 오면 조선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미군장병들을 추모하여 백악관에 조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아바이는 코웃음을 쳤다.

《흥, 진작 그럴게지. 미국놈들이 조선전쟁에서의 저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셈이로군.》

김일성광장에 들어선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이 걸음을 멈추었다.

전승절을 맞으며 경축분위기로 단장된 광장에서는 명절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날이 저물면 시작하게 될 경축야회를 준비하고있었다. 광장의 국기계양대에서는 랑송색공화국기가 훈풍을 안고 송엄하게 나뭇긴다. 아바이는 그 모습을 추억이 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날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소.》

하지만 오늘도 잊혀지지 않소. 1953년 7월 27일이 말이에요. 그날은 월요일이었지. 군용비행기가 전국각지의 상공을 날며 당보와 군보가 낸 호외를 뿌렸소.

호외에는 원수복을 입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사진을 상단에 정중히 모시고 그이께서 친히 발표한 정전명령을 실었소. 이튿날에도 또 호외를 뿌렸는데 전쟁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7월 27일을 국가적인 휴식일로 정하는 동시에 전국각지에서 이날 국기를 게양할것을 결정하는

여 름 밤 의 추 억

박 태 설

밤이슬 젖은 풀향기
창문으로 흘러든다
밤은 고요하구나 멀리 가까이
은구슬 아롱진 거리의 꽃불들
그리고 처마밑의 나무잎
미풍에 살랑대는 소리 밤의 즐거운 숨소리...

얼마나 생각 자아내는 류다른 밤인가
우리 포화속을 걷던 그때
생각이나 할수 있었던가

우리는 열일곱 그 나이에
총메고 전선길을 걸었지
잊혀지지 않구나
포화에 몸부림치던 락동강반의 밤이
종일 불우박 쏟아지던
진지방어전의 나날이...

세차게 쏟아지는 총탄속
그 이른새벽의 공격
그 모든 싸움의 나날들이

지금도 가끔가끔 떠올라
가슴을 누른다
북으로 산발을 타고넘던 길
한강기슭의 산턱에서
불붙는 인천시가지를 바라보며
가슴에서 쇠뎡이가 내려앉던 일...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헤어졌다
결의 전우들을 제 손으로도 많이 묻었다
허나 산 사람들은 더 역세게 일어섰다!
승리를, 반드시 올 조국의 행복한 날을
굳게 믿으며

잊을수 없다 잊혀지지 않는다
전승의 축포소리 울리던 그밤을
열번도 더 뒤집힌 땅에
공장을 집을 생활을 다시 일으켜세우던
그 나날들

우리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었던가!
포화를 헤치며 재더미의 땅에 삼을 박으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폐허된 조국이 짙어진 무거운 짐
어깨에 걸머지고

그 모진 시련 고난을 달게 여기며
그 무엇도 바람이 없이
후회도 없이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온몸 온 마음 다 바쳐

후날 사람들은
력사책에서 우리의 추억속에서
우리 세대들의 불타는 시절을 읽으리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두고 생각에 잠기리
준엄한 시절에 조국을 위하여
참답게 산 사람들이었다고...

밤이 깊어간다
멀리서 군가소리 들려온다
밤을 쫓고 흔들며 울리여가는
행군하는 병사들의 노래소리
오늘의 젊은 병사들
지난날 우리들 걸은 길과 위훈을
노래에 담아 찬양한다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

~~~~~

내 각결정이 실렸더군. 그날 밤 9시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124문의 포가 평  
양의 하늘에 각각 24발의 축포를 일제히 쏘아  
들었다. 그 시각 총포성이 멎은 전호에서 승리의 축  
배를 들던 우리 전선용사들은 평양의 하늘을 우리  
러 목청껏 만세를 불렀지.》

두눈을 습벽이는 로병의 목소리는 벅찬 흥분에  
떨렸다.

《승리의 그날을 어찌 잊을수 있겠나. 그날에  
만세를 부르던 전우들을 오늘 이 광장에서 다시  
만난것만 같네.》

아바이는 자세를 경건히 바로잡더니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우러러 정중히 거수경례를 했다.

나에게는 이 시각 조기를 띄운 백악관앞에서 허  
영게 센 머리를 푹 떨구고 서있을 패전장군 편  
의 가련하고 처량한 물결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 전 사 시 초

문 선 건

### 전 사 의 량 심

무명고지습격의 밤 전호속  
공개당총회에서 나는 맹세했다  
원췌의 화점을 내가 먼저 막겠다고  
그러나 분대장이 먼저 달려나가  
불뿔는 적화구 몸으로 막았기에  
나는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

그날 그것으로 하여  
나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덧 머리에는 흰서리 내려  
인제는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다

하나 내 마음은 무겁구나  
그날의 맹세를 지키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날 그때 내 왜  
분대장 먼저 달려나가지 못했는가

나를 따라 앞으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치며  
적진으로 육박하던 분대장의 모습  
내 영영 잊을수 없거니

아, 내 한생  
피와 땀을 뿌리며  
불앞에서 죄물을 뚫었다 해도  
마음만은 가벼워지지 않는구나  
목숨을 바친 위훈에는 비길수가 없기에

### 전 사 의 당 부

미국놈 스무놈이나 찢어놓히고  
전호속에 쓰러진 전사  
나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면서  
작은 수첩과 함께  
당부를 남기고 갔다

이 싸움이 끝나면  
분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부탁합니다  
분대장동지!

삼년세월 함께 싸운듯  
보풀이 다 인 수첩  
갈피갈피엔 분공을  
할것과 한것이 명백한  
선동원수첩

눈을 감는 순간에  
할말이 얼마나 많았으련만

하고싶은 하많은 말 다 가슴에 묻어안고  
그가 남긴 말은 오직 한마디

이 싸움이 끝나면  
분공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부탁합니다  
분대장동지!

조국의 고지에 선혈을 뿌리고 가면서도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를 보급할것  
다 못한 선동계획 그 하나 마음에 걸려  
작은 수첩과 함께 남기고 간 전사의 당부

아, 전사의 당부  
그것은 피로써 찾은 고지  
목숨으로 사수해야 할 조국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  
영원한 영원한 삶의 근본이었다

### 처 녀 의 노 래

한차례 전투가 끝난 고지  
깡도안에 울리는 청고운 노래소리  
고지에 포탄을 이고 달려온 처녀의 노래  
—승리의 그날까지 시집을 안 간다오

수집은듯 붉게 타는 처녀의 얼굴  
고향의 박우물같은 고운 보조개  
고향처녀의 마음이런가  
쌍태머리 선반공의 마음이런가

—승리의 그날까지 시집을 안 간다오

고여놓은 포탄상자 무대로 삼고  
그우에 올라서 노래부르는 처녀  
안겨주는 한송이 꽃은 없어도  
두번세번 부르고 또 불렀다오

방금 피어난 꽃이런듯

불바다를 헤쳐온 해연이런듯  
달없는 갯도안에 솟아오른 달처럼  
불수록 사랑스러운 전선마을 처녀

이제 결전에 나갈 전사들앞에서  
승리의 그날을 굳게 믿는  
사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오  
—승리의 그날까지 시집을 안 간다오

## 전 사 의 고 향

전장에서 죽음이 왜 없으랴  
허나 조국을 위한 죽음은 성스러운것  
무엇이 두려웠으랴  
조국성전에 한몸 바쳐 나선 전사

비내리는 밤 적진에 바람처럼 날아갔고  
날아오는 수류탄 맞받아 던졌더라  
피에 젖은 땅 한치한치 배필이로 나가  
결전의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쫓았더라

잠복과 습격

공격과 방어  
생사운명 판가리하는 결전장에서  
무슨 일인들 없었으련만  
전사는 살아있었거니

그날의 전사  
내 만약 그날에 단 한순간이라도  
제 목숨의 귀중함을 생각했다면  
몸은 비록 살았다 해도  
돌아올 고향은 정녕 없었으리라

## 그는 조선로동당원이였다

가증스러운 무한궤도로  
신성한 조국땅을 물어뜯으며  
몽둥이같은 포신을 거만하게 휘두르며  
우리의 진지로 적땅크 기여들 때

어머니대지에 더운 가슴 비비며  
한 전사 배필이해 나갔다  
량손에 반전차수류탄 틀어잡고  
원썹을 맞받아 한치 또 한치

앞에는 미제원썹들  
뒤에는 어머니 계신 고향집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순간  
전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빼앗기면 또다시 죽음같은 노예살이  
지키면 당당한 나라의 주인  
전사는 불사신처럼 일떠섰다  
—이 개놈들이 올라오라  
조선인민군 전사 여기 있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요란한 폭음  
토막토막 끊어져나간 무한궤도

거만한 미제의 코대를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한 그는  
나무리별 농민병사 조선로동당원이였다

경구, 격언

### 검 손 성

- 참된 검손성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이다
- 용감성의 왕관은 검손성이다
- 자만하면 실패하고 겸손하면 성공한다

- 절반 찬 바가지에서는 물이 튀어나오지만  
가득찬 바가지에서는 튀어나오지 않는다
- 열매가 주렁진 아지는 구부러진다
- 겸손성은 거만성의 해독제이다
- 겸손성은 미모보다 낫다

# 강성대국보루를 쌓아가는 사람들

한 승 길

금빛 찬란한 훈장에 현혹되어  
여기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신에게 차례질 재부를 바래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온 사람은  
더우기 없다

눈부신 절정에 올라서는 조국을 위해  
자신들의 한몸을 초석처럼 고이고저  
최고사령관의 명령관철에  
삶의 좌표를 정해놓고  
강성대국의 억년보루를  
쌓아가는 사람들

시련을 이겨낸 우리 조국이  
어떻게 솟구쳐 일어서는가  
온 세상에 보여줄 투철한 각오  
키를 솟군 언제가 다 말해주고  
억척같이 굳어지는 콩크리트혼합물엔  
내 나라를 번영의 강국으로 꾸려갈  
다져지고다져진 맹세가 깃들었다

배낭 하나 메고 달려온 곳에

세상을 놀래우는 새 세기 비약으로  
경이의 눈길을 잡아끄는 그대들은  
최후의 마지막결사전마냥  
자신의 모든 힘을 깡그리 바쳐간다

장군님 우러러  
승리의 환호를 터칠  
2012년 그 봄날을 위하여

산이 많은 이 고장에  
또 하나의 언제산악을  
쌓아가는 가슴가슴엔  
돌덩이를 굴리며 급속도로 흘렀다던  
강물의 거세찬 흐름마냥  
위훈이 소용돌이치고있으리니

믿어마지 않노라  
오로지 당과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가는 그대들로 하여  
조국은 또 하나의  
위대한 승전가를 부르게 되었노라

## 꽃 다 발

김 명 철

또 한분기  
법랑그릇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나를 에워싼 우리 작업반원들  
축하의 박수와 함께  
이 가슴에 안겨주는 향기로운 꽃다발

부끄럽기만 해요  
아직은 쌍테머리  
그저 마음뿐인 나를  
이렇게 다들 칭찬해주니  
정말이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요  
우리 공장이 어떤 곳인지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녁늦게 집에 온 우리 어머니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그때는 대소한무렵  
겨울철도 제일 추운 대목이었는데  
글쎄 우리 장군님  
이 압록강기슭 찬바람을 헤치시며  
어머니의 일터를 찾아오셨대요

달아오른 로에서는  
뜨거운 불길을 확확 내뿜건만  
몸소 그 문앞에 다가서신 장군님  
그릇 굽는 일까지 지켜보셨다고  
목이 메어 더 말을 못하던 어머니



그날 장군님은 말씀하셨대요  
이 공장을 잘 돌려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자고  
이런 법랑그릇이 많이 차례지면  
우리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그래서 교문을 나서는 그길로  
내 들어선 이 공장  
들어서니 그날처럼 우리 장군님  
내 일하는 모습 친히 보아주시는듯  
아무리 일해도 성차지 않아요

양재기 하나라도 내 빨리 찍어내고  
굽도리 하나라도 내 굽게 손질하면  
보다 더 흥성거릴 부엌세간매대들

그러면 우리 장군님  
더없이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려니

아, 축하의 박수와 함께  
향기로운 꽃다발을 받아안은 지금  
자꾸 높뛰는 이 가슴속에선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꽃다발이  
한송이한송이 엮여지고있어요

나는 이 꽃다발속에  
법랑그릇 안고 들고 상점문을 나서는  
시집갈 처녀들의 웃음도 담고  
법랑접시 닦고닦는 녀인들의 행복도 담아  
장군님께 삼가 드리고싶어요!

## 고 향 의 내 가 에 서

김 정 순

황혼무렵 반백의 로병  
고향의 내가에 발을 잠그고 바위에 앉았네  
반가워라 꼬리치는 은빛잔고기  
톡톡 발을 간지럽히는데  
로병은 감회로이 둘러보네  
오랜만에 찾은 산천

잘있었느냐 고향이여!  
흘러간 옛 유년시절이여!  
학생모 벗어 벽에 걸어놓고 떠난 뒤  
군모채양밀으로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예나 다름없이 정가론 고향산촌

물은 그대로 맑고 푸르고  
나무는 자라 그날처럼 설레는데  
어릴적 그의 놀이터 강변모래불엔  
조무래기친구들  
모래불에 벗어놓은 장령옷을 보며  
젖은 바지뒤로 슬며시 고기꺄미 감추네  
그가 바로 어제날 자기 마을 장난꾸러기  
살구나무집 넷째인줄 모르고

삐죽 삐죽...  
가락맞춰 우짖는 고향의 새  
용감아!... 이쁜아!...  
아이들 부르는 친근한 고향말씨 들려오는

저녁녘의 향촌은  
오래적 그날처럼 팔기빛노을속에 잠기는데

장령은 지그시 눈을 감네  
그러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익은 음성  
강가에 나와 해저무는줄 모르는  
장난세찬 넷째를 찾아나온  
근심어린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  
장령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보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뢰이네  
집 떠난 아들의 먼먼길에  
넘고넘은 높낮은 준령에 대해  
가슴가득 채워진 략장  
날아준 어머니 키워준 조국앞에  
부끄럼없는 한생에 대해

이제 어머니 마당가에 달려나오시여  
넷째야 너는 왜 노상  
어미와 고향 잊고 떠나 사느냐 물으면  
로병은 공손히 대답올리리  
그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그리워서였다고 사랑해서였다고  
그리고 늘쌍 마음은 이 맑은 내가에  
이처럼 즐거이 발을 잠그고있었다고!...



윤 민 종

방금 지나간 한여름의 소낙비로 시원하게 미역을 감고난 숲은 한껏 질푸르고 청신하였다. 그리고 그 생김새도 무척 젊고 역척스러워보였다.

연줄연줄 이어지는 푸른 숲의 환희로움을 안고 연청색승용차 한대가 달리고있었다.

차안에서는 뜻이 깊은 노래선물이 흐르고있었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순간에 되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양성소를 갓 나온 젊은 운전사가 명상에 잠겨 듣고있는 곡이었다.

차성민은 노래가 가져다주는 감흥에서인지 목적이 가까와올수록 류다른 회억의 감정에 사로잡혀 줄곧 차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산림경영부문의 당당한 중견일군으로 지금 한창 자기 활동의 전성기를 살고있는 그는 이제 펼쳐질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방실태료해를 떠난 길이었다. 지금 그가 찾아가고있는 수군은 우리 나라 중간지대 산림조성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다는 평이 제기된 소문난 고장이었다.

잠시후 차안에는 좀전과는 다른 흥겨운 곡이 울리기 시작했다.

《록음기를 끄오.》

《예?》

묻는듯 한 운전사의 시선에 성민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쩐지 조용히 달리고싶구만.》

《예 - 알만 합니다. 처장동진 여기가 고향이고 어린시절을 이 고장에서 보냈다고 했지요?》

《그렇소. 사회생활의 첫발자국도 여기서 찍었소.》

차성민은 차창에서 눈길을 떼고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럼 이제 가면 반가워할 사람들이 많겠습니 다. 어린시절 친구들도 있고 직장생활의 잊지 못할 벗들도...》

잠시도 가만있는 성미가 못되는 한창나이의 운전사는 마침 자기의 무료감을 풀 좋은 기회라도 생긴듯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물론이지. 그중에는 내가 진짜로 잊어서는 안 될 한사람이 있소.》

《예? 그가 누구니까? 녀잡니까, 남잡니까?》

역시 젊은이들의 호기심이란 어쩔수 없다.

《남자요. 게다가 나이가 이젠 일흔을 넘겼을 아바이요.》

《그래요?! -》

운전사가 실망한듯 시무룩이 고개를 젓는다.

《왜 흥미가 없소? 산림경영소시절 나의 옛 작업반장이요.》

차성민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일순 눈까풀이 드리운 망막속에 한 인간의 초상이 우렷이 떠

올랐다. 별로 커보이지 않는 다부진 체구에 때이르게 주름살이 깊이 건너간 발은 이마, 총이 센 희숙희숙한 머리카락, 두볼이 움푹 꺼진 담차고 억세어보이는 얼굴...

철없던 그 시절 부모들도 치지 않았던 아픈 때도 들었고 성공의 이 길로 자기를 떠밀어준 사람...

순간 차성민의 머리속에 20여년전의 일이 방불히 되새겨졌다.

...《뭐라구? 이 땅에 태를 묻은 놈이 제 한생 발붙이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모욕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당초에 사람이 되기를 그만둔 놈!》

청년은 순간 눈앞이 번쩍하는것을 느꼈다. 동시에 얼얼해오는 왼쪽뺨을 어루쓸며 무섭게 성이 난 자기네 작업반장을 마주본것은 그후의 일이었다.

그제야 청년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방금전에 자기가 취한 언행을 돌이켜보았다. 잘 생각나지 않았다. 결집에 무슨 말을 망탕 췌쳤던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그무렵 성민이네는 돌박산에 창성이깎나무를 비롯한 몇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자래우고있었다. 여태껏 절대로 나무를 자래울수 없다며(해방전부터 캐떡다버린 버력으로 뒤덮인 산이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벌거숭이산을 푸른 숲으로 만들어보자고 작업반장아버이가 나무심기를 시작한 일이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성민은 이 일이 지겹고 언덜머리가 났다. 벌써 몇년째인가. 자기가 중학교를 나온 그해에 시작한 일이니 이제는 세월도 3년이 가까와온다. 그런데 달라진것이 무엇인가.

해마다 봄, 가을이 되면 돌투성이땅을 두지고 애어린 나무모들을 정성다해 심었건만 마른 삭정이만 거두어들었을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불과 몇대 안되었다. 어깨에 피멍이 지도록 등짐으로 저나른 흙을 합치면 큰 언덕을 이루련만 장마철이면 모두 씻겨내려 허연 돌쪼각만 앙상하게 드러나곤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이는 (50이 되나마나한 나이인데도 사람들은 왜서인지 그를 아버이라 불렀다.) 무슨 미련이 있는지 억척스럽게 일하고 젊은이들을 다그어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설마 이 땅이 우리를 배반하겠니, 그건 당초에 리치에 맞지 않는 소리야. 이렇게 한 10년 품을 들이면 이 벌거숭이산도 우리의 성의를 알아주겠지.》

이것이 아버이의 그 이룰데없이 소박한 지론이었고 생활철학이었다. 허나 그때의 성민으로서 는 그것을 수궁하기가 힘들었다.

그에게도 학교시절부터 아름답게 장식된 꿈이 있었고 남달리 큰 포부가 있었다. 나서자란 정다운 고향산천과 조국의 산야가 그런 돌산때문에 얼룩소잔등처럼 희끗희끗해보이는것이 그에게도 풀불건이었고 많은 의문을 던져주는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그래서 언젠가는 온 학급이 생물야외관찰을 하고 돌아오는길에 선생님에게 물은적이 있었다.

《선생님, 저 돌박산에는 정말 나무를 심어 자래울수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사람이 마음먹어 안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의 그 어떤 엉뚱한 질문에도 언제 한번 성을 내거나 탓해본적이 없는 다심한 처녀생물선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 산은 벌거숭이로 남아 있습니까?》

《품이 많이 들어 그러지요. 사람들이 몇번 나무를 심어보겠다고 접어들었다가 실패하고는 아예 못쓸 땅이라고 관심밖에 두어 그런거예요. 한데 성민학생이 그건 왜 물어요?》

《그건 저...》

성민은 처녀선생의 돌발적인 반문에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대답을 못한채 옆의 동무들을 살펴보았다. 너무도 뻘하고 하찮은것을 묻는다고 동무들이 나무랄것 같아 창피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호호, 알겠어요. 성민학생도 저 벌거숭이산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예요. 그때문에 부끄러워할건 조금도 없어요.》 하고 성민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던 처녀선생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수엄마감을 땀을 때처럼 정색해서 말했다.

《동무들, 누구나가 다 성민동무처럼 이 땅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립장에서 고향땅을 대하고 조국의 자연을 관찰할줄 알아야 합니다. 저 버럭산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될 조국의 귀중한 땅입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저 벌거숭이산도 푸른 숲으로 뒤덮일 날이 반드시 올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우리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더 분발하고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키워가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힘찬 대답이었다.

그날을 계기로 성민은 자기의 인생좌표를 결정하였다. 나의 앞날을 숲에 바치리라.

한생을 조국의 숲을 가꾸는 산림과학자로 살 결심을 성민은 그때 마음속에 굳히었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이 선택이 만사람의 지지는 받을지언정 단 한사람의 시비거리도 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면 배워야 한다, 힘이 억척같은 황소도 먹어야 발을 갈수 있듯이 사람은 배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빨리 대학으로 가자, 과학의 전당으로! 그래서 숲의 세계, 산림과학의 오묘한 세계를 독파하고 하루빨리 숲을 푸르게 하는 지름길로 달리자. 이것은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림경영소로 온 후 더욱 확고한것으로 굳어졌다.

그런데 자기의 이런 희망찬 꿈을 아바이가 좀처럼 알은체 않고 그냥 죽어라 하고 일만 다그어대는것이였다. 그렇다, 문제는 아바이이다. 벽도 문이라고 냅다 밀기만 하는 아바이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

성민은 생각할수록 화증머리가 나고 조바심이 곤두섰다. 지금껏 나무를 심고 죽으면 또 심고 하는 나무심기에 진절머리가 나고 도대체 앞을 내다볼수 없는 아바이의 그 10년이라는것이 생각만 해도 아득하게 느껴졌다. 누구나 도리머리를 하는 이 불모의 돌산에서 나무심기를 하느라고 아까운 청춘시절이 훌훌 날아지나가버리는것만 같았다.

성민은 시시각각 마음을 옥죄여드는 조바심에서 좀처럼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도 그는 아바이가 회의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면서 마저 쌓으라고 한 돌뚝을 불이 나게 쌓아버리고 죽은 나무가지들을 뿌리채 뽑아 모닥불을 피워놓고는 대학입학을 위한 참고도서공부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퇴근길에 작업장을 다시 돌아보느라 들린 아바이의 눈에 걸려들었던것이다.

아바이는 잠시 탐탁치 않은 눈길로 새로 쌓은 뚝의 여기저기를 끈끈히 살피고나서 힐끗 해가늡까지 해보더니 결심한듯 말했다.

《뚝을 쌓은 꼬락서니가 이게 뭔가? 이렇게 건승건승해서는 산사태는 고사하고 습새여나가는 흙의 류실도 막지 못해. 다시 쌓자구!》

《예?》 울컥 화가 치밀었다. 성민은 턱을 쳐들며 내뱉듯 말했다.

《못하겠어요.》

그 말에 아바이는 편똥 놀라는듯싶었다.

《왜?》

아바이가 성민을 쏘아보았다. 성민은 말뚝처럼 버티고선채 큰숨만 쉼쉼 몰아쉴뿐 대꾸를 안했다. 그러는 성민을 한참 지켜보던 아바이는 천천히 짝어말했다.

《사람은 무슨 일이나 후환이 없도록 해야 해. 오늘 힘들다고 우리가 한발 물러서면 나나 성

민의 자식들이 앞으로 우리를 원망할게거던. 제사는 고장 하나 변변히 꾸리지 못했다구.》

《그까짓 원망하겠으면 하라지요. 저같은 이 산을 꼭 폭파해서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정하기 짝이 없는 산.》

화딱지가 꼭뒤편까지 뻗친 성민은 참지 못하고 탕탕 말을 내뱉었다.

《날려보내다니 어디루?》

《어디긴 어디겠어요, 간석지건설장이지요. 거긴 이따위 막돌이 무진장 필요하다는데...》

《뭐라구?!...》

일은 이렇게 되어 벌어졌다. 그때문에 아바이가 대뜸 성이 나서 이 땅에 태를 묻은 녀석이 한생 발붙이고 살아갈 이 땅을 모욕한다고, 당초에 사람이 되다만 놈이라고 불이 번쩍나게 뺨을 후려갈겼던것이다.

성민은 자기를 다잡기 힘든 그 찰나에도 자기 속심을 한마디 내비치는것만은 잊지 않았다.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는거예요! 나도 아바이 못지 않게 이 땅을 가꾸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바이처럼 이렇게 똑심으로나 해서 일이 성사될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안돼요! 그래서 난 먼저 배우자는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구 아바인 날... 예익!》

성민은 눈물을 쥐어뿌리며 아바이를 쏘아보다가 사그라진 모닥불열에 떨어진 참고서를 걸어권채 썩— 앞으로 내달렸다. 아바이는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며 오래도록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그날 밤 성민은 한잠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아바이가 원망스러웠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괴벽하고 무지막직할수 있는가. 젊은 사람들의 심정은 꼬물만큼도 리해하려 하지 않고 제 주장만 옳다고 내몰수 있는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흐른다 한들 아바이의 그 허망하기 그지없는 고집이 과연 실현될수 있단 말인가. 원 천만에!...

이튿날 아침 성민은 작업반으로가 아니라 읍에 있는 군산림경영소로 찾아갔다. 더는 참고견딜수 없었다. 직접 산림경영소 일군들을 만나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결심한것이였다.

그가 초급당비서방에 이르러 무작정 손기척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출입문열의 열려있는 창문으로 누군가의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성민은 은연중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비서동무, 뭘 더 생각해볼게 없수다. 기왕 지사 일이 이렇게 된바엔 금년에 이녀석문제를 아예 락착짓고맙시다. 아, 비서동무도 젊은 사람인

데 뭘 자꾸 늙은이들처럼 궁싹거리시우?》

《아직 이르지 않을가요? 제 생각엔 왜 그런지 자꾸...》

《원 별걱정을 다... 공부란것두 다 제철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한해두해 느루잡으면 그게 누구한테든 좋을게 뭐유. 이제 두고보시우. 그녀석은 꼭 큰일을 칠 녀석입니다. 내 어제 그녀석이 들이대는 소리를 듣고 정말 생각이 많았수다. 하기가 그녀석말이 백번 옳지요. 사실 나야 지금 독심으로 밖에 해보는게 있수. 그녀석 시대야 다르겠지. 그러니 비서동무, 아직 먹은 나이가 없어 가끔 제 기분나는대루 우뚝거릴 때가 있긴 하지만 속궁냥만은 있는 놈이니 우리 훌륭한 산림과학자를 키우는 셈치구 학교에 보냅시다.》

《성민동무가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오겠다고 할가요?》

(뭘 성민동무? 그러니 내 대학추천문제를?...)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우?》 퍼뜩 놀라는듯싶은 아버지의 목소리.

《성민동무야 원래 우리 산림경영소의 기동감으로 키워야겠다고 아버지가 점찍어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홀렁 떠나보냈다가 다시 오지 않으면...》

《원, 비서동무도 이제 보니 본위주의 또한 이만저만 아니구려. 아니, 그녀석이 여기 다시 오면 어쩔고 안 오면 어쩔다는거요. 아무데서건 이 땅의 숲을 가꾸면 되는거지. 안 그렇수?》

《허허...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그저 한번 해본 소립니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이어 두사람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방안가득 울렸다.

(아!...)

성민은 그 순간 고개를 푹 떨구고 입술을 피가 지도록 깨물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서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닫고 그달음으로 30리나 되는 돌박산작업장으로 달려갔다. ...

《내가 대학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는 역에까지 나와 나를 배재주었소. 한생 나무뿌리와 돌각담을 다루어 티끌터실해진 뻗뻗한 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고 진정으로 당부하더군.

〈어딜 가나 이 나라의 숲을 잊지 말고 가꾸어 가는 훌륭한 사람이 돼주게. 조국을 받드는 진짜 거목이 돼달란 말일세.〉

난 이런 아버지앞에 눈곱만 뜨겁게 달구었을뿐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했소.》

차안에는 한동안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이윽고 운전사청년이 저로서도 감동이 큰듯 두 눈을 습벅이며 말했다.

《정말 쉽지 않은 아바이군요. 처장동지가 오늘 이렇게 된것도 따지고보면 그 아바이의 공로가...》

《물론이지. 그런데 난 지금껏 일만 일이라고 바쁘게 보내다나니 제 할바를 다하지 못했소. 이젠 일흔나이드 넘었겠는데 생사도 모르고있으니 참, 무심하기 이룰데없는 놈이지.》

차성민은 심심히 자기를 자책하며 후- 깊은숨을 몰아쉬었다.

《그후에는 한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렇소. 내가 대학에 입학한 이듬해 부모님이 도소재지로 옮겨오는 바람에 한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소. 하지만 그건 다 구실에 지나지 않는거지.》

승용차는 어느새 혼성림이 우거진 침침한 숲속 길을 벗어나 뒤옹박의 밀굽처럼 움푹 꺼진 곳에 안침치게 자리잡은 산골특유의 크지 않은 읍거리에 들어섰다.

산기슭을 따라 파란 기와를 얹은 2~3층 살림집들이 사열이라도 받듯 펼쳐져 서있는 읍거리 한끝에 담쟁이풀이 온통 벽을 가리운 아담한 3층 건물이 서있었다. 짜릿한 옛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군산림경영소였다.

이전에는 처마를 맞댄 세채의 단층건물이 서있던 자리에 새로 신축한것이 분명한 이 건물은 세멘트울타리대신 잘 다스린 일매진 생울타리를 두르고있었다. 하얀 천원돌로 돌포장을 한 크지 않은 마당에는 온통 포도넝쿨이 넉트려져 더욱 싱싱한 맛을 돋구었다.

차가 정문앞에 멎어서기 바쁘게 달려온 40대의 키가 훗칠한 사람이 인사를 하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제 여기 소장입니다. 전화를 받고 기다리던 중입니다.》

순간 차성민은 속으로 언뜻 놀랬다. 꼭 어디선가 본듯 한 얼굴이었던것이다. 다시 소장얼굴을 여겨보았다. 하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억에도 없는 젊은 소장이 자기를 맞는데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세월이 그쯤 흘렀으니 그새 소장이 한두번 바뀌지 않았으리라는것이 너무도 당연했던것이다. 그는 서둘러 2층에 있는 소장방으로 들어섰다.

그와 책상을 마주하고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고난 차성민은 기분이 한껏 맑아졌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던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의 기본사업대상인 처음 만나는 소장이 마음에 들었다. 나이로 보아서는 산림부문에 오래 종사한 경력은 없을것 같은데 군안의 산림실태를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있었고 앞으로의 전망계획도 확고했다.

손잡고 일해볼만 한 사람이라는 흐뭇한 감개가 가슴을 짝 채웠다. 그와 같은 일군들과 함께 일을 떠나가면 전국적인 판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림화, 원림화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크게 한걸음 전진할것이었다. 그래, 이 군에서 시범을 먼저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자!

차성민은 가방에서 기분이 좋을 때마다 한대씩 피우곤 하는 담배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소장에게 한대 권했다.

《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소장이 좀 쑥스러워하며 어줍게 웃었다.

《종구만. 산림일군이 담배를 멀리하는거야 여러모로 좋은거지. 처음부터 안 피웠소?》

차성민은 마음이 흥그러워진김에 한답이라도 나눌 생각으로 별치 않은것까지 캐물었다.

《아닙니다. 군사복무때는 담배를 너무 피워 말을 좀 들었었는데 제대되어 인차...》

《아, 그러니 제대군인이구만. 어떻게 산림일군이 됐소?》

《예, 군대때 전 공과계통공부를 하자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지망했었습니다. 중학교시절부터 약전에 취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대를 앞두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쨌게?》

《편지로 제 의향을 알렸더니 아버지한테서 급히 회답이 왔더군요. <말이야!(우리 집에는 팔셋에 아들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도 아버지는 굳이 말이라고 부릅니다.) 네 결심도 훌륭하다만 아버지는 생각을 달리해본다. 아버지도 이제 한해두해 기력이 진해가니 생각되는바가 많구나. 한생 숲을 가꾸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제 사는 고장 하나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번듯하게 꾸려놓지 못했으니 이게 무슨 인생이나. 너도 요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선군장정의 길을 씩없이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의 산림실태를 두고 걱정이 많으시다는것을 알고있겠지?》

아직 우리 할일이 많다. 네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결심을 달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하고 못박지 않았겠습니까. 전 며칠밤

을 아버지편지를 보고 또 보며 생각을 굴리던 끝에 결심을 달리했습니다.》

소장은 말을 마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하고 묻기라도 하듯 차성민을 바라보았다.

차성민은 불수록 솔직하고 순박하며 자기의 방향전환을 두고 내심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듯싶은 소장에게 더 정이 끌렸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켜냈다.

《그럼 대학공부는 못했소?》

《여기서 일하면서 대학공부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의 의사였으니까요. 소장이 된지 이제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산림경영소로 배치장을 받아가지고온 그날 저녁 아버지는 또 저를 불러놓고 일장 혼시를 하더군요.

《네가 이 애비의 뒤를 이어 한생 숲을 가꾸자고 돌아온건 참 고맙고 장한 일이다. 그러자면 우선 잡도리부터 든든히 해야 한다. 여기서 제 한몸의 편안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 어떤 리득이나 쟁기자는 불순한 마음이 티끌만큼도 있어서는 안된다. 숲도 미물이 아니고 사람처럼 명을 가진 물건이어서 사람이 주는것만큼,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보상을 하는 법이다. 알겠느냐?》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자 <그럼 이제부터 당장 담배부터 끊어라. 숲을 다루는 사람이 여기저기 담배불을 흘리며 나다니는것처럼 안된 일은 없다.》 하고 엄하게 신칙하는것이였습니다.

전 처음 두눈이 켜혔습니다. 그러나 온밤 궁씹거리며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요구가 백번 지당하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부터...》

《음, 아버님이 정말 직통배기구만.》 하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머금던 차성민은 불쑥 번개처럼 닥치는 그 어떤 예감에 정색해서 물었다.

《아버님의 성함은 어떻게 부르시오?》

소장이 히죽이 웃으며 대답했다.

《처장동지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방영표 라구...》

《뭐요?!》

차성민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굳어졌다. 그러니 이 젊은 소장이 자기가 지금껏 잊지 못해하는 그 옛 작업반장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 순간에야 언제인가 반장이 자기에게도 성민이처럼 책벌레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던것이 생각났다. 그러니 아버이는 이 차성민이 썼던 자리에, 나라의 숲을 지켜가는 비여서는 안될 이 험치 않은 좌지에 아들을 대신 내세운것이 아닌가!

차성민은 이 순간 자기로서도 딱히 이룰수 없

는 복잡한 감정—기쁨인지 괴로움인지 알수 없는 혼탁된 감정에 사로잡혀 소장의 손을 힘껏 거머쥐었다.

《글쎄, 내 아까부터 소장동무가 어디서 꼭 본 얼굴이다 했더니 아버지를 닮았구만. 정말 반갑소.》

그가 이전에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몇마디 기탄 없이 털어놓자 소장도 아버지한테서 처장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는 리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속깊은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것은...》

소장은 성민이 청하기도 전에 그후에 벌어졌던 한가지 사실을 더 말하기 시작했다.

군인민병원 고려치료과 담당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있던 아버지가 원인모르게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산림경영소에 날아든것은 어느해 초여름 저녁무렵이었다.

며칠전에도 병원규정을 어기고 한나절 가까이 자리를 떠 말을 들은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새벽에 없어진 후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처음 소식을 받은 아들은 심상히 여기고 몇군데 전화를 걸어보았다. 아버지가 갓을수 있는 조림작업반에도 알아보고 읍과 리들에 있는 누이와 친척,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물론 그 그림자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더럭 겁이 난 아들은 옷층에 있는 소장방으로 달려갔다. 마침 그 방에는 초급당비서도 함께 있었다.

《그래, 알아볼데는 다 알아봤소?》

소장과 마주앉아 담화를 하고있던 비서가 심중한 낮으로 물었다.

《예, 아버지가 들릴만 한 곳은 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구만. 무슨 사고라도 일어난게 아니요?》

보통때는 그닥 침착성을 잃는 법이 없던 비서까지 의심이 가득한 눈길로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원, 걱정두 팔자라더니... 아무렴 이 밝은 세상에 그 령감이 가면 어딜 가겠소. 필경 제 묘자리보러 갔겠지.》

나이지숙한 소장이 괜한 소란을 피운다는듯 데통스레 말했다.

《묘자리라니요?!》

두사람의 덩둘해진 눈.

《생각 좀 해보구려. 그 령감이 죽으면 어디 다룬데 가겠나 하겠소? 돌박산이지. 그러니 그게 묘자리지 뭐요?》

그제야 소장이 뜬뜬해하는 원인을 낚새챈 비서가 비주룩이 웃으며 책망조로 말했다.

《소장동무두 참... 설마 그렇다 한들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할건 뭐니까.》

소장이 한술 더 떴다.

《끔찍한 소리라니? 그게 뭘 끔찍하다구 그러오. 나도 죽으면 그 산에 묻힐지 모르겠는데. 하긴 그 령감이 승인해줄지는 모르겠소.》

《하하하...》

두사람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러나 아들만은 그렇게 웃을 경황이 못되었다.

그들은 마침 마당가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급히 돌박산으로 달려갔다.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온 산림경영소와 자식들의 성의를 무시하고 병원을 떠나 숲속을 어스병대는 《탈영자》를 《체포》하는 즉시 병원으로 실어갈 잡도리였다.

사실 그들의 이런 결심은 너무도 온당하고 조금도 나무랄것이 못되는것이였다.

그무렵 돌박산을 몇해째 안고딩구는 아바이의 건강은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쇠진해가고있었다. 가뜩이나 갱뽀한 얼굴이 더욱 뼈쭉해졌고 무시로 왼손을 등뒤로 가져가곤 하는 아바이의 류다른 거동은 허리에 병이 생겼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다.

《저 령감 그 돌박산때문에 끝내 종신병에 들렀군.》

《저러다 1~2년안팎에 판이 나고말겠수다.》

그 소리를 무심히 들을수 없는 아들은 괴로웠다. 그는 아버지에게 권유도 해보고 자식의 권한으로 끌도 내보았다. 말을 들을리 만무했다. 하는수없이 아들은 두 누이네와 토론한 끝에 기업소당조직을 찾아갔다. 아들의 말을 들은 비서는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많던지라 그로서는 처음 보는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안되겠소, 당장 입원시킵시다. 말을 안 들으면 조직적인 대책을 세웁시다!》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켰던 아바이였다.

허나 이들은 돌박산근처에 이르러 뜻밖의 정황에 부딪쳤다.

이전에 돌만 영성했던 돌박산은 이즈음에 와서 제법 푸른 숲의 체모를 어중간 갖추었는데 새 수종의 바늘잎나무를 조성한 산기슭에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무슨 연기일가?...)

세사람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리 고는 그곳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그러나 그곳에 다달은 그들은 그만 아연해서 한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온 병원이 찾고있는 그 《탈영자》가 돌가마를 걸어놓고 무엇을 끓이느라 넘적 옆드려 입바람을 뱉다 불어대고있었던것이다.

세사람은 의문이 질은 눈길로 잠시 주춤해있다 가 서둘러 아바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때에야 이들을 발견한 아바이는 처음 놀랐고 다음엔 얼굴가득 반가운 웃음을 피워올렸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우? 영? 소장동무와 비서동무까지 함께… 차, 이런 경사사구야!》

《경사사구요?》

비서가 먼저 어이없는 쓴웃음을 머금으며 한마 디 했을뿐 다른 사람은 입도 못 벌렸다.

《경사아니구, 경사라면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수.》

아바이는 그들의 기분따위는 고려도 없이 제 흥에 떠서 길게 말을 늘어놓았다.

《자, 이걸 좀 보시우. 벌레들이 이렇게 죽어너 부러지는걸. 이렇게 하면 되는걸 지금껏 괜한 고생을 사서 했단 말이요. 병원에서 누가 귀땀해주길래 전화로 끈끈히 알아보니 이웃군에서 산에 흔한 풀들을 가지고 자체로 만든 살충약으로 벌레들을 말끔히 제거했다는게 아니겠수. 내 그래 그걸 짬짬이 만들어보느라구 이렇게…》

아바이는 묻지도 않는 말을 한참 엮고난 후에야 그것이 제 자랑같은감이 들었던지 멋지게 해식은 웃음을 날리었다.

세사람은 그제야 낯색을 달리하며 아바이가 가리킨 크지 않은 양철통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진짜 죽어너부러진 벌레들이 한벌 깔려있었다.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것들을 주어모은것이 분명했다.

소장이 이게 웬 떡이냐는듯 먼저 환성을 올렸다.

《아니, 그거 정말 놀랍군요! 이렇게 신통한 약을 병원에서 듣고 제격 만들었던 말입니까!》

《그렇지 않구. 별루 품들것두 아니구 해서 내 짬짬이… 그러느라구 병원사람들 애간장두 적지아니 태웠수다. 후에 가서 사죄를 해야지.》

《후에가 뭇니까. 아바이,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비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였다. 아바이의 새로운 발견과 적극성에 놀랐고 감심되는바가 많았으나 그렇다고 여기에 원칙을 용해시킬수는 없었던것이다.

아바이가 눈이 켜해졌다. 그제야 세사람의 급작스런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도가 간 모

양이었다.

《아니, 그럼 전번때처럼 날 또 붙잡아가려고 왔수?》

《그렇지 않구요. 아바이, 생각 좀 해보십시오. 글썽 우린 그렇다치구 자식들 생각이야 왜 못합니까? 지금 명식동무랑(아들의 이름.) 누이네들이 아버지건강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뛰쳐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일이 아무리 급해도 병치료야 하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가 안타까운 어조로 설분을 토했다. 그러나 아바이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벌컥 성을 냈다.

《아니, 그게 비서동무가 할 말이우? 사람이 제 한몸은 귀중하구 나라일은 아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거요? 가만, 망두석처럼 그렇게 서있지만 말구 예 좀 앉수다. 내 그렇지 않아두 비서동무, 소장동무한테 좀 하고싶은 말이 있었수다.》

아바이는 마지막에 급작스레 태도를 바꾸며 제 먼저 자리를 볼 생각도 않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사람은 어쩔수없이 주위에 맞춘한 자리를 골라 앉았다.

수립속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깃들었다.

청청한 나무잎새로 내다보이는 먼 하늘가를 이윽도록 지켜보며 한참동안 말이 없던 아바이가 드디어 갈앉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내가 말하고싶은건 다르게 아니우다. 난들 왜 비서동무나 소장동무의 마음을 모르겠소. 또 내 몸 돼가는 꼴을 두고 걱정하는 자식들의 극성두 알고남음이 있수다. 하지만 이 숲을 떠나서는 잠시도 못살것 같은 이 늙은것의 마음을 그쪽에서 알아주려 하지 않는것이 안타깝다 그 말이우다. 내겐 이 나무 하나하나가 다 자식이나 갈수다. 자식이란게 뭇겠소? 그저 피를 주었다고 해서 자식이겠소? 피를 주구 정을 주구 키우느라 그만큼 품을 들여서 자식이 아니겠소. 이 숲도 같지. 그래, 우리가 이 숲을 이만큼 자래우느라고 오죽이나 품을 들었소?》

그런데 이제 겨우 첫걸음마를 댄 이 어린 자식들이 뜻밖에 병해충피해를 입어 상처를 입고 쓰러져가는데 그래, 내가 이걸 그냥 두고 제 몸이나 하나 돌보자구 여길 떠날수 있겠는가 말이요. 난 이것이 가슴아파 견딜수가 없수다. 그런데도 비서동무 뭐 내 문제를 조직적으로 취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데 그게 그래 이 령감 마음속을 한귀통이라도 들여다보고 하는 소리요?》

아바이의 음성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과 울분에



젖어 가늘게 떨리기까지 했다.

그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숲속에는 또 한차례 피자누룩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아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난 가끔 혼자 생각해보곤 하우다. 사람에게 이 숲이 얼마나 중요하우. 사람은 숲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수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생겨날 때부터 숲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것이 아니겠소. 옛날부터 숲을 욕심낸 사람들은 많았어두 이 숲에 침을 뱉고 돌아선 사람은 없수다. 그만큼 숲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물건이외다. 바로 그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고 개선하신 후에 산에 몸소 나무를 심으셨고 우리 장군님께서도 나라지키는 바쁘신 길을 수없이 이 어가시면서도 산을 잘 가꾸라고 자주 당부하시곤 하는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우린 지금 그분들의 뜻대로 일을 잘하지 못하구있는것 같수다.

숲을 다룬다구 다 참인간이 되는것이야 아니지 않소. 어떤 마음으루 얼마만큼 써심을 들여 일하는가가 중요한거지. 그렇지 않수?》

아버이는 누구에게랴없이 이렇게 묻고나서 땅이 꺼지게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때문에 우린 이 땅을 푸른 숲으로 뒤덮기 전에는 이 땅, 이 하늘아래서 누구나 떼뻗이 머리를 들수 없는 죄진 몸이나 갈수다. 그래 그런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군 하지요.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 찾으시는 장군님께서 어느때라도 불쑥 여길 지나시다가 이 숲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랴 하는 생각까지 해보는 때가 있수다. 그런 땀 정말 이 가슴이 저려들어 참기가 어렵지요. 내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산을 잘 가꾸어 그분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만점짜리 숲을 키워놓자는것이외다. 그러자니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구려. 허—》

아버이는 금시에 그 어떤 서글픔의 눈물이 왈칵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르는 모양 두눈을 습벅거리며 눈가로 손을 가져갔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비서가 마침내 자리를 털고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이의 그 심정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에 꼭 참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뭐요? 그럼 아직도?!...》

비서를 마주보며 엉거주춤 일어서던 아버이가 불시에 한손을 등뒤로 가져가며 옆에 있는 나무 밑둥을 붙들었다.

《그것 보시오. 아직도 허리가 말을 안 듣지요? 그런데도 병치료를 마다한다는겁니까. 더 지체하지 말고 잡시다.》

비서가 아버이의 팔을 잡으며 선선하게 말했다.

《아니, 난 그렇겐 못하우다!》

《못하다니요. 병원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은 아버이가 걱정안해도 됩니다. 작업반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래일부러라도 당장 조직사업을 하겠습니까.》

비서가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아니, 조직사업을 누가 한다는겁니까? 일을 벌리려면 약을 만드는 기술전습두 해야 하구 그밖에 살필것이 많은데 그걸 누가 한다는거요? 이견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만큼 난 절대 못 가우다. 이 산관에 이 몸이 그대로 묻히면 묻혔지 여길 절대 떠날수 없단 말이우다!》

아버이는 더 시끄럽게 참견하지 말라는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그야말로 요지부동의 자세였다.

비서의 어이없는 눈길과 마주친 소장이 히죽이 웃으며 시까스르듯 한마디 중얼댔다.

《그것 보우. 비서동무,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소? 여기야말로 이 령감의 영낙없는 묘자리지 뭐요!》

어쩔수없이 그들은 하늘에 대고 허거픈 웃음을 마음껏 터뜨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들은 그 웃음에 자기 소리를 합치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그날 그가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 컸던것이다.

차성민의 눈앞에는 자기가 고향을 떠난 후에도 이 땅의 숲을 위해 한생을 변함없이 살아온 한 인간의 깨끗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것처럼 선하게 안겨들었다. 내 이런 아버이를 지금껏 생각조차 회미해질 정도로 잊고 지내왔단 말인가...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듯 한 엄청난 죄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날수 없었다.

《그래, 지금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고계시오?》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소장의 입을 쳐다보았다.

《예, 지난해까지 공훈산림공으로 일을 보시다가 올해부터는 집에서...》

《그럼 소장동무와 같이 있겠소?》

차성민은 한가닥 기대를 품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예, 헌데 지금은 원풍리에 나가계십니다.》

《원풍리라면 이전에 우리가 조림작업반을 뒀고 돌박산을 가꾸던 곳이 아니요. 거긴 왜?》

《그곳에 농장원으로 일하는 제 만누이네 집이

있습니다. 며칠전 아버님이 여긴 갑갑해서 못 있겠으니 며칠간 그곳에 가 바람이나 쏘이다 오겠다는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젠 나이가 나이인지라 허리병에 무릎관절염까지 성해서 다니기 힘든 형편인데도 어디 말을 들습니까. 그 고집이야 누구도 꺾지 못하지요.》

《음—》

차성민은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번 출장길에 상상밖으로 아버이를 만나보는 행운이 차례졌는가 했는데 일이란 참... 하지만 성민은 이런 때 공교롭게도 자리를 뜬 아버이가 전혀 원망스럽게 생각되지 않았다. 인간의 늘그막생이 그런것이야 필연이 아닌가. 아버이인들 왜 자기가 한생을 바쳐 이룩하여놓은 창조물(그는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 돌박산이 푸른 숲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었다.)에서 자기만이 느낄수 있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생의 기쁨을 찾고싶지 않겠는가.

차성민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에게 시간은 언제나 촉박했다. 오늘 저녁중으로 평양에 돌아가야 하는것이다. 래일 성에서 조직한 국제환경보호단체와의 면담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허나 20여년만에 여기까지 왔다가 아버이를 만나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선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아버이는 여러모로 보아 자기가 잊어서는 안될 은인이나 같다. 아직 제 할바를 푹푹히 몰라 이리 피탈, 저리 반개질을 하며 씨알머리없이 굴던 자기를 옹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그토록 마음을 쓴것도 아버지였고 아직 셈이 들자면 멀었다고 옆에서는 도리머리를 짓던 자기의 등을 떠밀어 대학으로 보낸것도 아버지였다.

그때 짝지발같은 그 터실터실한 손으로 어깨를 부여잡고 어딜 가나 조국의 숲을 잊지 말라고, 꼭 조국을 받드는 한그루 거목이 되라고 곡진스레 당부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뇌리에 새겨져있다. 이런 아버이를 이렇듯 가까이 와서도 찾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효막심한 인간이 아니겠는가. 가자, 가서 아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지금껏 제 도리도 찾지 못한 이놈의 죄를 마음 거뜨하게 속죄하자. ...

하늘은 뿌옇게 흐리고 땅은 온통 숲의 천지였다. 장마철인지라 방금전까지 쟁쟁하던 하늘은 또 한차례 소나기를 퍼부으려는듯 먹구름을 실어왔다.

승용차는 도시의 포장도로 못지 않게 잘 다져진 석비레길을 이리 구불 저리 구불 에돌며 기분 좋게 달렸다.

차성민은 원풍리소재지마음이 가까와올수록 더욱 감회가 깊었다. 그는 줄곧 푸른 숲 우거진 차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일부 사람들이 몇십년이 걸려도 나무를 자래울수 없다고 생각했던 돌박산. 이 산에 어린 나무모와 부식토를 지고 오르다가 미끄러져 돌과 함께 굴러내려 온몸에 상처를 입었던적은 그 몇번이었던가.

양묘장주변에 대충 영크려놓았던 늑늑한 초막, 온 여름 정성을 다해 겨우 뿌리를 내리게 했던 얼마 안되는 나무모들조차 한순간에 물어버렸던 그날의 그 무시무시한 장마철사태, 온몸을 뼈속까지 얼어들게 하던 마가울의 울스산한 논개비...

성민의 뇌리로는 그 시절에 체험했던 모든 일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피끗피끗 지나갔다. 바로 그 생활을 구점스럽고 암담하게만 보고 도피자처럼 떠나온것이 자기였다.

하지만 아버이는 그 생활에서 휘황한 앞날을 보았다. 그 정신이 끝내 돌만 앙상하던 이 고장을 숲이 우거진 푸른 고장으로 전변시키지 않았는가!...

성민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젖어들기만 하였다. 차가 잣나무숲이 우거진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였다.

《가만!》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까부터 줄곧 차창을 에도는 들쭉날쭉한 오른편 산쪽을 유심히 살피던 소장이 차를 멈추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잠간 기다려달라 이르고 차에서 내려 곧장 그쪽으로 달려갔다.

차성민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차문을 열고 그가 달려가는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길이 피끗 한곳에 못박혔다.

심은지 2~3년밖에 안될것 같은 분홍꽃아카시아나무들이 빼곡이 자라고있는 맞은편 산자드락의 꼭밀에서 회색비옷같은것을 입고 그 밑자락으로 허리를 동여맨 웬 사람이 움직이는것이 보였던것이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장의 뒤에서 혈금씨금 달려오는 사람을 유심히 살피보았다.

눈앞에 가까와올수록 그 사람의 생김새와 행동거지가 점점 낮이 익었다. 그닥 크지 않은 다부진 체구에 높이 친 상고머리, 검게 보이는 갱릿한 얼굴, 바빠 걸을 때마다 두팔을 활활 내두르는 그 특이한 걸음새... 그것은 정녕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젊은 시절의 옛 작업반장의 모습이였다!

아, 차성민은 순간 심장이 푹 멎는듯 한 충격을

느꼈다.

두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시선과 시선이 부딪쳤다. 그러나 누구도 선풍 입을 열지 못했다.

《처장동지입니다.》

먼저 다가온 소장이 조용히 귀뜸해주었다. 아바이는 한걸음 두걸음 다가왔다.

《임자가 정말 이전날의 성민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바이!...》

그만에야 성민은 격한 감정을 견잡지 못하며 그를 향해 마주 달려갔다. 성민의 손을 짝 잡은 아바이의 주름깊은 눈에 어느새 물기가 번뜩였다.

《몰라보겠구만, 몰라보겠어. 코밑의 그 기미만 아니라면... 하긴 세월이 많이도 흘렀지.》

《반장동지, 이제야 찾아뵙는 저를 욕 많이 하십시오. 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차성민은 삼시에 눈곱이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을 의식하며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다.

《원, 당치도 않은 소릴... 내 이 사람을 통해 자네 소식을 종종 얻어들었네. 그새 글도 많이 써서 학위두 받구 지금은 나라의 숲을 돌보는 큰 일군이 됐다면서. 믿었던바대루 거목이 됐구만. 입잘 보니 내 오늘 진짜루 인생사는 보람을 느끼는것 같네.》

《아바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아바이가 한 일에 비하면야...》

차성민은 말끝을 여물구지 못한채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기만 했다.

이윽고 서로의 격한 감정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차성민이 아까부터 의문스럽던 점을 물었다.

《그런데 아바이, 날씨도 변덕이 심한데 이런 날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계십니까?》

《허, 별로 하는 일이 없네. 늙은이들 하는 일 이란게 그저 그렇지. 괜히 일자리도 못내면서 마음뿐이네.》 하고 그답지 않게 쑥스럽게 웃던 아바이는 옆에 아들이 있다는것을 뒤늦게 깨닫기라도 한듯 소장을 마주보며 정색해서 말했다.

《보아하니 요즘 날씨가 심상치 않야. 방송에서도 올해 큰 장마가 예견된다고 자주 알려주더군. 내 그래서 여기저기 산사태를 막기 위해 쌓은 뚝을 돌아보던중이네. 자네도 알겠지만 저 아카시아 나무밑의 뚝은 3년전에 쌓은것인데 이제 보니 큰 장마에는 견딜것 같지 못해. 그러니 래일부터라도 당장 산림경영소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네. 알겠나?》

소장을 바라보는 아바이의 눈길은 엄했다.

차성민은 그 눈길에서 젊은 시절 작업반장의 모

습을 보는듯 했다. 아니, 온몸으로 느꼈다. 때문에 젊은 소장이 상관앞에 선 병사처럼 허리를 곧게 펴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아, 아바이는 여전하구나! 아직도 제 할일을 놓지 않고있구나!)

이런 생각이 뇌리를 치는 순간 차성민은 오늘 아바이앞에 또 한번 죄를 지은듯 한 자괴지심을 느꼈다. 이런 아바이를 두고 내 방금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던가.

사람의 나이란 어쩔수 없는것이여서 아바이도 종당에는 자식들의 등에 업혀 하는 일없이 여기저기 나다니며 여생을 한가하게 보내고있을것이라고 굳이 믿지 않았던가. 하지만 아바이가 갑갑증이나 풀겠다고 나선 이 걸음은 결코 자기가 생각했던것처럼 생의 마지막위안거리나 찾자고 떠난 걸음이 아니였다.

자기가 한생 가꾸어온 이 숲을 삶을 다하는 마지막순간까지 억척스럽게 지키려는 북부자의 당당한 걸음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인간에 대해 순간 이나마 자기 식으로 해석했던 이 죄를 내 무슨 말로 속죄한단 말인가!...

차성민은 부끄러웠다. 아니, 가슴이 확확 달아올랐다.

그는 돌이기가 물어 아직도 퍼핏퍼핏한 아바이의 터실터실한 손을 짝 틀어잡으며 진심에 겨워 말했다.

《아바이, 오늘 이렇게 아바이앞에 다시 서게 되니 제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아바이의 빛나는 한생앞에 절로 머리가 숙어집니다. 아바이야말로 진짜 조국을 받든 한그루 거목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원, 사람두... 큰일을 하는 사람답지 않게 무슨 그런 소릴... 난 지금껏 내가 해온 일을 그런 어마어마한 말과 더불어 생각해본적이 한번도 없네. 했다면 그저 이 땅의 숲을 두고 그토록 마음 써오신 우리 백두산위인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들겠는가 하는 그 생각뿐이였네.》

《아바이!...》

온 숲이 걱정애 몸을 떨듯 가볍게 설레었다.

승용차는 어둠이 짙은 전야를 달리고있었다. 멀리서 수도의 밤하늘을 물들이는 휘황한 불빛이 보였다.

차성민은 크게 숨을 내그었다. 그의 생각은 아직도 방금 떠났온 숲과 그것이 환기시킨 깊은 상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 미루벌의 물노래

리영일

종달새 우짖는 푸른 하늘도  
바다같은 평암호수에 내려앉아  
굽이굽이 자연흐름식물길 따라오며  
출렁출렁 노래하는 미루벌의 물노래

방풍림 아카시아꽃향기도  
푸른 주단 누벼가는 논물에 실려  
물이 좋아 물냄새에 취해  
운전공총각 일손 다그치는  
미루벌의 물노래

흘러가는 맑은 물우에  
하얀 비누거품 동동 띄우며  
치렁치렁 머리감는 모공급수처녀들  
호호호 터뜨리는 소리도 미루벌의 물노래

고작해야 발버나 심던 땅에  
이젠 마음껏 물모를 낸다고  
할아버지 눈굴을 적시며 바라보는

모내는기계의 동음소리 뜨거운  
미루벌의 물노래

고달령 험산을 뚫고왔노라고  
크나큰 은정의 그 손길이  
넓고넓은 미루벌 축축히 적시어준다고  
고마움에 목메이는 미루벌의 물노래

진정 물이 땅을 적신다더냐  
사람들 가슴을 적신다더냐  
그 옛날 물을 달라고 하늘에 빌던  
등판우에서  
우리 장군님 만세 두손 높이 부르며  
농민들이 하늘을 내려다보게 해준 미루벌

위대한 선군시대를 자랑하며  
장군님사랑을 전해가며  
흘러라 끝없이 흘러라  
아, 물노래 미루벌의 물노래여!

-----

숲... 숲이란 무엇인가. 숲은 정녕 무엇이길래 이 땅의 유명무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으며 그러고도 모자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생명처럼 가꿔가고있는것인가?...

문득 차성민에게는 그 숲이 눈앞에 점점 다가드는 희뵤한 저 불빛, 한없이 찬란하고 광휘로운 수도의 저 불빛과 하나로 이어진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 빛의 파사로움과 광명, 환희...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행복과 공지 그리고 더 밝은 미래... 과연 이 모든것이 숲과 련결되어있지 않단 말인가!...

하다면 인간에게 생을 주고 그 생을 이어갈수 있게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무진장한 억년재부를 주는 은혜로운 숲, 이것을 어찌 자연이 자기의 순리대로 인간에게 스스로 안겨주는 선사품이라 하겠는가. 아니, 그럴수 없다! 숲... 그것은 그에 바쳐진 이 땅 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녀과 헌신이 안아온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것이다!

하기에 사람들이여, 흔히 볼수 있는것이 숲이라고 그것을 결코 무심히 보지 마시라. 그리고 이 땅 어느곳에서든 조국의 산야를 뒤덮은 숲의 푸

르름과 그 신선함, 그로부터 오는 그윽한 자궁심을 가슴터지게 느낄 때 그 숲에 바쳐진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스러운 녀를 부디 잊지 마시라!...

《운전사동무, 차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 노래나 한곡 듣지요.》

차성민은 앞에서 묵묵히 운전대만 놀리는 젊은 운전사에게 말했다.

《노래요? 무슨 곡을 듣잡니까?》

운전사가 록음테프쪽으로 한손을 가져가며 높지 않은 음성으로 되물었다. 평시에는 좀 다사하고 경망스러워보이기까지 하던 그가 새삼스레 듬직해 보인다. 그도 아마 오늘 일을 겪으면서 생각되는 바가 큰 모양이었다.

《거 왜, 동무가 좋아하는 노래 있지?》

이윽고 차안에는 서정이 짙어지면서도 기백이 넘치는 노래선율이 울려나왔다.

푸르러 설레는 조국산천에  
심어 가꾼 한그루 나무도 없이  
참다운 애국을 어이 말하랴  
그 어이 말하랴  
...

## 폭풍치며 노래하라 동해의 억센 파도여

### 꿈 이 아 니 랍 니 다

김 미 옥

그 언제나 뵈고싶은 아버지장군님  
우리의 건설장을 찾으셨어요  
너무 기뻐 그이 품에 달려가 안기는데  
깨여보니 깨여보니 꿈이었어요

꿈결에도 뵈고싶던 어버이장군님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셨네  
그이께서 어떻게 내 마음 아셨을까  
나의 꿈이 정말로 꽃피었어요

장군님심장속에 언제나 인민뿐  
우리의 마음은 장군님생각  
장군님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이것이 내 조국의 모습입니다

아, 장군님만 그리는 우리의 마음  
꿈이 아니랍니다 꿈이 아니랍니다

### 강 산 아 을 쫓 라

김 영 배

단천땅이여 말해보라  
동해여 말해보아라  
태고적부터 잠을 자던  
여기 동해기슭에  
그 언제 오늘같은  
전변의 동음 높이 울린적  
있었던가를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의 함성소리  
대자연을 길들이는  
기계화군단의 동음

사나운 파도 기승 부려도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  
우리 순간인들 주저할소냐  
순간인들 물려서랴  
우리 신념 드팀없으리

어이 모르랴  
승리로 가는 길이  
혈한 길이 아니라는것을  
검푸른 바다위에 방파제를 세우고  
우람찬 선박들을  
부두에 세운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우리 어이 모르랴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안아오리라  
승리를 안아오리라

우리 인민을  
더 행복하게  
더 잘살게 하여주시려  
대소한의 강추위  
삼복철의 무더위를 헤치시며  
강행군길을 걸으시는  
장군님의 그 세계를 안고  
기어이  
승리의 만세함성 높이 터치리

강산아 울려라  
장군님 우러리  
만세소리 높이 울리며  
강성대국 향하여  
질풍천가가는 조선의 기상  
누리에 떨치며  
썰렁, 썰렁—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라

# 내가 사는 은하계

송 윤 철

(저 보이지 않는 별들의 세계를 한번 보았으면...)

밤하늘가 아름다운 은하수의 세계를 보며 나는 이런 동심같은 생각을 하곤 한다. 그것은 구슬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못별들의 뒤에서 그 자태를 한결 더 아름답게 돋구어주는 희고 은은한 빛의 흐름때문이다.

보다 먼곳의 수천수만 별들로 하여 이루어지는 흰 안개비단같은 저 흐름...

아름답게만 보아오던 별들의 세계에 대하여 내 이처럼 각별한 정을 안고 보게 된것은 조국보위초소에서 제대되던 해의 가을부터이다.

...그때 나는 산하구분대에 통신연락을 갔다오다가 읍지구를 벗어나면서부터 붉은넥타이를 맨 어린 소녀를 만나 함께 걷게 되었다.

참, 재미있는 소녀였다. 불임성이 얼마나 좋은지 소녀는 동무들이야기, 학교이야기를 쉬임없이 재깅거렸다.

그런데 콤퓨터수업받던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하던 소녀가 땅거미 내려앉은 산기슭의 갈림길에 이르자 말을 끊으며 멈춰서는것이였다.

《인민군대아저씨! 난... 이 길로 가야 해요.》  
《?!...》

그제야 나는 아까 소녀가 부모들이 중계초소에 서 일한다고 하면서 거기로 간다고 하던 말이 되새겨졌고 메고가는 볼록한 가방에 생각이 미쳤다.

《그럼... 그 중계초소가 저 산속에 있니?》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산우에 있는 텔레비존중계초소에서 일해요.》

궁지에 넘친 목소리, 웃음이 함뿍 어린 그 모습... 순간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그럼 이제 저 산길을 혼자서...

산길쪽을 바라보니 소낙비가 내린 뒤에 바람까지 일기 시작한 산판은 한층 어수선했다. 나는 소녀를 길동무하여 산속의 오솔길로 들어섰다.

《그러니... 너 자주 이 길을 걷니?》

《예, 하지만 여느날엔 밝을 때 가요. 오늘은 시험공부하다가 좀 늦었어요.》

새삼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 산판을 삼켜버린 밤의 장막, 우수수— 락엽들이 일어나 구르는 소리.

소녀의 심정에 서니 제 가방의 필갑소리마저 무

섭증을 더해줄 밤길이다.

잠시 말없이 걸었다.

산아래 마을쪽에서 킁킁 개짖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따스한 온돌방을 그려주는 그 소리...

하지만 사기가 나서 부모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소녀의 목소리는 랑만으로 가득찼다.

이 소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소녀의 모습과 그의 부모들의 남모르는 헌신을 두고, 그에 비추인 나자신을 두고 생각이 깊어졌다.

군사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도 전호가의 생활을 사랑하였다.

산중초소의 남모르는 그 밤들을 사랑하였고 밤새운 전호에서 흰 안개 피어나는 조국산천을 바라보며 병실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사랑하였다.

흰눈덮인 전호가에 청서들이 뛰노는것을 보는것이 기뻛고 수십년간 오고간 발자취들에 비취 옥처럼 다스려진 참호속의 돌부리들마저 소중하였었다.

그때로 말하면 경애하는 장군님을 초소에 모시고 싶어 한그루 한그루 과일나무도 떠다심고 눈비오는 밤이면 평양으로 향한 령길을 지켜 걸음 걸음 병사의 념원 떠나가던 시절,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 살던 시절과 작별한다는 아쉬움속에 살던 때였다.

그런 내 가슴속에 한줄기 빛처럼, 한떨기 아름다운 꽃송이처럼 티 한점 없는 복무의 모습, 목숨바쳐 조국을 지키는 병사의 애국에 결코 못지 않은 중계초소의 부부와 그 딸의 모습이 비낀 것이다.

그때 나는 소리없이 넓은 대지를 적시며 흐르는 한줄기 맑고 깊은 내가를 본 심정이였다.

조국을 잃새 무성한 한그루 거목에 비한다면 그 깊은 땅속에 뿌리의 한가닥을 본 심정이였다.

마음이 숙어졌다.

문득 입대하여 첫 밤근무에 나가 지어본 자작시가 떠올랐다.

저 밤하늘가

크고 반짝이는 별들 많아도

자기 사랑하는 별을 꼽으라면 나는

가장 먼곳의 작은 별을 꼽으리라

너무 작아 사람들은 이름조차 못 주었어도  
은하수의 아름다움 위해  
변함없이 자기를 바쳐가는 모습에서  
나는 전호가 병사의 량심을 새기노라  
전호가 병사의 자세를 가다듬노라

하다면...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느 별에 비길것인가.

밤하늘가를 바라보는 나의 눈동자에 은하수의 반짝이는 못별들뒤에서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별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희고 은은한 빛의 흐름이 뜨겁게 어려왔다.

아, 보이지 않는 별들!

...

그후 뭔가 들끓고 보람찬 일터에서 제대병사답게, 저 하늘가에 나의 별이 있게 빛나게 살고싶던 욕망과 달리 나는 상하수도관리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는 제대병사답게 타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하면서 마음이 서름해지고 실망속에 주저앉게 되는 때도 없지 않았다.

킁킁한 지하도에 외롭게 울리는 발자국소리, 터진 수도관과의 씨름질...

그런 때면 지나간 시절의 수많은 잊지 못할 모습들이 언뜻언뜻 흐르다가 멈추어서곤 하였다.

아, 그날의 그 밤길, 궁지에 넘치던 소녀의 그 모습.

《난... 이 길로 가야 해요.》

언제인가 나는 길을 가다가 나도 모를 사람들이 물을 잘 보내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 하마터면 눈물을 보일뻔 하였다.

좋은 사람들!...

나는 나의 일터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직장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직위도 공로도 보수도 대가도 바람없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름없는 일터들에서 묵묵히 삶을 다 바쳐가는 수많은 이 땅의 복무자들을 사랑한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복무하고 이런 조국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것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

운 삶이 어데 있겠는가. ...

생활은 나날이 애국을 두고, 참다운 복무자의 모습을 두고 수많은 잊지 못할 모습들을 이 가슴속에 새겨주었다.

머리에 흰서리 내린 오늘에도 코흘리개 꼬마들의 걸음새 하나하나 익혀주시며 거기에서 삶의 희열과 보람을 찾으시는 모교의 옛 담임선생님.

하루일 마친 저녁이면 10만세대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수도의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늦도록 땀을 바치고는 마지막 밤차를 타고, 그 차들마저 없으면 달과 별을 동무삼아 집으로 돌아가곤 하던 이름모를 청년들.

려행길에서 잠시 만났었지만 고난의 나날 염소방목으로 고향의 풍요한 오늘을 안아오고 평양에서 대학공부한 자식들까지 고향땅의 주인으로 다시 데려다 내세웠던 강동의 염소방목공들의 그 별에 타고 산바람에 튼 그러나 마음은 진주보석마냥 아름답던 모습들도 나는 한생 잊지 못할것이다.

평범히 스쳐보내는 한사람 한사람이 다 가슴마다에 사랑하는 조국의 기쁨과 아픔을 안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삶을 묵묵히 바쳐가는 우리 인민들이다.

고난의 십수년간 아니, 한평생을 오로지 우리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삶의 전부로, 행복으로, 영예로 안고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하나의 아름답고 눈부신 은하계를 이룬 우리의 천만군민.

이런 사랑과 긍지감속에서 나는 우리 조국을 안아보는 심정으로 저 밤하늘가 은하수의 세계를 안아보곤 한다.

아! 내가 사는 은하계!

유감스럽게도 나는 지금 그 소녀의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또렷이 이 가슴속에 새기여진다.

비내린 뒤의 그 산길, 웃음 함뱍 어린 붉은벚타이를 맨 그 소녀...

《난... 이 길로 가야 해요.》 ...

## 세계유모아

### 《 그 랐 으 면 좋 겠 다 》

《당신이 형단조프레스를 한대 사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기계이지만 나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작가이니까요.》

《당신이 작가라는것은 나도 잘 압니다. 당신의 작품을 많이 읽어보았지요. 바로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형단조프레스를 사도록 권고하는것입니다.》

# 인상깊은 형상의 비결은...

—단상 《〈고까짓거!〉》를 읽고—

송 원 길

단상 《〈고까짓거!〉》(안명에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9(2010)년 8호)는 존엄높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개와 담력을 짙은 형식에 담아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을 감화시키고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실화문학과 환상문학도 발전시키고 수필, 단상과 같은 작은 형식의 글도 활발히 써내야 한다.**》

작품은 문학의 여러 형태를 다양하게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요구를 창작실천에 구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줄달음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기풍을 단상이라는 짧은 형식을 통하여 재치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인상이 깊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개와 담력을 짙은 형식의 작품에 재치있게 형상한 비결은 작가의 현실을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에서나 현실속에서 생활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꿰뚫어보는 작가적인 안목에서도 찾아볼수 있겠지만 작가가 작품을 단상의 형상생리에 충실하게 구성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단상이란 현실생활에서 받은 느낌이나 충격을 서정적으로, 정론적으로 감명있게 표현하는 산문형태의 글이다. 즉 현실생활에서 받은 느낌과 충격을 계기로 필자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사상감정을 즉흥적으로 토로하는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단시와 같은 산문이다.

그러면 작품에서 단상의 특성에 맞게 작품을 구성한 작가의 형상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

우선 생활의 본질을 밝힐수 있는 단면을 정확하게 선택한것이다.

단상은 수필과 공통성을 가지지만 수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글로서 필자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가운데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 한 단면이란 생활의 본질을 밝힐수 있는 작은 단면이다. 필자가 제강소구내를 돌아보고 선택한 단면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담력을 보여주는

있는 《고까짓거!》라는 작은 단면이다. 《치녀시절의 즐거움과 랑만, 로동의 희열이 깃들어있는》 제강소를 찾아간 필자는 많은것을 보고 들었다. 제강소로동계급의 숨결이 뛰는듯 한 대형속보판이며 철기둥에 붙어있는 표어들을 보았다.

《대교향곡의 거세찬 선률인양 왕성한 소음》들인 쇠바줄을 감는 권선기의 《웅글은 소리》, 부속품을 깎는 선반기의 《사르륵 흥겨운 소리》, 쇠물이 끊고 익는 소리, 기중기가 굴러오고 굴러가는 소리와 출강을 알리는 《로동안전원의 연신 불어대는 호각소리》, 또다시 천치를 진감하듯 전기로에서 쇠물이 쏟아지는 소리도 들었다. 또 년간계획수행전망이 어떤가고 묻는 말에 《한손을 뻗 멋있게 내리그》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용해공청년의 대답도 들었다. 필자는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것가운데서 제강소의 대형속보판에 씌여진 제명인 《고까짓거 단숨에!》에서와 《고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강선의 본때는 그 곱을 내다봅시다.》는 용해공청년의 대답에서 생활의 본질을 밝힐수 있는 단면, 형상을 심화시킬수 있는 단면을 잡았다.

현실에서 보고 들은 모든 사실가운데서 나라의 만아들인 강철로동계급의 자신만만한 신심과 배짱을 보여줄수 있는 정확한 단면을 잡은것이다.

단상의 특성에 맞게 작품을 구성한 작가의 형상능력은 또한 생활의 본질을 밝힐수 있는 작은 단면을 정확하게 잡은데 기초하여 그것을 비약과 함축의 수법으로 간결하면서도 여운이 깊게 형상한것이다.

작가는 간결한 구성속에 하나를 통하여 하나가 아니라 열, 백을 보여주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한 방울의 물에서 우주를 보듯, 한모금의 물로 바다물의 맛을 느끼듯 대형속보판의 제명과 용해공청년의 한마디 말에서 강철로동계급의 자신만만한 신심과 배짱 그리고 그들뿐이 아닌 이 땅우의 그 어디가나 느낄수 있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의 기개와 담력을 형상하였다.

또한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를 보여주었고 미래까지 비추어냈다. 속보판의 제명과 용해공청년의 말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2월의 그날에 지퍼



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로 심장을 끓이며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드세차게 실현해나가고있는 강선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련상시켰고 준엄한 1950년대 6만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내어 강철로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한 강철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의 전통이 오늘에도 맥맥히 이어져오고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뿐만아니라 독자들에게 이 땅 어디 가나 느낄수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배짱,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우리는 그이께서 그어주신 리정표대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안에 들어설수 있다는 신심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락관임을 상상케 하였다. 하여 작품을 읽고나면 용해공청년들과 같은 우리 조국의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리라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단상의 특성에 맞게 작품을 구성한 작가의 형상능력은 또한 서정성과 정론성이 강한 문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제강소구내를 묘사한 앞부분 특히 《대교향곡의 거세찬 선률인양 왕성한 소음》을 묘사한 부분은 거의 시라고 할만큼 운율이 느껴지고 서정성이 강하다. 작가의 주장을 피력하는 작품의 뒤부분에서는 기백있고 론리성이 강하면서도 시적인 어휘들

이 많이 리용되고있다.

이와 같이 작품은 풍부한 서정미로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시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재미있고 실감있는 이야기를 엮는 소설, 극적전인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극작품에서만이 아니라 단상과 같은 작은 형식의 작품을 통해서도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그 시대 인간들의 투쟁과 생활을 훌륭하게 형상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시대정신과 그 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작품에 훌륭하게 반영하는 요인은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적극적인 태도와 보고 들은 현실에서 생활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꿰뚫어보는 작가적인 안목과 함께 작품의 형태에 맞게 작품을 구성하는 형상능력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은 시대와 정신, 투쟁과 생활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애착, 열렬한 지지와 긍정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며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엄높은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우리 수령님처럼 뜻이 원대하고 리상이 높게, 수령님처럼 배짱이 세고 락관에 넘쳐 체험함으로써 강성대국의 휘황한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문학의 다양한 형태에 담아 전면적으로 특색있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 상 식

저작권은 과학, 문학, 예술분야에서 창조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나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가 가지는 법적권리이다. 다시 말하여 과학기술적인 논문이나 문학작품, 음악, 미술작품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가 가지는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인정조건은

첫째로, 저작물이 저작자본인의 직접적인 지적활동에 의하여 창작되어야 한다는것이다.

둘째로, 저작물이 정보적가치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인식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셋째로, 저작물의 내용이 창조적이어야 한다는것이다.

넷째로, 그 대상이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창조된것이어야 한다는것이다.

다섯째로, 저작물이 해당 나라의 사회정치적 조건과 민족적풍습, 종교 등과 같은 법에 규제된 객관적조건을 만족시키는 저작물이여야 한다는것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저작자가 직접 창작한 원저작물과 원저작물을 고쳐 만든 각색저작물이 있다.

원저작물에는 문자저작물, 음악저작물, 회화 및 조각저작물, 건축저작물, 지도 및 기술적그림, 사진저작물, 동영상(영화필름)저작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속한다.

각색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운색, 번안, 번역과 같은 방법으로 고쳐 만든 저작물과 민족고전저작물을 현대언어로 고쳐 만든 저작물이 속한다.

## 저작권

# 로 병 의 경 고 장

리 계 심

1950년 6월 25일  
바로 61년전  
이날이었다

미제원쑤가  
새 조선건설의 노래소리 높던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것은

그때로부터 61년이 지난 오늘  
온 나라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환희와 열정으로  
대고조의 열풍 하늘에 치닿았는데

전쟁의 원흉 미제는 또다시  
천치같은 《천안》호사건의 날조극으로  
그 무슨 《웅징》과 《보복》을 떠벌이며  
우리의 코앞으로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천하에 어리석고 가련한 놈들  
추악한 마지막잔명을 유지해보려고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달려드는 놈들  
똑똑히 보라!

바로 60년전 1211고지에서

네놈들, 월가의 전쟁상인들을  
함정골의 시체로 만든  
그날의 병사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땅에 세월은 흘러도  
네놈들의 만행을 순간도 잊지 않고  
복수의 칼을 베풀은  
력사의 증견자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  
전우들의 사무친 원한을  
쌓이고쌓인 통일의 갈망을 풀지 못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머리 센 로병들이다

우리는 61년이 아니라  
6백년 6천년 쌓인것보다 더한  
조선의 증오와 분노를 터뜨려  
네놈들을 씨종자도 없이 재가루로 만들테다

그 재가루를 태평양에 날려버리고  
하나로 통일된 삼천리강산에서  
우리 전체 인민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강성대국에서  
천년만년 복락을 누려갈것이다!

## 상 봉

최 인 덕

얼굴색갈도  
말도 글도 풍습도  
피도 서로 다른  
이방인이 아니였건만

헤어져 수십년세월  
비전향장기수아버지와  
그의 딸이 만나는데  
가슴에 이름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혈육이 혈육을 모르고  
부녀간이 부녀임을 몰라  
이름 석자로 만나는 그날은

나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두팔을 벌리고  
—내 딸이 어데 있느냐!...  
하고 목이 터지라 부르며 달려오고  
딸은 그 모습을 더듬으며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나요!...  
가슴의 이름표 더듬어찾는  
아버지와 딸의 안타까운 눈빛과 눈빛

딸이 앞에 있어도  
딸을 얼싸 안지 못하고  
아버지가 앞에 있어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이 비극  
가을바람은 서로 포옹하라 등을 떠밀어주어도  
서로 알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 순간은  
헤어진 40여년 세월보다  
더 길고 가슴터지는 아픈 순간은  
어찌 이름 석자가 잘 보이지 않은 탓이라

아니  
그것은  
인간백정 미제와  
남조선 반통일역적들이 빚어낸  
조국분렬의 쓰라린 아픔이거니

앞에 두고도 부녀가 서로 몰라  
안타까이 찾고부르던 이 순간에  
가슴에 불타는것은  
미제와 반통일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  
통일의 원쑤에 대한 천백배 복수심  
끝내 찾아안긴 아버지와 딸  
그 품에서 오가는 혈육의 사랑과 정은  
세월도 부녀간의 사랑을 가르지 못하고  
통일의 마음 막지 못하거니  
그날의 그 모습은  
헤어져 더는 못살 우리 겨레의 모습이었습니다

## 품자시

# 제 탓 이 지

—미국에서 동물들이 무리로 죽는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김 용 엽

쏟아지누나 년초부터  
사냥총알 한방 맞지 않고 떨어지는 새무리들  
도로며 정원이며 미국땅 곳곳에  
우박마냥 무데기로 무데기로

떠오르누나 낮에도 밤에도  
그물 한번 안 치고도 뚝뚝 뜨는 물고기들  
강이며 바다며 호수가마다에  
거품마냥 허영게 허영게

얼마나 좋겠느냐 미국 《신사》들아  
새해 벽두부터 너희들 그 기분이  
길가에 나서도 포동포동 먹음직한 새  
강가에 나가도 반질반질 구미도는 물고기  
가는 곳마다 사방 널려있는것이란  
돈없이도 온통 자실것들뿐이니

공짜라면 양재물도 달게 마시고  
먹성에선 세상에서 1등대식가들이니  
잡쉬들보게나 허리띠 풀고 실컷!  
너희들덕에 받은 새해의 《선물》을

아침에도 보골보골 지저서 남남  
저녁에도 부글부글 끓여서 후후  
생일상에도 가득가득 올려놓고 덥석덥석

연회상에도 듬뿍듬뿍 차려놓고 닝큼닝큼

물어보자 어떠냐 그 맛이  
동물들의 그 때죽음  
온 미국땅이 재앙의 징조라 고아대니  
대통령도 불안에 싸여 우들우들  
국회의원들도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정말 불만 하구나  
당장 날벼락이 떨어질듯 갈팡질팡  
금시 대해일이 밀려올듯 왁작복작  
불난 집마냥 아우성치는 가련한 그 몰골이

몰랐느냐  
무기생산에서 내뿜는 유독성물질  
굴뚝마다에서 내쫓는 그 유해가스  
동물들만 아닌  
너희들 명줄도 끊어버리는 독약인줄

때죽음하리라  
살인마 미제 네놈들모두  
가쁜 숨 몰아쉬다 죽은  
그 새들과 물고기들처럼  
누굴 탓하랴 제탓인걸!

# 수 리 봉 에 서

## 리 영 복

맑은 물이 사품쳐내리는 계곡  
수리개들이 땀에 젖은 몸을 씻으며  
유쾌히 떠드는 휴식의 한때  
다래넝쿨 드리운 너럭바위에 앉아  
나는 미루어온 회답을 쓴다  
그리운 친구에게

—김동무 편지를 받았네  
평범한 건축가의 직업을 두고  
그처럼 공지에 넘쳐 사랑하고있으니  
벗으로서 정말 기쁘네  
더놓고말하면 탐사대원의 직분에 대해  
나도 사람들에게 말하고싶었네...

탁아소와 유치원의 작은 놀이감으로부터  
숲을 이룬 총검과 거창한 철의 기지들  
이 땅의 억만재부 그 모든것은  
공업의 척후병 우리가  
조국에 지하의 보물을 섬긴것 아니던가  
하기에 탐사대원 우리보다 더  
보람차고 긍지로운 직업 나는 모른다

사람들이 지붕밑 아늑한 일터를 향해  
아침마다 웃고떠들며 보도우를 걸어갈 때  
우리는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이 나라 천만직종과 초소가 기다리는  
원료자재를 어김없이 대주려  
밀림과 초원, 계곡과 절벽을 뚫아오른다  
이슬에 로동복을 적시며

눈석이가 시작될무렵 산발을 타면  
산과 들에 첫눈이 내릴 때  
시료배낭을 지고 분석실에 들어선다  
저녁이면 단란한 가정들이 웃음꽃을 피울 때  
우리는 폭우에 젖어 사나운 번개와 통성하며  
생소한 골짜기와 산마루에 천막을 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물소리  
밀림의 교향악을 자장가로 들으며 잠에 든다

길가에 혼한 돌과 풀을 보고도 즐겨  
무언의 대화에 습관된 우리  
변덕 많고 심술궂은 자연의 횡포를 맞받아  
불모의 땅 한치를 립방으로 계산하며  
내가의 막돌을 금싸라기처럼 소중히 치부한다  
대자연이 수억만년 완고히 숨겨온 자원을  
미래를 위해 채굴전선에 넘겨주고  
날마다 초행길을 촌촌히 누벼가나니

탐사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아늑한 일터도 아닌 바람찬 로천에서  
떡약별과 눈비에 젖어 찾아낸 금은보화를  
조국에 바쳐가는 개척자!  
시대앞에 몇몇한 남다른 긍지가 있어  
우리는 이 직업을 사랑한다!

탐사대의 로동과 위훈 사람들은 몰라도  
그때문에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마음으로  
하나의 시료를 달빛에 비춰보면서도  
저 멀리 전기로에 끓는 쇠물의 톤수와  
조국이 쓰는 석탄량을 헤아리며 잠못 이룬다  
사람들이 무심히 대하는 발파의 메아리도  
새 광산의 탄생을 당에 아뢰는 보고로  
우리는 긍지높이 들으며 사나니

먼 후날 우리는 몇몇이 추억하리라  
부강한 선군의 내 나라에  
무성한 숲처럼 가득차 빛을 뿜는  
거창하고 위대한 근로의 기념비들은  
탐사대원! 우리가 선발대로 가며  
소문없이 창조하며 세웠다고!...

친구여 내가 직업강의를 했다고  
부디 나무람 말아다오  
우리는 이제 굴지의 광맥을 인계하고  
기쁨도 시련도 많았던 이곳을 떠나네  
구름이 산허리를 휘감은  
새 탐사지구로 또 가야 하거니  
나는 이 회답을 로상에서 부치네

## 해방후 남궁만의 극문학에 형성된 애국농민의 성격적특질

근로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 농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예술적으로 잘 그리는것이다.

남포시 강서구역의 빈농가정에서 출생한 극작가 남궁만(1915-1987)의 해방후 극문학은 토지개혁으로 땅의 주인이 된 애국농민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의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을 옹골치게 밝혀낼수 있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 그려지는 모든 인물은 당대사회의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물로 되어야 하며 생활도 어느것이냐 시대의 특징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한 전형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희곡 《복사꽃 필 때》〔주체35(1946)년〕, 《산하유정》〔주체36(1947)년〕, 《봄비》〔주체36(1947)년〕, 《소낙비》〔주체38(1949)년〕, 《하의도》〔주체38(1949)년〕 등은 땅을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농민들의 한결같은 감사의 정과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준 우수한 작품들로 되고있다.

이 시기 남궁만의 극문학에 형성된 애국농민의 성격적특질은 우선 땅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였다.

희곡 《복사꽃 필 때》는 주체35(1946)년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소망을 헤아려 토지개혁을 구상하고 준비하실 때 몸소 작가에게 과업을 주시고 대본까지 보아주시면서 그 창작을 지도 해주신 작품으로서 토지개혁법령발포와 함께 무대에 올려 토지개혁의 자랑스런 사변을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지주 김가놈이 3.7제를 반대하여 도인민위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3.7제는 지주의 의사가 아니라 농민대중의 의사이니 그에 따르라고 단호히 배격하였고 김군식이며 지주집머슴이였던 업동이, 칠성로인 등 마을사람들은 지주놈이 3.7제를 못하겠으니 땅을 떼겠다고 울러메면서 마지막발악을 할 때도 그것은 지주 당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요구라고 하면서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토지개혁이였기에 농민들모두가 찬성하고 떨쳐나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는것을 확인한것으로서 작품이 의의를 가진다.

희곡 《하의도》에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뿐아니라 남조선농민들도 땅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미제의 토지수탈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형상하고있다.

남해의 섬 하의도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지고있지만 이곳 농민들은 일제때에는 《동척》의 략탈로, 해방후에는 미제가 조작한 《신한공사》의 강도적수탈로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작품에서 박종창, 김전배 등 마을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본성을 깨닫고 북반부에서 이룩된 참다운 민주주의적성과에 고무되어 《신한공사》를 반대하여 대중적인 폭동에 떨쳐나선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북조선농민들과 같이 우리 남조선농민들에게도 땅을 나눠주어 다같이 잘사는 날이 올 때까지 힘껏, 힘껏 싸워주십시오!》

마을청년 김전배는 적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웨치는것이다.

남궁만의 극문학에 형성된 애국농민의 성격적특질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애국농민들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희곡 《복사꽃 필 때》에서 보는바와 같이 글모르던 룡손이가 기어코 글을 배워 땅을 주신 수령님께 제 손으로 감사의 편지를 올리고 충정을 맹세다지는것이며 김군식과 마을청년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토지개혁법령관철을 위해 뛰고 또 뛰면서 지주놈과의 계급투쟁에 한몸 다 바치는것이다.

또한 희곡 《봄비》에서 청남이와 아버지 박편 등 마을농민들이 땅을 주어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에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수령님께서 받기하신 대자연개조사업과 인민경제계획수행관철에 한마음한뜻이 되어 떨쳐나서고있는데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자신들을 나라의 떼떽한 주인, 땅의 주인이 되게하여 주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으로부터 오는 충실성이 강하게 깔려있다.

해방후 남궁만의 극문학에 형성된 애국농민의 성격적특질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불타는 애국심이다.

그들의 성격속에 깊이 자리잡은 불타는 애국심은 우선 나라에 애국미를 더 많이 바치려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에서 표현되고있는바 애국미

헌납운동을 비롯한 숭고한 애국운동을 반영하여 그들의 애국적품모를 다양하게 형상하였다.

회곡 《봄비》의 박편과 청남이, 회곡 《소낙비》의 성근이와 같은 청년들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기루 나라에 쌀 다섯가마니를 바치는게 아깝겠소. …난 있는것 다라두 바치자구 그랬수다. 그랬드니 비료까지…》

나라에서 애국미를 바친 박편네 가족에게 표창한 비료를 받아안으면서 박편이 터치는 걱정이다.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에게 있어서 애국미를 정성껏 바치는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표현이며 새시대 농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일진대 나라에서는 농민들의 그 깨끗한 마음을 소중히 여겨 비료까지 주었으니 그 고마움에 농민들모두는 열정을 다 바쳐 보답의 구슬땀을 이 땅에 묻어 증산경쟁의 애국사업에 한몫 다바칠 결의를 가다듬는것이다.

회곡 《소낙비》에서 혜순이며 성근이, 영섭이들은 랭상모를 더잘 가꾸어 나라에 증산경쟁의 알곡생산으로 보답하기 위해 헌신분투하며 쌀뿐 아니라 돼지기르기도 증산경쟁이라고 하면서 농사일과 가축생산에서도 주인된 농민다운 열성을 다 발휘한다.

농민들의 불타는 애국심은 또한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높은 알곡생산의욕에서 표현되고있다.

회곡 《복사꽃 필 때》에서 엽동이며 칠성로인, 《봄비》의 박편, 《산하유정》의 최편이며 《소낙비》의 주인공 심령감과 성근이들은 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어제날의 머슴으로부터 땅의 주인, 농업생산의 새 담당자로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서 이들이 걸어온 생활과 처지는 그들에게서 알곡생산의욕을 중요한 성격적특질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더 많은 알곡생산을 위하여 자기의 결혼식에 쓰려고 마련했던 돈까지 물길개간공사비용으로 바쳐 두달동안에 1만여평의 새땅을 얻

는데 적극 이바지한 《봄비》의 주인공 청남이며 결혼식때 새색시가 될 혜순에게 끼워주라고 어머니가 준 금반지도 농촌기금으로 기꺼이 바치는 《소낙비》의 주인공 성근이들은 다 높은 알곡생산의욕을 지닌 시대적성격의 체현자들로 훌륭히 형상되었다.

회곡 《소낙비》에서 완고한 경험주의자인 《랭상령감》—심령감이 좋은 자리에 종축장을 짓자고 고집할 때에도 성근이와 혜순이는 이를 반대하면서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종축장을 크게 건설하여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것도 중요하지만 새 조선의 미래를 가꾸고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려는 해방된 민주조선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심은 여기서도 나타나고있다.

또 인생의 개화기—열정이 불타오르는 꿈많은 청춘시절에 가고싶고 해보고싶은 일이 많아도 조국의 귀중함, 땅의 귀중함을 뼈아프게 체험한 성근이와 혜덕(혜순의 오빠)이 같은 청년들이 총대로 그 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리상과 포부를 조국보위초소로 택하는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참으로 이 시기 남궁만의 극문학에 형상된 애국농민의 성격적특질은 그 생활내용과 형상방법에서 다를뿐이지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일관되어있다.

작품들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참신한 계기를 포착하여 새 조국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는 땅의 주인된 애국농민들의 고상한 성격적특질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해방후 남궁만의 극문학은 그 시기 애국농민의 성격적특질을 옹게 형상함으로써 이 시기 농민들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남 궁 청

## 조선속담

### 술

- 술잔두리에 모여앉아서 좋은 일이 없다
- 술과 쪽배는 믿음성없는 길동무
- 술꾼은 약속을 지키는것보다 잔을 채우는 일이 더 많다
- 술은 도깨비장물, 술망나니는 폐가망신
- 술은 들어가고 말은 나온다
- 술이 들어가면 정신이 나간다

- 술은 술병과 안주접시 이외에도 모든것을 마스다
- 술에 미치면 가난에 빠진다
- 술에 미치면 일생을 망친다
- 술은 맑으나 코를 붉게 하고 량심을 겁게 만든다

# 김금원과 금강산시에 대하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내세우고 자랑할줄 알아야 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다양하고 풍부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였다.

우리 민족이 창조하여놓은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가운데는 봉건의 질곡속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외유내강한 품성을 고이 간직해온 조선 여성들의 얼굴도 엿보이고있다.

중세 조선여성들은 대대로 세습되어온 남존녀비와 삼종지도의 유교도덕이 지배적이던 봉건사회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초보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생활을 지향하고 사랑해온 우리 여성들도 후세에 길이 전할 귀중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였다.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김금원도 우리 문학사에 자기의 지위를 뚜렷이 한 녀류문인의 한사람이며 여성들의 첫 문학류파인 삼호정시사의 조직자이다.

김금원(1804-?)은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북잡다단한 리조 후반기에 활동한 호방하고 자유분방한 시인이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모가 아름다웠을뿐아니라 성격이 부드럽고 활달하였으며 시적재능도 뛰여났다. 그러나 천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 자신이 직접 첩생활을 하는 과정에 봉건사회에서 누구나 겪는 신분적차별과 구속, 정든 님과 리별해야 하는 고통의 쓰라린 아픔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김금원은 자신의 평온하지 못한 생활과 봉건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던 당시의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찾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다. 그는 저주로운 사회에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한탄하였으며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하는 불합리한 봉건사회에 항거해나서기도 하였다.

그의 기행문적성격의 산문 《호동서략기》에는 김금원의 성격과 지향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녀자도 인간이거늘 같은 궁정이나 으스스한 구방에 일신을 묻고 마음대로 출입할수 없으니 이 어찌 죄없이 옥에 갇힌것과 다를바가 있으며 피는

꽃과 솟는 달, 명산대천이 문밖지척에 있으나 마음껏 보고 유람할수 없으니 이 어찌 누릴수 있는 자그마한 지향마저 짓밟히는것이라 아니할수 있겠는가. 부모의 소원도 한갓 정숙한 녀자에 지나지 않고 녀자 자신의 자기 평가도 이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이처럼 김금원은 자유로운 삶과 인간적존엄을 지키고저 모지름을 썼으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녀류문인들과 교우하며 문학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특히 김금원은 리조 후반기 활발하여진 녀류문인들의 문학창작활동의 흐름을 타고 사상미학적, 처지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여성들의 첫 시회를 조직하였다.

물론 우리 나라 문인들속에서 시회조직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고려 중엽 정중부의 무신란을 피하여 은신한 리인로를 비롯한 7명 시인들이 조직하였던 해좌칠현과 리조시기에 와서 평민출신 시조시인들의 모임인 경정산가단 그리고 평민출신 한자시인들의 모임인 송석원시사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일종의 창작적지향과 처지의 공통성에 의하여 무어진 문인들의 시회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봉건의 속박이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칭칭 엮매고있던 이 시기 여성들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문학창작활동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시회를 조직하였다는것은 참으로 특이한것이다.

삼호정시사는 바로 19세기 전반기 김금원을 중심으로 하는 운초, 박죽서, 경산, 경춘 등 5명의 녀류시인들이 사회계급적처지와 미학적리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무어진 우리 나라에서의 첫 녀류문학류파이다. 이들은 모두 서민출신으로서 뛰어난 시적재능을 지니고있은것은 물론 자유분방하고 랑만적인 서정의 구사로 봉건적인 구속의 타파를 주장하였다.

김금원은 자기의 시 《룡산삼호정》의 서문에서 자기들 5명의 녀류시인들은 주로 룡산의 삼호정에 모여 인간적으로 깊이 사귀었을뿐아니라 당대의 야속한 현실에서 자기들이 체험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이 사라진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갈망과 지향을 절절히 노래하였다고 쓰고있다.

김금원은 계속하여 《시를 읊을 때가 많았으니 따라서 수창한 사람은 4명이였다. 그 하나는 운초이니 성천사람으로서 연천 김상서(김리양)의 첩

이다. 재주가 뛰어나게 절등하여 시로써 이름을 크게 떨쳤다. 끊임없이 자주 나를 찾아왔으며 며칠씩 묵기도 하였다. 또 한사람은 경산이니 문화인으로서 화사 리상서의 첩이다. 다문박식하여 시 읊기를 잘하였는데 마침 이웃에서 살았기때문에 서로 왕래하였다. 또 한사람은 경춘이니 나의 동생이며 주천 홍태수의 첩이다. ... 서로 함께 즐겁게 노닐면서 시를 지었는데 시를 적은 두루마리는 상에 가득하였고 찬탄의 목소리는 땅에 가득찼다.》고 하였다.

김금원 역시 참판 김덕회의 첩으로서 이들과 신분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었다.

이들은 봉건적인 축첩제도가 강요하는 불행을 직접 감수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 귀여운 자식도 없이 언제나 불안속에 살면서도 자기들의 사회계급적처지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며 자신심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갈구하면서 리상사회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지향을 시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이처럼 사회계급적처지와 미학적리상의 공통성을 가지고 통산의 삼호정에 모여 시모임을 가졌다고 하여 이들의 모임을 삼호정시사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리조 후반기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여성들의 문학류파가 나오게 된것은 우선 남존녀비의 봉건적속박에서 신음하던 우리 여성들이 문학창작에로의 진출이 강화되고 규방에서부터 사회로 진출하려는 그들의 자주식이 더욱 강화된 데 있다. 또한 이전시기부터 문인들속에서 벌어졌던 문학류파의 조직과 명명이 새것에 민감한 우리 여성들의 활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데도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여성들의 높은 미학적정서적 요구와 문학창작활동에서의 새로운 전진에 기인된다고 할수 있다.

삼호정시사의 여성문인들은 명승지탐승과 전국 각지에 대한 편답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우리 여성들의 감정정서를 깊이있게 반영한 수많은 한자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김금원의 창작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이름높은 명산의 하나인 금강산을 직접 탐승하고 자기의 감정정서를 시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한것이다.

천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인 김금원은 14살에 벌써 남북차림을 하고 금강산을 찾았다. 가는 곳마다 절승이고 보는것마다 절경인 금강산의 기기묘묘한 황홀경에 김금원은 저도 모르게 찬탄의 목소리를 터쳤고 경탄의 시구절이 흘러나와 시 《금강산에 들어가며》를 창작하였다.

이름난 곳 찾아드니 경치 더욱 새롭구나  
꽃 날리고 새가 우니 지난날이 한스럽네  
봄빛 질은 나무숲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꿀짜기의 내물소리 가슴이 시원해라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 천하명승 금강산을 찾은 서정적주인공—김금원의 희열에 찬 모습이 엿보이는 시구절이다.

김금원이 10대의 소녀시절에 벌써 봉건의 속박을 박차고 남북차림에 유람의 길을 떠난것도 장한 일이지만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인간개성의 감정정서를 뜨겁게 담을줄 아는 그의 시적재능은 뛰어난것이다.

계곡따라 돌아드니  
가는 곳마다 황홀경인데  
흘날리는 물보라에  
꽃들은 봄서리치네

무지개 비낀 이 봄은  
한폭의 그림같고  
장쾌한 폭포소리  
온 골에 가득찼네

시인의 뜨거운 감정정서는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결부되어 더욱 승화되고있다. 이 시가 바로 《계곡따라》, 《황홀경》을 이룬 《한폭의 그림》같은 만폭동의 경치를 생동하게 보여준 시 《금강산만폭동》이다.

만폭동은 금강산 내금강의 명승지로서 금강문으로부터 화룡담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이 골은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할만큼 골짜기가 수려하고 폭포와 늪도 많다. 만폭동이라는 이름도 폭포가 많다는데서 유래된것으로서 폭포와 늪이 많고 그래서 더 황홀경을 이룬 이곳의 장쾌한 모습을 한폭의 그림처럼 7언절구에 담아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금강산의 아름답고 장쾌한 모습에 넋을 잃고 골방속에 들어있던 자신에 대한 한스러움을 느끼며 내금강의 오랜 절간 정양사로 발걸음을 옮기던 김금원은 산어구에 높이 솟은 혈성루의 모습에 또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연해연방 저도 모르게 즉흥시를 읊었다.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혈성루  
산어구에 들어서니



그림같은 수풀일세

우뚝 솟은 봉마다

절승경개로다

...

혈성루는 내금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기 좋은 곳으로서 예로부터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바로 김금원은 이 루에 올라 절승경개 내금강의 풍치에 심취되어 시 《혈성루》를 창작했던 것이다.

금강산의 경치를 부감하려는 김금원의 지향은 끝이 없어 해금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인은 해금강의 장쾌한 모습, 끝간데없이 펼쳐진 푸른 동해의 물결에 자신의 걱정을 누를길 없어 시 《바다를 보며》를 창작하였다.

백천의 강물이 다 흘러들어  
깊이며 넓이가 한량이 없구나  
하늘땅사이에 크고큰 이 바다  
팔 벌려 한품에 그러안노라

일망무제 펼쳐진 깊이와 넓이가 한량없는 크고 큰 바다, 하늘땅사이에 아득히 펼쳐진 바다를 《팔 벌려 한품》에 그러안고 싶어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낭만적인 세계—이것이 바로 김금원의 개성이며 자유분방한 그의 창작세계의 반영인 것이다.

김금원은 여성이지만 봉건류리가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환경속에서도 자기의 개성과 창작적지향을 안고 전국예로의 여행을 시도하였으며 남성들도 쉬이 결심하기 어려웠던 금강산예로의 탐승을 진행하고 보고 느낀 모든것을 시로 읊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금원은 당시 심각하게 제기되던 정치적문제들에 예리한 주목을 돌리지 못하였으나 골방살이에 한숨 지으며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님을 안타까이 그리며 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을 읊조리던 보통 녀류시인들과는 달리 주요한 사회적문제의 하나인 여성의 인권보장과 자유로운 생활을 주장하고 대담하게 실천한것으로 하여 봉건 말기 문학유산의 풍부화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변 규 순

##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6호 (루계 제764호)

### 편집위원회

내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6월 1일

발    행    주체100(2011)년 6월 5일

7-1621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